

APOCALYPSE
WORLD

아포칼립스 월드

아포칼립스 월드 리플레이

뉴욕 밀크 스테이크

아포칼립스 월드 원작 영문판

©2k+10 D. 빈센트 베이커
전권 보유

www.apocalypse-world.com

D. 빈센트 베이커 저

삽화: D. 빈센트 베이커,
Dreamstime 및 iStockPhoto의 사진을
활용하여.

책 디자인: D. 빈센트 베이커

아포칼립스 월드 국문판

©2k+14 도서출판 초여명
전권 보유

김성일 편역

박나림 감수

표지 그림: 카를로스 카라

저작권 협상:

Shadow di Michele Gelli, 이탈리아

www.narrativa.it

아포칼립스 월드 리플레이: 뉴욕 밀크 스테이크

RPG팀 양산박의 플레이 내용에 기반

김성일 편집

네이버 나눔글꼴 및 아리소프트 개봉박두체 사용.

이 문서는 변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자유로이 복사/배포가 가능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서초대로74길 51

롯데골드روز 오피스텔 1705호

T 02-598-6394

F 02-586-6394

www.dayspring.co.kr

비매품



APOCALYPSE WORLD

아포칼립스 월드

아포칼립스 월드 리플레이

뉴욕 밀크 스테이크

| | |
|-----------|-----|
| 서문..... | 4 |
| 세션 1..... | 8 |
| 세션 2..... | 68 |
| 세션 3..... | 116 |
| 세션 4..... | 160 |

서문

리플레이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RPG의 플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팀의 사적인 일이다.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이고, 결코 흔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RPG 플레이는 순전히 팀에 의해, 팀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관객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플레이의 내용을 한 번 가공한 리플레이나 플레이 리포트는 RPG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리플레이가 책으로 엮여 나오는 일도 아주 많다.

리플레이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된다.

첫째는 교육적 기능이다. RPG 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룰과 설정의 문장은 설명적이다. 설명하는 글만 갖고도 머릿속에서 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룰북에도 예시가 실리기는 하지만 파편적이다. 하나하나의 룰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플레이는 여러 룰들이 하나의 체계로서, 한 줄기의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먼저 룰을 이해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리플레이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오락적 읽을거리로서의 기능이다.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플레이를 그냥 보아서는 대개 재미가 없다. 그러나 플레이의 내용을 남들이 읽을 만한 형태로 손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플레이는 잡지나 간단한 소셜처럼 읽을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리플레이는 RPG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플레이 하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RPG를 하는 플레이어들의 모습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상의 이야기인 것이다. 리플레이는 말하자면 논픽션임과 동시에 픽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왜 공짜인가

뉴욕 밀크 스테이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소설과 같은 기존의 서사 형식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치밀함을 RPG 플레이에 요구할 수 없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이었다. 특히 RPG의 즉흥성에 충실하다 보면 이야기의 앞뒤가 잘 맞지 않거나, 있어야 할 복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른바 “떡밥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미리 완전히 정해 놓은 줄거리를, 대본 따라 연극하듯 쫓아간 플레이가 아닌 한, RPG 플레이어에게 자연스러운 것도 보통의 독자에게는 이질감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당초에 철저하게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 두 경우 모두, 독자에게 실제 플레이어의 모습을 전달하기는 어렵다. 리플레이의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은 리플레이가 읽을거리로서 자리를 잡은 일본에서도 지적되곤 한다.

한 편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뉴욕 밀크 스테이크에는 소설의 독자나 드라마의 시청자라면 너그럽게 허용하지 않을 만한 구멍들이 있다. 그러나 즉흥적인 이야기의 생성을 중시하는 RPG 플레이로서는 상당히 준수했다. 여기서 편집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 간극을 가필로 매꿔서 보다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플레이어의 현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인가? 이 책은 되도록이면 후자를 취하고자 하고 있다.

뉴욕 밀크 스테이크는 사소한 룰 적용을 실수한 부분이라거나, 말이 잘못된 나온 부분 같은 것은 손을 보았지만, 여기 나온 내용은 하나의 큰 예외를 빼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엇나간 부분 하나를 다시 플레이한 모습이, 이 리플레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아포칼립스 월드를 플레이하는 한 가지 예로서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읽을거리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리플레이라는 형식은 한국 RPG계가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생소하다. 일반적인 리플레이는 대다수가 온라인 채팅 기록을 있는 그대로 올려 놓은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의 편집을 거친 것은 보기 드물다. 뉴욕 밀크 스테이크는 말하자면 한국 RPG계에서 리플레이의 가능성, 리플레이가 갖춰야 할 모습을 알기 위한 시제품, 탐사선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무료 PDF로 공개된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기다린다. (이메일: cympub@gmail.com, 트위터: [@cympub](https://twitter.com/cympub)).

등장인물

바베큐 마을

바베큐, 바베큐 마을의 영주
스미스, 먼 북방에서 온 칼날요정
효자손, 밀크로드를 다니는 기계도사
마틸다, 바베큐의 애인이자 부관
무에와 타이, 효자손의 조수
쌀, 소녀 운전수
자네트, 청과상

밀크로더

퀸, 혜성단의 리더
볼트, 트럭 운전수
헤라클레스, 혜성단의 친구

뉴욕

휴고, 뉴욕의 지배자
그롬, NYPD의 서장
브레인, 지하감옥의 죄수

갯데미 부족

흙바바, 갯데미 부족의 족장
메시와 키두, 부족의 전사
슈타르, 전설의 용사

그 음악을 크게도 오래도 울려
나는 공중에 궁전을 지을 터이다.
햇살 그득한 그 궁전을! 얼음으로 된 그 동굴들을!
그리고 듣는 자는 모두 보리라
그리고 모두 소리치리라. 저것 보라, 저것 보라고!
저 번뜩이는 눈을, 저 출렁이는 머리칼을!
그분의 주위에 원을 세 번 두르고
거룩한 두려움에 눈을 감으라.
그분은 꿀이슬을 먹고
낙원의 젖을 마셨느니라.

- 사무엘 콜리지, 쿠블라 칸

세션 1

2014년 1월 모일, RPG 팀 양산박이 특별 플레이 세션으로 모였다. 목적은 새로 나올 아포칼립스 월드 RPG와 함께 출간될 리플레이를 만드는 것. 양산박은 2013년 던전월드 크라우드펀딩에서 한정판 자료집에 수록된 리플레이를 만든 경험이 있다.

언제나처럼 시작은 다들 인사 후 착석하여 무표정하게 마주 앉아 있는 것으로. 그러다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린다.

“쩍쩍쩍”

김 맛있네요.

MC 뭐가요?

김 과자가요.

MC 좀 더 감정을 담아서!

이 (과장되게) 한겨울에도 이런 과자를 먹을 수 있다니...!

시작!

MC 거두절미하고, 대망의 아포칼립스 월드입니다.

다들 와~ (박수)

MC 긴 말 필요 없지요. 다들 선수이시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쇄된 플레이키트를 참고해 주세요. 던전월드랑 다른 점은 따로 써 놓았으니 주목해 주시고요.

던전월드와의 차이점

한국에는 아포칼립스 월드의 체계를 빌린 던전월드도 역시 도서출판 초여명을 통해 먼저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아마 던전월드에도 익숙할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 주된 차이점이다.

- 던전월드는 판타지 모험을 다루지만, 아포칼립스 월드는 문명 붕괴 후의 세계를 그린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다르다. 던전월드의 직업들은 판타지의 전형들로 되어 있지만, 아포칼립스 월드의 캐릭터들은 오토바이 갱, 요새촌의 지배자, 정신능력자와 같이, 흔히 생각하는 모험 영웅과는 거리가 있다.
- 참가자의 연령대를 타지 않는 던전월드와 달리, 아포칼립스 월드는 기본적으로 성인 지향이다. 섹스와 폭력이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이번 리플레이에서처럼, 플레이어들이 쑥스러워하다 보면 일부 요소가 억제되거나 빠져도 상관은 없지만.)
- 시스템의 철학은 같지만, 룰의 세부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던전월드에서는 공격의 피해가 캐릭터에 따라 정해지지만, 아포칼립스 월드에서는 무기에 따라 정해진다. 던전월드에서는 판정에 실패할 때 경험치를 받지만, 아포칼립스 월드에서는 관심 특성치로 판정할 때 경험치를 받는다. 던전월드에서는 PC들의 관계를 “인연”이라는 문장으로 나타내지만, 아포칼립스 월드에서는 Hx라는 수치로 나타낸다.

캐릭터 고르기: 포스트아포칼립스는 보스가 있어야 제맛

- MC 아포칼립스 월드에서, 캐릭터를 대충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스 캐릭터 세 종류 (영주, 교주, 바이킹). NPC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PC가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보스가 셋... 그리고 “이상한 놈”이 셋이 있고 (사이코, 천사, 예인), 다음에 주인공 스타일이 있어요 (기계도사, 프리랜서, 기사). 그리고 전투 전문가가 둘 (총잡이, 칼날요정) 있고요.
- 박 기계도사를 “이상한 놈”으로 보내고 전투 전문가들을 주인공 부류에 끼워도 적당하죠.
- MC 자, 골라요, 골라.
- 박 보스형 캐릭터 하실 분?
- MC 그런 식으로 정하나요?
- 박 한 명은 있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 이 보스형 셋 다 고르고 삼국지 할 수 있나요?

- MC 본격 삼국지는 좀 그렇고, 동탁 토벌 제후 연맹 같은 레벨은 가능할 것 같아요.
- 박 처음에 그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갈라지는 식도 되겠네요.
- MC 그럼 교주가 유비, 영주가 조조나 원소, 바이킹이 손견하면 되겠다. (웃음)
- 박 실제로는 손견이 제일 부자일 텐데.
- MC 에, 그런가요?
- 박 오나라가 돈은 많잖아요.
- MC 그때도 그랬었나? 원소가 더 부자 아니었을까? 국부를 빨아먹을 수 있는 위치인데.
- 박 근데 강남의 생산력이 하도 커서.
- MC 하지만 손견이 다 잡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엄백호니 이런 사람들 아직 있을 때니까. (웃음)
- 이 이 캐릭터들이 대충 그 정도 스케일인 것 같아요. 엄백호, 한현...
- MC 사실은 그만큼도 안 돼요. (웃음)
- 김 맹획?
- 이 맹획은 세력도 크고 부하도 많고...
- MC 그렇다고는 해도 주변에 비슷한 급의 대래동주나 목록대왕이니 많이 있어서, 맹획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 박 우리는 그런 거구나. 대래동주나 목록대왕이나 울돌곶이나...
- MC 그래서 누가 목록대왕 하실래요? (웃음) 근데 그건 절대적인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긴 멸망 후 50년 뒤이니 인구비로 치면 어떨지 모르죠. 봐야 알겠죠.
- 박 그러면 대체로... (영주를 가리키며) 이쪽이 제일 부자. (교주를 가리키며) 이쪽이 둘째 부자. (바이킹을 가리키며) 이쪽은 오토바이만 부자.
- 이 오토바이왕... 바이왕...
- MC 그렇습니다. 바이킹 이름의 비밀이... 그런 네이밍 센스입니다. (웃음)
- 이 버저왕 하고 싶어요.

박 1바꿈 2바꿈 대신 1버거 2버거 하는 건가요?

바꿈이란 아포칼립스 월드에서 물물교환의 느슨한 가치 단위이다. 1바꿈이 대충 보통 사람의 1개월 생활비. 어지간한 무기나 장비는 하나에 1바꿈, 특별한 물건은 2바꿈이다.

MC 매장이 있어야 하니 버거왕은 영주가 되겠군요. 교주나 바이킹은 부동산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요.

캐릭터 고르기: 하나씩 훑어 보자

MC 캐릭터 유형별로 설명을 하자면... (책을 보며) “교주에게는 추종자들이 따라 붙는다. 사교적이며 공공연하고 남들의 주의를 끄는 사람들이다. 군중을 움직이고 싶으면 교주가 적절하다.” “기사는 자동차가 있어서 기동성과 자유를 누리며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다. 종말의 세계에 차가 없는 게 상상이 안 간다면 기사를 꼭 할 것.” 매드맥스 2 보신 분?

김 멜 깡슨이 가죽옷 입고 나오는 그거요?

MC 모든 사람들이 가죽옷 입고 나오는 그거요.

김 3인지 2인지 헷갈리는데, 철조망 투기장에서 싸우는 것 봤어요.

MC 그건 티나 터너가 나오는 3편. “둘이 들어가서 하나가 나온다” 하는 투기장 썬더돔이 얘기의 중심이고요. 2편도 거기랑 같은 세계예요. 매드맥스에서 멜 깡슨이 자동차를 타고 나온 덕분에, 황무지를 차 타고 달리는 주인공도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어요. 기계도사는, 음, 기계의 도사입니다. (웃음)

박 그냥 도사 같은 면도 있고요.

MC 네. 액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PC 중 하나가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 주면요, 그 사람은 조언에 따를 때 판정에 +1을 받고 기계도사 자신은 경험치를 받아요.

이 무당인가요?

MC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이 기계신을 섬기나요?

MC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되긴 되죠.
 이 맘에 들었어요.
 MC 기계도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작업장이죠. 이론상으로는 뭐든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작업장에는 사념의 소용돌이에 접촉하는 기능을 둘 수도 있고요. 그걸 선택한다고 하면 사념의 소용돌이가 한 가지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킹이야 뭐, 오토바이 패거리입니다.

사념의 소용돌이는 아포칼립스 월드의 설정에서 수수께끼의 에너지, 또는 이계, 또는 정보 시스템이다. 항상 등 뒤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귀신 같은 존재. 사념의 소용돌이를 이용하는 법은 룰에 나와 있지만, 그 정체는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박 바이킹은 부하들의 충성도가 낮은 게 특징이에요. (웃음)
 MC “늑대새끼들”이라고 나와 있죠... 사이코는 초능력자예요. “사이코는 으스스하고, 괴상하고, 플레이하기에 아주 재미있다. 액션들이 강력하면서도 기괴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 사이코가 적절한 선택이다.”

박 룰북에 예시로 나온 사이코는 판정 실패해서 물 먹는 얘기만 있던데,
 MC 룰북에 예시로 월슨이라는 프리랜서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맨날 룰 적용 틀리고, 자기가 맞게 하면 MC가 틀리고... (웃음) “영주는 작은 요새 마을의 주인이다. 플레이어 중에 영주를 고른 사람이 있으면 본격적인 본거지를 중심으로 플레이가 진행될 것이다. 그 주인이 되고 싶으면 남이 고르기 전에 자기가 영주를 택하는 것이 좋다.” 영주 멋있습니다. 남이 고르기 전에 고르세요! 예인은... 참 특이해요. 판타지 RPG의 매력이라고 하면 음유시인인데, 그런 쪽보다 오히려 더 신비롭고 더 매력 위주의 캐릭터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 (예인 액션을 훑어보다가) “숨이 멎는 시간: 자기 옷가지를 하나 벗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옷을 하나 벗길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저 숨을 죽이고 구경만 할 뿐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 여러 겹 입는 게 유리하겠군요. (웃음)

김 "... 원하면 이 효과에 당하지 않을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다."

박 예인은 보스계랑 궁합이 좋아 보여요.

MC 천사는 ... 의사, 간호사 그런 거죠. "천사는 의사요 간호사다. 다른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싶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 천사가 좋다." 아까 천사를 "이상한 놈"으로 분류를 한 것은 ... 이 사람이 심령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액션만 고르면요.

김 심령치료는 교주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MC 정작 교주는 적어도 처음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교주는 영도만 하나요.

MC 네. 교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재산은 추종자들이에요. 추종자들에 따라서 교주 자신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은 총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합니다. "총잡이는 한마디로 말해 강하다. 액션도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이다. 어떻게 보면 조야한 느낌도 있다. 어떤 놈에게도 맞설 수 있는 무력을 원하면 총잡이가 좋다." 개인으로서는 제일 세요, 간단히 말해서. 딱 전투 캐릭터.

박 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는 수시로 총을 쓰고, 하고 싶은 걸 해요.

MC 칼날요정은 군인보다는 보디가드에 더 적합해 보여요. 직접적인 총질 보다는 곡예나 잠입, 멧 부리는 걸 잘해요. 액션 선택에 따라서는 남들 위협하는 건 아주 잘 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전투는 총잡이만큼 세진 않아요.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스타일의 전사계 캐릭터지요.

김 프리랜서도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MC 프리랜서는 다양한 일거리를 갖고서 좌충우돌하는 게 특징이에요. "프리랜서는 여러 분야에 손을 뻗치는 다재다능한 인간이다. 항상 벌여 놓은 일이 있고, 준비 중인 일이 있고,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일이 있을 것이다. 프리랜서를 하면 항상 할 일이 있다. 천사나 총잡이와 달리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가벼운 캐릭터 유형 소개였습니다.

캐릭터 고르기: 선택의 기로

- 박 총잡이형 캐릭터는 최근 다른 플레이에서 해 봤으니까... 일단 빼놓고.
- 이 저는 완전 자유와 완전 우연의 절충안을 택하겠습니다. 세 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정하겠습니다. 바이킹이랑, 기계도사랑, 칼날요정입니다.
- MC (다른 둘을 보고) 혹시 그 셋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 박 자랑은 하나도 안 겹치네요!
- 김 (팬찮다는듯 끄덕끄덕)
- 이 그럼 주사위를 굴리겠습니다!
- MC 가중치를 두나요?
- 이 아뇨, 균등하게, 1~2 바이킹, 3~4 기계도사, 5~6 칼날요정. (주사위 굴림. 3이 나온다)
- 박 기계도사다!
- 김 저는 안 할 것을 먼저 추려내겠습니다.
- 이 (독자를 향해) 캐릭터를 고르는 다양한 방법의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 MC (웃음) 좋습니다!
- 김 저는 영주나 교주 중 하나를 빼야겠네요.
- 박 둘 중 하나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군요. 저는 영주 액션 중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선물 퍼 주는 거.
- MC 아, 섹스 액션요? 그거 나오려면 베드신이... 아니, 꼭 플레이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박 옛날식으로 하면 둘이 방문 열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끊고... (웃음)
- 김 아니, 둘 다 뺄까...? (추려내고) 주사위 굴리기 좋게 딱 여섯 개 남았네요. (주사위를 굴림)
- 이 칼날요정!
- MC 기계도사와 칼날요정.
- 이 이미 제목이 나왔군요. (웃음)
- 박 (영주 플레이북을 쟁긴다)

- MC 아, 영주 하시나요?
- 박 예!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스 캐릭터가 하나 있는 게 좋은데 다른 분들이 안 하시니까. 그리고 보스급 셋 중에서는 영주가 하기 제일 편할 것 같아요.
- MC MC 입장에서 좀 편한 면이 있어요.
- 박 다른 사람들이 전투에 몰려 있으면 교주로 기괴함을 더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칼날요정이 전투계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 MC 요사스럽고. (웃음)
- 박 네, 그런 게 있고. 기계도사는... 도사니까. (웃음) 평범하게 영주로 가겠습니다. 바이킹은 잘 할 자신이 없고.
- MC 그러면... (책을 펴고) 룰북에 나온, 설정의 기본 전제입니다.

설정의 기본 전제

아포칼립스 월드는 세계 설정 자료가 거의 없고, 참가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오는 데이터로 세계를 구성하고, 플레이 도중에 설정을 추가해 나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플레이어의 뼈대를 만들어 주는 간단한 수칙 몇 가지가 존재해서 시스템의 정체성을 유지해 준다. 룰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플레이어 캐릭터들이 서로 친구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알고 도울 만한 사이이기는 해야 한다. 플레이 도중에 서로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적은 아닌 것이 좋다.
-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다. 다른 의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천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천사는 이 사람뿐이다. 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두목이니 지도자가 또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영주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주는 이 사람뿐인 것이다.

- 갑옷을 택하게 되어 있는 캐릭터도 있다. 1장갑 정도는 뒀든 될 수 있다. 방탄조끼도 되고, 두꺼운 가죽 자켓도 되고, 징 박힌 코르셋도 된다. 하지만 2장갑은 본격적인 갑옷이다. 적어도 전경이 입는 보호구 정도. 기술적으로는 뒤떨어졌을 수도 있다. 자동차 문짝으로 만들어서 입고 다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보통 옷이 아닌 갑옷이라는 점이다.
- 3바꿈에 해당하는 잡화라는 건 대체 무엇인지? 이곳에는 화폐가 있는지? 아니면 다들 그때그때 있는 물건으로 물물교환을 하는지? 플레이어들에게 물어서 정해도 좋다. 영주가 있으면 영지에서 화폐로 통하는 게 있는지 묻고, 프리랜서가 있으면 보수를 무엇으로 받기를 선호하는지 물어 볼 만할 것이다.
- MC는 플레이어들의 적이 아니다. 적이라면 그냥 “자, 지진이 났어요. 전원 10피해 입고 죽습니다. 끝!” 할 수도 있으니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MC도 플레이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멋진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고 싶어서 플레이에 임하는 것이다.

다들 조용히 씩씩씩.

영주: 주방장 바베큐 선생

- 이 그럼 이름... 이게 첫 묶음이 이름이고 둘째 묶음이 성인가요?
- 박 그냥 분위기가 다른 것들을 묶어 놓은 것 같아요. 본명과 별명이라거나... 저는 대중 이미지를 정했어요. 덩치가 큰 요리사형 영주예요.
- MC 요리사형 영주?
- 김 버거왕.
- MC 버거왕! (웃음)
- 박 여기는 먹을 것이 주산물이예요. 이름은...
- MC 아, 이름은... 전에 던전월드 할 때는 목록에서 골랐는데, 이번에는 적당히 맘대로 정하죠? 물론 목록에서 고르셔도 괜찮고요.

박 목록에서 그냥 고를게요. “바베큐”입니다. 그리고 살이 너무 찌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옷은 평상복을 입으려나?

MC 일부러 요리사 옷을 입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네. 근데 이 목록에서는 그게 평상복이 아닐지?

MC 아, 그렇습니다. 그게 전시용 복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박 보이기 위한 요리사 옷이란 말이죠. 좋네요. (끄적끄적)

MC 그럼 칭호가? “주방장님”이라거나 . . . Chief가 아니라 Chef. (웃음) 바베큐님? 주방장님?

박 바베큐 선생이나 바베큐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일부러 격의 없게 대하는 척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높임은 받는 . . . (웃음) 인자한 얼굴에 관대한 눈을 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체구? 아니, 뚱뚱한 체형.

이 그럼 제 캐릭터는 반대로 같까요? 마르고 신경질적인. 뚱뚱이와 훌죽이 . . . 서수남과 하정일. (웃음)

박 위엄 있는 요리사라고 하면 육중한 중국식칼을 써야겠죠.

이 중국식 칼인가 중국 식칼인가 . . . ?

MC 좋습니다. 고기 찌는 칼은 룰복의 마체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영주는 부자니까, 장비 선택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시고 . . . 다른 분들도 Hx 정하기 직전까지 죽 하세요. 아, 그리고 장비 고르실 때 말인데요, 아포칼립스 월드는 전투가 총격전 중심입니다. 근거리 전투에서는 심지어 전투 옵션 룰조차 쓰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 총 한 자루는 꼭 챙겨 두세요.

박 제 전투력은 대개 영지의 패거리에게서 나오겠지만 . . . 호신용 작은 권총 하나를 앞치마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MC 궁금한 것 또 있으면 말씀들 하시고요.

박 저희 영지에 살고 싶으신 분?

MC 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 네.

이 그러죠.

기계도사: 효자손

- 이 제 캐릭터는 남자예요. 저는 30대 이후로 이성 캐릭터를 플레이한 적이 없습니다.
- 김 ... 얼마 안 됐네요. (웃음)
- 이 오, 기계도사 “예쁜 얼굴”이 되네요.
- 김 “멈춰버릴 것 같은 눈”은 어떤 걸까요?
- MC 바라보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눈이죠... 아, 작은 권총 원하는 분은 소매권총이라는 거 있으니까 한 번 보세요. 태그는 2피해 중거리 재장전 굉음입니다. 바베큐의 중국식칼은 3피해 근거리 지저분.
- 이 기능성 복장을 입겠습니다. 빠른 눈...
- MC 기계도사 이름은 아직 안 정하셨고.
- 이 제 캐릭터의 외모는 예쁜 골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MC 스미골?
- 박 조그망나요? 작고 예쁜...
- MC 스미골보다 프로도가 생각나는데. 와우의 노움이라거나.
- 박 작고 예쁘죠.
- MC 그래서 이름은요?
- 이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뭘로 하지. 음식 이름으로 할까. 브로콜리.
- MC 북경오리.
- 이 이름은... 말라서 맛동산?
- MC 새우깡이 더 가늘텐데!
- 김 감자깡이 더 말랐죠.
- MC 뽀뽀로라거나.
- 이 정말로 새우깡이라고 할까?
- MC 멸치깡.
- 김 세상이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옛날에 유명한 과자가 있었지, 무슨 해산물 이름이 들어간 깡이었는데” 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 이 그리고 사념의 소용돌이에 접속해서 알아낸 것이 멀치깡. (웃음) 사
념의 소용돌이가 과거의 정보를 왜곡해서 주는 거예요.
- 김 과거를 미화하는 건가요.
- 이 딱히 미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김 새우깡보다 멀치깡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 이 은빛으로 빛나는... (웃음) 소용돌이가 문학 같은 것도 막 왜곡하고
...
- 김 닥터후에서 마지막 인간이 “이것이 바로 아이팟입니다”하고서 주크
박스 갖고 오는 그런 식의 오해.
- 이 제 기계도사의 이름은 효자손입니다.
- MC 남이 어려워하는 일을 잘 도와주나요?
- 이 의미 해석은 듣는 사람 마음이고, 여튼 이름은 그렇습니다.
- MC 기계도사 효자손.
- 이 충신손이라고 부른다고 할까?
- MC 멀치깡 같은 원리인가요! (웃음) 여기 사념의 소용돌이는 참 곤란하
네요. 왜 그런대요, 개는?
- 이 정보 손실이 있어서...
- MC 이상한 방식으로 압축이 됐나?
- 박 인터페이스 문제일지도 몰라.
- 김 아니면 단순히 검색 엔진이 이상한 걸 잡아서 보여주는 걸 수도. 요즘
구글 같이 이상한 단어들 나열해 놓은 게 가끔 잡히는 거예요.
- 이 속담도 왜곡해서... 생각난 건데, 반지의 제왕에 보면 “금이라고 해
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속담이 나와요.
- MC 원래 영어 속담이랑 반대네요.
- 이 네, 아라곤을 가리키는 말인데...
- 김 아니, 하지만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로
나왔어요.
- 이 예, 그게 오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번역자들이 첫 한두 단어 보고
“속담이군” 하고 번역해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 MC 멀치깡, 충신손... (웃음) 단어를 왜곡하고.

김 속담도 왜곡하고.
 이 이석일조.
 MC 아, 효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이, 몸에 기계팔을 달고 다녀서 그렇다면? 그게 갈퀴 모양이라 효자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기계촉수라거나...
 이 크로우바... 쇠지레도 효자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MC 빠루손... 에드워드 빠루손... (웃음)
 이 스위스 아미손...
 김 엄마손...

침략 오징어 박사

이 기계팔 얘기를 하니까 닥터 옥토퍼스가 생각나네요... 저는 오징어 박사를 할까요.
 박 두 개 더 붙이나요. (웃음)
 MC 표절을 면하기 위해서 머리에 삼각건을 붙이고 나온대거나요?
 이 “침략! 오징어 박사” (웃음) 절대 어떠한 표절도 아닙니다.
 MC 아닙니다리. (웃음)
 이 이름은 아까 얘기한대로 효자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칼날요정: 스미스

김 이름은 스미스. 남자고, 정장을 입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박 예이~
 이 반칙이다! 다른 사람들 외모 다 정하고 나서 이런 옵션을...
 박 잘생겼죠?
 김 칼날요정은 잘생기지 않은 외모 옵션이 없어요.
 이 인상적인 얼굴, 대리석 같은 얼굴이라면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김 돌덩이처럼 각이 졌다거나.
 MC 마인크래프트인가요! (웃음) 가만있자. 그럼 영주의 보디가드 같은 걸 하나요?
 박 하실래요? 취직시켜 드릴게요.

고를 것이 많다

- 이 특성치도 골라야지.
- 김 칼날요정은 냉철이 무조건 +3이네요.
- MC 원래 전투용 특성치는 강인이예요. 그런데... 전투 액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강압이고 하나가 힘으로 빼앗기거든요? 칼날 요정은 강압에서 강인 대신 냉철로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액션 없으면 전투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 박 영주는 강인이 전부 +2구나.
- MC 아, 영지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트 뒤에 있어요.
- MC (기계도사 액션을 보고) 보시면 사이코메트리 비슷한 게 있어요.
- 이 “물건이 하는 말”이지요? 골롬스러운 이런 거 넣어야지. ㅎㅎㅎㅎ.
- 김 “마이 프레셔스!”
- 이 절대너트 같은 거 갖고 있으면...
- 김 모든 너트를 지배할 절대너트 (웃음). 가만있자, 외모 옵션 중에서 몸매는 근육질 몸매를 하고...

특성치는 각 플레이북에 나온 몇 가지 조합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기존 특성치에 +나 -를 하는 게 아니라, +2나 -1이니까 바로 특성치라는 점에 주의할 것.

- MC 스미스 씨는 근육질이군요.
- 김 칼날요정은 액션을 두 개 골라야 하네요. 저는 무자비와 냉혈한을 골랐습니다.
- 이 저는 물건이 하는 말과 제 말 하면 오는 자를 넣겠습니다.
- MC 장비도 고르셔야겠네요.
- 이 무기는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 MC 캐릭터마다 달라요. 플레이북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 이 평범한 무기나 장비를 1~3개 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무기나 장비라는 게 뭐지요?

- MC 룰북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어요(룰북 p.240). 그런데 무기 아닌 장비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안 나와 있네요. 리볼버, 9mm, 사냥총, 매그넘, 총열 자른 산탄총, 산탄총, 소매권총, 기관단총, 엄청 큰 단도, 쇠지레 ...
- 이 쇠지레! 전 그걸 쓰겠습니다.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처럼 들고 다녀야지.
- MC 아까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흔히 빠루라고 부르는 그거죠.
- 김 저는 정장을 입었으니 권총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네요. 다른 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칼날요정의 특제 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
- MC 부조화를 노려도 되지요. 어차피 망한 세상이니, 우리의 패션 감각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베큐 선생의 통조림 공장

- MC (박이 시트에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그럼 이 영지에는 식품 공장 같은 게 있겠군요? 세계 유일의 통조림 공장이라거나?
- 김 바베큐 통조림 ...
- MC 무슨 고기인지 알 수 없는 통조림?
- 김 시중에 파는 바베큐가 진짜 구운 게 아니라 목초액에 담갔다 꺼낸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
- MC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화학약품을 만들 재주가 없을 수도 있고요.
- 박 이 영지는 공장이 있고, 장터가 있고, 건물이 튼튼해요. 그리고 ... 병기고 상태가 나쁘고, 보호세를 내고 있어요.
- MC 오, 보호세를 내요?
- 박 근처에 큰 군벌이 있는 거죠.
- MC 오오 ... (끄적끄적)
- 박 저희 영지는 “바베큐 선생의 바베큐 스테이크”가 주산물이에요.
- MC 바베큐 스테이크요.
- 박 그때 그때 구할 수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를 대충 갈아서 빵가루에 섞고 캔에 넣은 거.
- MC 세상이 망했는데 메뉴가 화려하군요.

박 있을 때는 그렇고, 없으면 개고기, 생선...

MC 하지만 스테이크... 말로만 스테이크고, 다진 고기를 모양을 낸 거죠?

박 네.

MC 이 지역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바베큐 스테이크! 캔마다 맛이 다르겠네요.

박 네.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고기가 없기도 하고...

그런 스테이크 인정할 수 없다

MC 예, 그럼 뭐 넣나요?

박 두부, 콩, 치즈...

MC 두부랑 치즈 섞어 놓고 바베큐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건가요! (웃음)

김 두부랑 치즈만 있어도 굽기만 했으면 바베큐의 정의에는...

MC 스테이크의 정의에 안 맞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김 두부 스테이크라고도 하잖아요?

MC 그것은 아이러니를 담아서 부르는 이름이 아닐까요.

박 괜찮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니 여기선 그것도 스테이크입니다. 구이의 통칭.

MC 그런가요. 말이 재정의된 건가요. 굽기만 하면 바베큐이자 스테이크인가...

김 석유는 남아도는 세계라고 하니, 불은 모자라지 않겠네요.

박 가스 토치로 굽기도 하잖아요? 샌드위치 빵 같은 거 그을리는 데 쓰던데.

MC 아, 공장 직원들 다들 가스통 하나씩 갖고 식재료를 지지는 건가요! 그것이 바베큐 스테이크!

김 다들 용접공처럼 마스크 쓰고...

이 웬지 풍요로운데?

MC 그러면 이 마을의 주된 자원은 근처에 있는 “광산”에 쌓인 부탄가스 캔터미... 그리고 용케 통조림 기계를 손에 넣은 거죠. 멋진데.

박 원래 통조림 공장이 아니었는데 기계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바꿨다고 할 수도 있고요.

MC 기계도사가 발명한 통조림... 근데 왜 발명했을까? 통조림을 만들면 통조림 따개도 팔 수 있으니까?

박 통조림 아니라 병조림이라도 되고... 근데 조림이 아니잖아? 구워서 넣은 거니까.

MC 그럼 통구이라고 해야 하나요? (웃음)

박 여하튼 주로 육류를, 말고기나 염소고기까지 모아다 구워서 팝니다.

MC 근처 여러 곳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거 한 무더기가 1바꿈이고...

박 이거 한 박스면 한 사람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다. 맛도 다양하게 들어 있다... (웃음)

MC 싫어도 다양한 거죠, 그거. 같게 만들 수가 없는 바베큐 스테이크. 미화된 바베큐 선생의 얼굴이 그려 있고...

이 프링글스 통처럼!

박 영지 정문에도 같은 얼굴이 그려 있어요.

이 바베큐 왕국...

MC 이 영지 이름은 뭐가요?

박 여기는 말하자면 영지라고는 해도 작은 공장 마을이니까, 마을 이름도 바베큐.

MC 바베큐 선생이 다스리는 바베큐 마을에서 바베큐 스테이크를 만드는 건가요.

박 음, 바베큐 스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바베큐 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베큐 선생인 거죠.

MC 스테이크가 먼저다? 음... 그러면 바베큐 스테이크라는 상표가 멸망 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도... 이미 얼굴 그림까지 찍혀 있는 빈 캔들이 잔뜩 남아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을 넣어서 판다거나? 그리고 바베큐 선생은 자기 외모를 그 그림에 맞게 가꾸고...

박 아... 그럴 수도? 노력해서 관대하고 풍만한 몸을 갖게 된 것도 괜찮네요. (웃음) 여하튼 저는 제2대 바베큐입니다. 선대 바베큐 선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캔의 그림하고 닮았다고 하죠. 선대가 캔을 본뜬 것이든, 캔에 선대의 그림이 그려진 것이든.

MC 아, 그럼 자기 힘으로 영지를 세운 건 아니군요?
박 네. 저는 일부러 살을 찌워서 지도자의 풍모를 갖췄습니다.

효자손의 사정

이 효자손은 기계를 많이 다루니까 용접 마스크 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전문 안정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과거 황금시대의 펜싱복을 입고 다닙니다.

MC 펜싱 마스크 쓰고 용접하는군요. 펜싱 마스크라고 해도 요즘은 유리 섬유로 된 것과 철망으로 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글썽요. 미지의 재질?

MC 지구 멸망 직전에 나온 신제품? 세상이 멸망하려는 마당에 이 사람들 별 쓸데 없는 걸 만들고 있었네요!

박 포스필드! (웃음)

이 아! 펜싱복이라는 게 보통은 손목시계 모양이라서...

MC 시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입혀지는! (웃음)

MC (특촬 히어로 같은 몸짓을 하며) 남 보기 부끄러운 동작도 취해야 하나요?

이 그게, 사념의 소용돌이에서 옛 사람들은 그런 걸 입고 펜싱을 했다고 하는데...

박 아...

김 사실은 펜싱복이 아니고 라이더 수트.

MC 정말요?

박 암호도 외치고 “변신!”

MC 알 수 없는 나라의 말로...

이 그냥 기름때 묻은 흰 펜싱복 할게요. (웃음) 더더욱 골룸 같을 듯해요, 펜싱복을 항상 입고 구부정하게 다닌다고 하면.

박 펜싱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션 캡처복이었다거나! (웃음) 사념의 소용돌이는 거짓말쟁이.

이 펜싱용 검은 없습니다.

MC 효자손은 기계도사이니 작업장도 설정을 해야죠. 조수도 넣고...

이 아, 여기서 조수는 일부러 선택 안 하면 못 넣는 것 같아요.

MC 그런가요? (플레이북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이 트럭을 갖고서 폐품 더미를 뒤지고 다닌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운전할 조수도 있는 쪽이...

MC 최대 세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이름은 뭘로?

이 휴이, 듀이...

MC 하시는 김에 루이까지?

이 아뇨, 아뇨. 사념의 소용돌이에 따르면 둘 밖에... (웃음)

MC 어떤 애들인가요? 쌍둥이? 삼 쌍둥이?

이 태국인 쌍둥이... 몸이 붙어 있지는 않은.

김 무에와 타이...

이 그거 괜찮네요? (웃음)

MC 그렇게 할까요.

이 물론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사념의 소용돌이를 엿본 거고... 쌍둥이는 아니고, 남매라고 하죠.

박 사념의 소용돌이에서 주위들은 말로 이름을 붙인 거군요.

이 한 명은 운전을 잘 하고...

MC 네. 무에가 운전수라고 하죠. 타이는?

이 못지 않게 잘 합니다. (웃음) 잡동사니를 잘 고친다고 하죠. 고물상 같은 게 되겠군요, 저는.

MC 그렇겠네요. 자기 작업장이 있는 고물상.

이 타고 다니는 트럭이 바로 작업장이라고 할게요. 설비를 뒤에 싣고 다닙니다. 그럼 뚜껑이 있는 포장 트럭이어야겠어요. 서부극에 나오는 풍성한 식빵 같은 모양입니다.

MC 작업장하고 폐품 수집을 겸하려면 크기가 좀 돼야겠네요. 1톤 정도 갖고는 안 될 듯.

이 그리고 폐품 더미는... 큰 더미를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게요.

- 박 폐품을 무조건 찾아 나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분해나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차가 아주 커다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이 무에나 타이 중 하나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효자손과 함께 뒤에 타는 거죠.
- MC 남매인데, 누가 무에고 누가 타이인가요?
- 김 맨날 헛갈린다고 하면 어때요? “무에야.” “저는 타이인데요.” (웃음)
- 박 성별도 다른데 똑같이 생긴 건가요.
- 김 확연히 다르게 생겨도 이름을 헛갈리는 경우는 픽션에 드물지 않게 있죠.
- 이 그런데 효자손은 예리+2라서 그런 걸 착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설정보다... 무에와 타이, 애네들이 서로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기괴한가?
- MC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은 돌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 박 말 그대로 오락가락. (웃음)
- MC 애네 둘은 가끔씩 입 벌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정신은 사념의 소용돌이를 헤엄치고 있고...
- 이 달의 차고 기움에 따라 자아가 서로 바뀌는 것도 좋아요.
- 박 소용돌이 관련 사고가 일어난 뒤에 그렇게 됐을 것 같네요.
- 이 그걸 이용한 범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 MC 근데 법이 있어야 범죄가 있죠.
- 박 제가 영주니까 제가 법입니다. (웃음) 음, 옛날 미국 서부에서 말도둑을 극형에 처했듯, 바베큐 마을에서는 음식 도둑질이 최대의 범죄라고 할까요.
- MC 아, 그런 건가요. 나라야마 부시코 같은 그런 상황인가?
- 박 여기는 음식이 많은 편이지만 주요 수출품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사러 옵니다.
- MC 유량 도매상이 큰 트럭 갖고 와서 바베큐 스테이크를 잔뜩 사 가고 그럴지도.

멸망의 냉장차

- 이 부업으로 과일장사를 해 볼까... 여기 냉장차 있나요?
- MC 냉장차! 사막을 지날 때마다, 더워 죽을 것 같은 바이커 갱들이 노리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우린 여름을 날 수 있다!”
- 박 냉장차 상당한 자원일 것 같은데요.
- MC 엄청 큰 자원이죠!
- 박 이 세계에 연료는 남아 도니까... 그래서 냉장차 있나요?
- MC 글썄요. 냉장차가 있는 아포칼립스 세계는 본 적이 없어요!
- 김 빙하기 아포칼립스인데 냉장차가 있는 거예요.
- MC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열 받아서 죽이려 들지도...! (웃음) 아, 그러고 보니 어떤 식의 아포칼립스인지도 정해야겠네요. 일단 캐릭터들을 더 보고 얘기를 해 보죠.

스미스의 마무리

- 김 저는 특제무기 다 정했습니다. (플레이북의 장비 부분을 보고) 2바꿈 상당의 잡화라는 건 뭔가요?
- MC 아, 그냥 물건이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교환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 김 옷은 검은 정장과 벡타이.
- MC 낡고 헐었나요?
- 김 아뇨, 새거예요.
- MC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또 있을까... 아니면... 이게 무슨 제복 같은 건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 이 세일즈맨?
- MC 칼날요정이 아니라 클론요정!
- 박 그런 건가요?
- 김 똑같이 생긴 사람들!
- MC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닌 거죠. 안드로이드라거나.
- 김 (웃으며) 벡타이 부대라는 부대가 있다고 할까요.
- MC 정말인가요? 벡타이 부대? 벡타이교...

- 박 스미스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 김 목 매다는 사람들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전쟁신을 섬기는 종교 같은 면도 있어요. 특수 군사 훈련 같은 거 받고요.
- MC 자객교 같은 거군요.
- 박 검은 정장 자객교! 좋다.
- 김 문명 멸망에서 살아남은 특수부대가 종교화했다고 하죠.
- 박 근데 지금은 혼자인가요?
- 김 네. 어떤 이유인지.
- MC 머나먼 동방에서 온 건가요?
- 김 머나먼 서방이나 남방이나 북방이 더 좋을지도.
- MC 머나먼 북방에서 온... 스미소프. (웃음)
- 이 스미소비치.
- 김 스미스는 척 봐도 가명인 거죠.
- MC 어떻게 척 봐서 가명이죠? 스미스 같지 않은 생김새. 예를 들어... 눈이 세 개다?
- 이 그러면 스미스일 리가 없나요?
- MC 네. 일단 인간이 아닐 테니까.
- 김 스미스미스.
- 박 ‘스’가 눈일 것 같다. (웃음)
- MC 음음. 머나먼 북방에서 온 스미스. 벡타이의 권. (웃음) 아! 어느 강대국 대통령이나 총리 경호실의 후예. 혈연은 없겠지만 계속 훈련을 하면서 명맥을 이어 왔다거나.
- 김 가능성을 열어 놓죠. 그럼 장비까지 다 골랐고... 이제 Hx 정하는 건가요?
- MC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Hx는 각 PC가 다른 PC에 대해서 갖는, -3에서 +3까지의 수치이다. 상대 PC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아포칼립스 월드의 한 가지 특징이다.

바베큐 소개

- MC 일단, 모두가 차례대로 자기 소개를 하세요. 바베큐부터 해 보죠.
- 박 사람을 잘 믿고 은혜를 잘 베푸는 영주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Hx +1이에요.
- MC 아, 아직은 그게 아니고. 그건 다음에 한 바퀴 또 돌 때 하고, 지금은 이름, 외모, 성격만.
- 박 아, 그렇죠, 그렇죠. 이름은 바베큐고, 식품 공장과 장터를 보유한 영지의 영주예요. 영지 이름도 바베큐고 영주 이름도 바베큐예요. 저는 제2대 바베큐입니다. 선대 바베큐가 있었는데, 40대... 아니, 50대라고 하죠. 50대에 당뇨로 죽었어요.
- MC 용케 당뇨 진단은 받았군요.
- 박 그래서 신임 바베큐가 된 뒤로 5년이 지났어요.
- MC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겠죠?
- 박 네. 하지만 선대 바베큐의 수제자가 되었을 때부터 2대 바베큐로 불리고 있었어요.
- MC 뭐랄까, 일본식 같은.
- 박 사람들을 먹이는 걸 좋아하고, 장터 관리에 신경을 쓰고...
- MC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바베큐 마을 축제가 있다거나.
- 박 영지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조림 공장에서 일해요. 그 밖에는 요리사들이 있고...
- MC 식재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 박 장터에서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 MC 패거리가 사냥을 다니나?
- 박 패거리가 사냥을 다니기는 하지만 그건 주가 아니고요, 목축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조건에 주민으로 포섭한다거나 거래선을 튼다거나 하는 거죠. 영지 안에는 축사도 있어요. 축사, 공장, 장터의 삼각 구조입니다.
- MC 그렇단 말이죠. 바베큐 마을의 패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 40명 정도고, 대체로 요리사 수업을 받다가 실패한 애들이 사냥단으로 재편성됩니다. 장비가 사냥 위주라 군대로서는 별로예요. 대신 어느 군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군벌의 이름은... (NPC 이름 표를 본다)

박 (곁에서 보다가) 휴고! 휴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지와 패거리를 쓸데없이 번쩍번쩍 치장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MC 음음. 좋습니다. 군벌이란 말이죠?

박 네.

Hx 자체는 그저 한 자리 숫자에 지나지 않지만, Hx를 정하는 와중에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다. 이것을 질문을 통해 끌어내는 것도 MC의 일이다. 물론 MC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뉴욕, 뉴욕

MC 그럼 그 번쩍거리는 도시 이름은 뭐가요?

이 광명시. (웃음)

박 무슨무슨 요새 아닐까요? 교주형 군벌로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고. (잠시 생각) 여기가 옛날에 어느 나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도시 이름은 뉴욕이에요.

MC 거기에는 뭔가 대단한 랜드마크라도 있나요?

박 음, 글썬요? 햇불을 이렇게 들어올린 조각이 있는데, 크기는 사람 등신대고요. 목각상이에요.

MC 등신대 목조... 햇불의 여신 입상. (웃음)

박 거기다 회칠도 했어요.

MC 여기 바닷가 아니죠?

박 (단호) 아니죠. 내륙이죠. (웃음)

MC 그러면 뉴욕은 휴고 패거리가 약탈다니는 것 말고, 보호세 받는 거랑 또 뭘 하나요?

박 장터요. 바베큐 마을은 식료품 위주고, 뉴욕 장터는 무기와 기계류예요.

MC 서로 경쟁하는 면은 없죠?
 박 저희는 조공 바치는데요, 큰 경쟁은 없죠.
 MC 음음. (끄적끄적)
 박 주방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 패거리에는 규율이 서 있어요. 영지는 일부러 방위에 신경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튼튼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방어할 때 2장갑을 받아요. 콘크리트 공장지대였다고 하죠.
 MC 멸망 전에도 공장이었던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죠.

스미스 소개

김 이름은 스미스고요. 날카로운 얼굴에 얼어붙은 눈입니다. 근육질 몸이지만 정장을 입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또 뭐 있지? 성격. 성격은 (시트를 보고) 냉혈하고 무정해요.
 MC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지킵니다.
 MC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을? 바베큐의 보디가드를 하고 있다거나?
 김 바베큐의 보디가드라...
 박 그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하지만 당장 바베큐를 지키지 않아도 이 영지에 살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할까요? 이걸 좀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아, 그리고 이름이 스미스이기는 하지만 피부는 갈색, 용모는 동양인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아, 바베큐 마을에는 누군가를 호위하면서 온 게 아닐까요?
 MC 그것도 좋네요. 아마도 상인? 식량상인. 여기 왔는데 바베큐의 눈에 들어서 채용되었을 수도요.
 박 마치 노예 거래하듯, 상인에게 바베큐 스테이크 캔 몇 상자를 더 얹어 주고, 저 사람 나한테 주시오 했을지도.
 MC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 상인은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당해 죽은 거죠.
 이 스미스의 몸값은 더 뛰고.
 박 그리고 그 상인이 갖고 있던 화물을 바이커들이 도로 갖고 와서 팔고.

김 “그 상자는 어디서 난 거야, 이놈들!” 그렇게 할까요?
박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김 식량상인도 이름을 정해야겠군요.
MC (NPC 이름 목록을 보고) 크라인이라고 하죠.

NPC 정리

MC 그럼 주요 NPC들, 그러니까 위험요소 후보들이 좀 나오는데요. 바베큐 마을의 패거리, 이름하여 바베큐 사냥단. 애들이 있고요. 여긴 뭐든지 다 바베큐네. 무에와 타이가 나왔고요. 식량상인 크라인이 나왔고요. 죽었지만.
박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그냥 심하게 다쳤을 수도.
김 아니면 여기 오는 길에 상인이 당했다고 할 수도 있죠. 실패한 보디가 드가 되겠네요.
박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서 . . .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고용주는 죽어있고.
MC 으흠. 정체불명의 습격자에 당한 스미스가 물도 밥도 없이 지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바베큐 사냥단에게 구출.
김 그렇게 하죠.
MC 그럼 그 정체불명의 오토바이 습격자들이 나왔고. 뉴욕의 휴고가 나왔고요.

바베큐[®] 스테이크[™]

박 그리고 마을 입구의 “바베큐 스테이크” 표지판에는 바베큐[®] 스테이크[™] 라고 되어 있어요. (웃음)
MC 그런 게 된단 말인가요?
박 세상 망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웃음) 상품 이름에는 이런 걸 붙여 장식하는 거구나 하고 붙였겠죠..

혜성단

MC 근데 오토바이 습격자들 말인데요. 정체불명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무지 넓어서 오토바이 갱이 열댓 개씩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두어 개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 . .

김 이 근방에 흔히 다니는 패거리의 마크가 아니었던 거죠.

박 아아!

MC 사실은 오토바이 갱이 아니고... 원동자전거 갱! (웃음) 그건 농담이
고요. 뭔가 여기 원래 자주 안 오는 놈들... 긴 주기로 나타나는 흥포
한 약탈의 무리?

김 헬리... (웃음)

박 할리! (웃음)

이 할리 혜성! (웃음)

김 할리 혜성단입니다. 두목은 데이빗슨인가요.

이 76년마다 습격하나요.

박 76년은 너무 기니까 76개월?

김 세상이 망한지 50년 밖에 안 됐으니까요.

MC 76주. (웃음) 네. 정체불명의 습격자가 아니라, 전설의 할리 혜성단.
아니, 그냥 혜성단이라고 하죠. 마크도 별에 꼬리 붙인 걸로요. (종이
에 그림을 그린다)

이 무슨 농구팀 마크 같아요.

MC 아. 보스의 이름은 쿤입니다. (웃음) 근데 애들이 습격을 한 게 맞는지
는 아직 몰라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박 웬지 웃이 화려할 것 같네요. 색채가 풍부한 세상이 되었어요. 뉴욕의
휴고도 그렇고.

스미스의 직업

김 스미스는 바베큐 마을 사냥단의 보디가드를 하고 있다고 하죠. 수렵
채집하러 나가면 지키는.

MC 애들이 40명인데 보디가드 한 명이 따로 필요할까요?

김 명목이 보디가드고, 파수나 서고 짐이나 지키고 그렇겠죠.

MC 재능이 아까운데요.

박 그것 말고도 간혹 영지 순찰이나 한 번씩 돌아 주고... (플레이북을
가리키며) 여기 거래의 기준을 보면요, 1주일간 경호해 주면 칼날요
정이나 총잡이는 1바꿈을 받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1주일만 일하
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걸까요?

MC 그렇겠죠? 공치는 날이 많을 듯.
김 그럼 고정 직장은 없고, 건별로 일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효자손 소개

MC 자 그럼 효자손!
이 효자손은 하이웨이의 하이에나예요.
MC (웃음) 그게 뭐가요?
이 포장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옛 황금시대의 흔적들을 뜯어요. 그리고 그걸로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MC 작업장도 트럭에 있고... 아예 트럭이 집인가요?
이 바베큐 마을 내에 본거지는 있다고 하죠.
MC 보통은 비워 두는 거지요?
박 조수들은 같이 다니나요?
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네, 네.
MC 그럼 기사는 아니지만 차가 중요해지는데... 이 세상에 도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효자손은 길도 잘 알겠네요?
이 하이웨이... 일반 도로는 많이 파괴되었는데 고속도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이웨이를 다니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MC 속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초보 바이커 갱 이런 애들이 올라갔다간 다 치여 죽어요.
박 오오.
MC 통행량이 많은가 보죠? 세계는 멸망했는데 자동차는 달리고 있는가!
이 대형차가 많은 거죠. 컨테이너 갱!
박 바이커 패거리가 올라오면 막 일부러 치어 죽이고 그러는 건가요?
MC 로드 워리어, 아니, 하이웨이 워리어들이 있어서 고속도로는 그 사람들의 영토인 게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도로를 관리하나?
이 그냥 다녀도?
MC 무역로라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애들이 오토바이 같은 건 다 밀어 버리는 거죠. “여기는 트럭의 나라다! 어딜 감히 오토바이가.” 기다란 나라. 하이웨이라고 안 부르고 트럭나라라고 부른다거나...

이 장난감 브랜드 같은 이름이네요.

MC 트럭커 파라다이스? 아니, 더 좋은 말 없을까요?

이 무역로라는 점을 생각하면...

김 실크로드? 실크로드 말고 “더 로드”. (웃음)

MC 다 회색일 것 같아요.

김 실크 말고 다른 물건이 오가면.

이 밀크로드.

MC 미일크로드?

김 우유를 빨리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MC 장난 아닌데요. 냉장차도 있을 것 같네요. (웃음)

이 꼭 우유가 아니라도 밀크로드라고 불릴 수 있어요.

MC 왜 그렇죠?

이 웬지 모르겠는데 트럭들에 밀크라고 쓰여 있는 거죠. 지나간 황금시대
대에 우유를 배달하던 트럭들이...

MC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트럭들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 흥내를 냈을
수도. 왜 밀크로드라고 불렀을까?

김 밀키웨이와 실크로드를 합쳐서! (웃음)

박 좋다.

밀크로드의 하이에나, 효자손

MC 비록 상인은 아니지만 트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자손은 밀크로드
를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이 네. 무에와 타이는 운전 솜씨도 괜찮아요.

MC 밀크로더들 사이에서 효자손도 알려져 있고요. 아, 그런 거 재미있겠
네요. 밀크로더들만 사용하는 무전.

이 아니, 깃발!

MC 무에가 운전할 때 타이가 깃발 들고... 무전기는 다 없어진 시절이
라 트럭에는 깃발 든 사람이 타야 하는 거죠! 방향등 브레이크등 같
은 것도 다 망가졌고요. 그래서 깃발로 “차선 바꾸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김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볼 때, 그런 수신호 나오잖아요? 방향등 고장났을 때 쓰라고.

이 세계 멸망 당시 면허 보유자들이 사용하던 수신호가 구전되면서 밀크로드의 깃발 신호가 된 거군요.

MC 근데 이런 신호를 상시 사용하려면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한 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몸을 비끄러 매고... 트럭은 뒤쪽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신호를 볼 사람도 따로 필요할 것이라.

이 뚜껑을 개조해서 열리게 하는 거예요.

MC 뚜껑이 열리면 사람이 짤, 하고 올라와서 깃발을 휘두르는 건가요.

박 오르내릴 기계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이 아! 다른 차들은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흔드는데, 효자손의 트럭은 기계팔로 하는 거죠.

김 깨진 방향등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웃음)

MC 효자손이라는 이름은 그것 때문에 붙었군요. 밀크로드에서 받은 이름.

이 사람 이름이기 전에 트럭의 이름이었다?

MC 그렇죠... 멋있는데요, 밀크로드. (잠시 생각) 밀크로드는 끝까지 가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차들이 화물을 릴레이하기는 하는데. 자기 몸으로 끝에서 끝까지 가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시다. 밀크로드의 끝에는 뭔가 대단하고 무서운 것이 있다는 막연한 소문만...

박 그렇게 말하니 가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밀크로드의 끝.

김 기사 캐릭터가 있었으면 확실히 가는 건데.

MC 또 뭐를 얘기해야 하려나요?

김 성격은?

이 겁이 많고 신경질적입니다.

박 기계 다루는 법은 어떻게 배웠나요? 스승이 있었나요?

이 폐품들을 보고 독학했습니다. 물건이 하는 말을 통해서.

MC 오오. 격물치지.

- 이 베게너가 대륙이동 발견하듯, “이거랑 이견 맞물릴 것 같은데? 오아니!” (웃음) 바베큐 마을에는 효자손이 필요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 박 생필품 구하기에는 주변에서 제일 쉬운 곳이에요. 사서함도 줍니다. (웃음) 화물 나르는 운전수들과 평판 좋은 상인들한테는, 설명 여기 살지 않아도 주소지 역할을 해 줘요.
- MC 효자손은 마을에 작업장이 있다고 해서 연결점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동식도 나쁘진 않아요.

Hx를 정하자: 바베큐

- MC 그럼 자기소개는 끝났고... 이제 Hx를 정하죠! 아까랑 똑같이 바베큐 먼저.
- 박 사람을 잘 신뢰하고 자원을 너그럽게 베푸는 영주예요. 그래서 모두의 바베큐에 대한 Hx는 +1입니다.
- MC 다른 분들은 이 수치를 듣고서 각자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플레이북 잘 보세요.
- 김 (칼날요정 플레이북을 읽는다) “가장 믿지 못할 캐릭터를 하나 고른다. 그 플레이어가 말한 값은 무시하고, 그 캐릭터의 이름 옆에는 Hx+3이라고 적을 것.”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을 골라서 Hx+3으로 만드는군요. 누구를 못 믿어야 할까... 바베큐는 나를 습격한 패거리에 대해 뭔가를 숨기고 있다.
- 박 ...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오해건 진짜건 간에 의심을 살 만한 물건 같은 걸 바베큐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 김 효자손을 못 믿는다고 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
- 이 효자손은 동네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차에는 팔이 달려 있고. (웃음)
- 김 아, 헤성단이 밀크로드를 달리는 유일한 바이커들인 거예요! 그래서 효자손이 애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MC 거대 트럭에 오토바이를 격납하고...
- 이 트럭을 배에 비유하면 정말 바이킹이군요. (웃음)
- 김 트러커이자 바이커.
- MC 밀크로드의 끝까지 갔다 온 사람들!

- 이 인간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봤고.
- 박 오가는 길에 노략질을 하고.
- MC 그리고 한번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76주. 이걸 좋네요.
- 박 근데 그거랑 별도로, 바베큐는 스미스에 대한 습격의 배후에 있다거나, 입막음을 당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영주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야 재미있지.
- 김 일단 바베큐쪽이 좀 편해 보이네요. 바베큐에 대한 Hx를 +3으로 하겠습니다.
- 박 네.
- MC 그래도 혜성단 설정은 쓰겠습니다. 이걸 괜찮네요.

Hx를 정하자: 스미스

- MC 다음은 스미스.
- 김 칼날요정은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모두가 Hx+1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그러면... 효자손에게는 0이군요.
- 박 어, 왜 그렇죠?
- 이 들은 대로 적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 낮추라고 하네요.
- 박 어디 어디. (기계도사의 시트를 본다.) 그렇네요.

Hx를 정하자: 효자손

- 이 그럼 제 차례입니다. 기계도사는 가장 괴상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그 플레이어에게 Hx+1이라고 말을 하라네요. 둘 중 누가 더 괴상한가? 일단 스미스로 하죠. (Hx를 조정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효자손에 대해 -1 Hx입니다.
- MC 네. 근데 들은 대로 적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 박 저는 영주가 되기 전부터 효자손과 알고 있었다고 하고 싶어요.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느라 출입할 때 알았다거나. (Hx를 조정한다.)
- 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될 만한 캐릭터도 하나 골라야 하네요. 자연히 바베큐가 되나? 바베큐에 +1 합니다.

관심 특성치

박 그러면 이제 관심 특성치를 정해야 하는군요.

관심 특성치로 판정을 할 때마다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포칼립스 월드의 룰이다. 관심 특성치는 자기 캐릭터 시트에 Hx가 가장 높은 캐릭터의 플레이어가, 그리고 MC가 정하게 되어 있다.

김 (룰을 보고) MC가 말해 준다는 건 뭐지요?

MC 관심 특성치가 둘입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고르는 하나, MC가 고르는 거 하나.

박 그걸로 판정하면 경험치를 받아요. 바베큐 시트에는 스미스의 Hx가 제일 높게 적혀 있으니, 스미스한테 물어 보면 되네요. 어느 특성치가 제일 재미있어 보이나요?

MC 이 캐릭터의 어떤 면을 보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김 저는 바베큐의 매력을 찍겠습니다.

박 스미스의 관심 특성치는 제가 고르게 되는군요. 저도 매력을 찍습니다.

이 효자손은 바베큐에게 물어야 해요.

박 음... 기괴, 기괴를 보고 싶습니다.

MC 저는... 일단 효자손의 냉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역시 냉철. +3이네요! 바베큐는 강인. 그럼 캐릭터는 일단 다 된 거죠?

다들 네.

MC 또 설정 추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첫 세션 시트를 쓰기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나온 요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니, 스미스의 무기는 어떻게 생겼죠?

김 권총하고, 긴 칼이에요.

박 비례가 망가진 총검이 생각나네요. (웃음)

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웃음) 권총은 검은색 반자동... 베레타라고 할까요. 장검은 일본도가 아니고...

막간의 잡담

- MC 밀크로더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 이 흥포하다?
- 김 멸망 이전의 트러커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 박 저는 엄청 배타적인 화물 조합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밀크로드에 올라오면 밀어버리는 거죠.
- 이 저는 해적을 생각했어요. 무역도 하고, 약탈도 하는.
- MC 음음.
- 박 그렇게 치면 해성단은 표준 밀크로더에서 살짝만 변형된 걸지도?
- MC 근데 밀크로드 위에서는 약탈을 안 하겠죠, 해성단은?
- 박 출구로 나와서 하겠죠. 그건 다른 밀크로더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 MC 근데 트럭 한 대로 약탈을 해 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해성단은 사람이 많고 오토바이 기반이니까 약탈 산업이 가능할 텐데... 트럭은 설령 약탈을 하더라도 노상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바이커들처럼 전문적인 도적떼는 아니고.
- 이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도 하고...
- 박 밀크로드에는 입회식도 있을 것 같아요.
- MC 그러게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커다란 연대 조직이니까. 이 사람들은 썩었다고 하죠. 부패했습니다. 악합니다.
- 이 그림이 달라지네요. 트럭 옆면에 송아지랑 우유 그림 대신 해골에 가시 그림 있고. 혼돈의 신을 섬기고.
- MC 뭔가 종교적이라고 할까? 지금 밀크로드의 끝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끝”이 애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거죠. 해성단은 그걸 보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그리고 바베큐 마을의 패거리, 바베큐 사냥단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박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무장 상태가 안 좋아서...
- 이 이 영지 좀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 MC 그래서 휴고는 바베큐 마을을 질투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무리 무력이 강해도 자기는 평화롭지 못한데... 어디 보자. 무예와 타이는 무식합니다. 무식하니까 신경질적인 상사 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박 초기 설정할 게 던전월드에 비해서 많아 보여요.
MC 네. 지금 미리 다 해 놓아야 하는 건 아닌데... 던전월드는 상황 시작 해 놓고 거기서부터 해 나가는 식인 반면에, 이건 막간에 좀 더 정리를 해야 해요.

개시!

MC 자, 그럼 대망의 첫 세션입니다. 시작할게요!
다들 와~ (박수)

첫 세션에서는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며 설정을 수집하고 이야기의 윤곽을 잡는다. 이제부터는 캐릭터 이름을 쓰기로 한다. ‘김’은 ‘스미스’, ‘박’은 ‘바베큐’, ‘이’는 ‘효자손’.

세션을 여는 판정

바베큐 우선은 저, 영주니까 경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효자손 저도 제 말 하면 오는 자 판정을 해야 하네요.
MC 칼날요정은 그런 거 없죠?
스미스 네.
MC 그러면 바베큐부터. **강인**으로 판정해 주세요.
바베큐 (주사위: $2d6+2 = 11$) 잉여는 합해서 2바꿈이 나오고, 부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인**이 관심 특성치니까 경험치도 한 칸 받을게요.
MC 처음부터 진행이 좋군요. 풍요로운 바베큐 마을. 그럼 효자손이 기괴 판정을 해 보죠.
효자손 (주사위: $2d6+2 = 5$) 앵! 그래도 경험치는 받습니다.
MC 효자손은 이제 제가 원할 때 제 맘대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그런 조건은 정해져 있네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기록을 뒤진다) 룰북에서 얘기하기로는, PC들이 둘 씩 짝을 지어서 등장하는 게 좋아 보여요. 하나씩 나오는 것보다는. 처음에 누구를 묶을 지는 주사위를 굴려서 정해 보겠습니다. 1, 2는 바베큐와 스미스, 3, 4는 스미스와 효자손, 5, 6은 효자손과 바베큐. (주사위를 굴린다) 바베큐와 스미스네요.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요? 스미스가 바베큐를 경호하고 있거나?

바베큐 (플레이북을 보고) 저희 영지는 뉴욕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MC 바베큐 스테이크겠죠, 조공의 대부분은.

바베큐 네. 작은 트럭에 음식 캔을 잔뜩 쌓고...

스미스 그러면 저는 그걸 경호하고 간다고 하면 되겠네요.

효자손 저는요?

MC 두고 봐서요. 아까 제 말 하면 오는 자 판정을 실패했으니까 이번 세션에 곤경에 처하긴 해야 하는데, 잊기 전에 빨리 쓰는 게 좋겠죠.

영주님 행차

바베큐 바베큐는 사냥단 40명 중에서 절반을 데리고 뉴욕으로 떠나요. 트럭에 바베큐 스테이크 캔이 든 박스를 잔뜩 싣고, 그 틈에 설치된, 제법 화려한 의자에 앉습니다.

MC 이게 말하자면 행차용 가마 같은 건가요?

바베큐 그렇죠. 그리고 애인이자 수석 사냥꾼인 마틸다는 도시에 남아서 나머지 사냥꾼들을 데리고 마을을 지키라고 했어요.

스미스 스미스는 바베큐의 곁에서 사방을 경계합니다.

MC 혹시 깡통으로 만든 옥좌인가요? 철왕좌... 양철왕좌. (웃음)

바베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뭐냐... 해진 옷을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폭신하게 쌓아올린 방식으로 만든 의자예요.

MC 일단은 뉴욕으로 가기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퍼레이드처럼요.

바베큐 그렇죠. 장터는 평온한가, 주민들은 잘 있는가...

MC 조공을 바친다고는 해도, 받아 오는 물건도 꽤 돼요.

바베큐 그 차액이 -1바꿈인 거죠?

MC 아니, 그 차액은 더 되고, 그것 때문에 바베큐가 개인적으로 못 쓰게 되는 것이 1바꿈입니다.

바베큐 아, 그렇군요! 네. 생필품과 먹을 것을 싣고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진상품은 빨대

MC 뭔가 특별한 물건이 있나요?

바베큐 얼마 전에, 구하기 힘든 “빨대”라는 물건을 교역으로 손에 넣었어요. 그것도 바치러 갑니다.

스미스 그런데 그 빨대가 평범한 빨대가 아니라... 커피 빨대!

효자손 목이 꺾이는 빨대.

바베큐 아! 아! 지름이 굵은 빨대요.

MC 바베큐 스테이크에 꽂으면 건더기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웃음)

바베큐 그렇지요. 그런 빨대가 한 다발... 근데 뉴욕의 휴고가 이렇게 조공을 받고 있으면, 순찰대 같은 것도 돌리고 그러겠네요, 이 근방에서?

MC 네. 그렇겠지요? 뉴욕 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지요.

바베큐 음음. 그 외로, 저희 영지에 휴고가 감시 반 보호 반으로 보낸 병력이 또 10명 정도 된다고 하죠. 마틸다가 거느린 20명과 합치면 30명.

MC 아, 그렇게... 주둔군을 두고 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황무지를 건넵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뉴욕에서 흉악하게 생긴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황무지에 순찰을 돌기는 돌아요. 하지만 돌아다니는 도적이거나 외부의 침략자를 100% 막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러 갈 때도 20명이나 경호를 하는 것이죠.

바베큐 그리고 뉴욕의 병력은 NYPD! (웃음)

MC 휴고는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더 줄리아니... 아니, 그냥 시장.

붉은 황무지를 지나며

MC 여러분은 시빨건 황무지를 건넵니다. 트럭 한 대,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그렇게 가고 있어요. 트럭은 누가 운전하나요?

바베큐 마틸다는 남겨 놓고 왔으니, 이름 없는 부하로 하죠.

MC 일단 화면에 나오는 NPC라면 이름은 있어야 해요. 제가 정해도 됩니다.

바베큐 순둥이 같아 보이는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려도 좋습니다.

MC 애는 13세 여자애입니다. 이름은 “쌀”이에요.

바베큐 쌀요?

MC 보리가 아니고 쌀.

스미스 벼도 아니고 쌀.

효자손 밥도 아니고 쌀.

MC ㅎㅎ. 그렇습니다.

바베큐 황무지를 떠돌던 애네 부모가 쌀 몇 되밖에 팔아 넘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쌀인 거죠.

MC 햇살은 뜨겁고, 붉은 언덕의 능선에서 사람 그림자가 슬쩍슬쩍 보입니다. 저것은 아마 이 근방에 사는 야만인들. 마을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부족 단위로 황무지에서 수렵, 채집,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죠. 20명 남짓 되는 여러분을 습격할 배짱은 없는 자들이지만, 소규모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들개처럼 달려들, 그런 놈들입니다.

바베큐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권총은 앞주머니에.

MC 지금 요리사 복장 차림새죠? 앞치마에 요리사 모자까지.

바베큐 네.

MC 쌀은 페달에 밟이 닿지 않아, 긴 나막신을 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잘 해요. 황무지를 건너는 데 대단한 운전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스미스 도로도 없죠? 덜컹덜컹.

바베큐 네. 하지만 조공 바치러 가는 길은 이미 익숙해요. 이 정도의 불편과 이 정도의 긴장은...

MC 식량만 싣고 가나요?

바베큐 그 밖에도 각종 소모성 생필품이 있지요. 아까 빨대 얘기했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도 교역으로 얻은 것들을 일부 가져갑니다.

MC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바베큐 5년 사이에 한 번 있었다고 하죠. 그때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

스미스 케이크.

MC 휴고의 결혼 케이크?

바베큐 그거 좋네요.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걸 바치라고 했어요.

MC 마누라가 몇일까?

바베큐 글썬요? 드물디 드문 밀가루를 열심히 모아서 8단 케이크를 만들어야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건 없고요, 대부분은 식량이죠. 바베큐 스테이크 통조림.

MC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총성이 들립니다.
 스미스 총을 꺼내 들고 주변을 살핍니다.
 MC 호위병들도 활과 총을 들고 두리번거립니다. 총성이 들린 곳은 뉴욕
 으로 가는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언덕인 것 같습니다.
 바베큐 그래요?
 MC 또 들립니다. 탕!
 바베큐 불안해 합니다. “야, 빨리 가자. 속도 높여.”

위기의 효자손

MC 한편... 황무지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효자손. 네. 아까 실패한
 판정의 효과입니다. (웃음) 트럭의 연료통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다
 행히 불이 나지는 않았는데, 연료가 다 새는 바람에 움직이지를 못하
 고 있는 참이에요. 무에와 타이가 열심히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
 효자손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잔소리를 하나요? “그걸 거기다 끼우면 안
 되지!”
 MC 그리고 싶은데... 총알이 또 날아옵니다. 누군가가 저격을 하고 있
 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맞추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도망 못 가
 게 위협을 해 놓았다가 원군을 불러서 트럭을 약탈하고 효자손과 두
 조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효자손 잡아먹어요?!
 MC 네.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베큐 바베큐는 비겁해서, 혹시 알더라도 안 돕습니다.
 MC 안 도와주나요!
 바베큐 누군지 알면 친분이 있으니 도울 테지만, 모르니까 지나쳐요. 바베큐
 는 그런 사람입니다.
 효자손 길길이 날뛵니다. “저놈들 식인종이면 어떡하냐! 무에, 타이, 빨리 해
 결해!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MC 연료통에 열심히 땀질은 하고 있는데, 혹시 수리가 다 된다고 해도 기
 림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딜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총
 알이 날아오는 문제도 있고요.

효자손 무에와 타이는 꿈쩍도 안 하고 일을 합니다. 총알에 아랑곳 안 해요.

MC 오? 뭔가 이유가 있나요?

효자손 글썄요? 그냥 겁이 없어요. 무식해서 그런가?

MC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효자손 “나는 안에 들어가서 통신수단을 마련해 볼 테니까, 짐칸으로 총알이 못 들어오게 해!”

MC 뭔가 강구를 하나요?

효자손 맥가이버 주제곡이 흘러 나오고... 무엇을 시도할까? 통신? 호신? 변신?

MC 트럭이 거대 로봇으로 변하나요! (웃음)

효자손 통신을 시도합니다. 큰 스피커로요. 트럭에 쌓인 잡동사니에서 찾아내서 트럭 위에 적당히 얹고 전선을 연결해요.

MC 그게 되는지 보죠. 이건 작업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효자손 네. 말하자면. (맥가이버 주제곡을 흥얼흥얼) 스피커도 원래 스피커가 아닌 것을 조립해서 쓴다고 할래요. 그림이 그려 있는 캔버스와 자석과...

MC (롤을 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효자손 아니, 이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MC 네, 그렇기는 한데, 이건 면해도 뭔가 다른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송출하나요?

효자손 “살려주세요”라고 하나? 경고를 하나? 짐짓 위험을 할까?

MC 어느 쪽도 의미가 있겠죠. 주변에 혹시 누가 있기를 기대하고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

효자손 “들어라, 하찮은 것들아. 이 트럭 안에는 너희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운명을 가져다 줄 것들이 잔뜩 들어 있다. 그러니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구하러 와 주세요.” (웃음) 마지막 문장은 농담입니다.

MC 네! 그럼 매력 판정을 해 주세요. 조종 판정이 될 테니까... 뭔가 대가를 제시하긴 해야 하는데.

효자손 (주사위를 집어 들며) 저는 예리랑 기괴 말곤 다 낮아요. 대가라면 뭐가 있을까요? PVC 파이프 같은 걸로 가짜 대포 포신을 만들어서 저 놓니다.

MC 허풍인가요! 으흠. 이걸 딱히 판정을 할 게 없습니다.

효자손 아까 매력 판정 하라고 하신 건 뭐지요?

MC 그건 대가를 제시했을 때의 얘기라...

효자손 아... 그럼 어찌지? 무에를 넘겨주나. (웃음)

MC (물을 다시 살펴 보고)... 아니, 아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조종 맞습니다. 판정을 하시죠.

효자손 (주사위: $2d6 - 1 = 9$) “씩 물러가지 않으면 전부 날려 버리겠다!”

바베큐 그리고 기계 돌리는 소리를 내겠죠. 윙윙윙.

스미스 끼릭끼릭.

효자손 미친 웃음소리도 냅니다.

MC 그러자 저쪽에서, 총 쏘던 놈이 수건 같은 걸 꺼내 흔들자, 뒤쪽에서 동물 같은 걸 탄 세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와요.

효자손 쇠지레를 짚고 섭니다.

MC 소리가 들릴 정도 거리까지 오더니, 하나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제물로 바칠 놈을 하나만 내놓으면 우리는 물러나겠다.”

효자손 “싫어! 안 돼! 못 줘!” 하고 우깁니다.

한편 바베큐는

바베큐 그 소리가 다 스피커로 들리는 거죠? 총소리도 들렸으니까.

MC 아! 그렇겠네요.

바베큐 아니, 저 목소리는 효자손이 아닌가! 하고 깨닫습니다.

MC 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피커 소리만 들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바베큐 “스미스 선생, 내가 물자가 많고 몸이 무거워 빨리 갈 수 없으니 대신 가서 봐 주시오.”

스미스 “경호를 맡은 사람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바베큐 그렇게 나오면 일행을 전부 그리로 돌립니다. “하필 효자손이네” 하고 한숨을 쉬면서요. (웃음)

MC 풍악을 올리면서 가나요?

바베큐 아뇨, 그냥 갑니다.

MC “에이!”하고 쌀이 운전대를 돌립니다.

다 죽는 거야!

MC 한편 효자손과 야만인들은 대치중입니다.

효자손 “조수들은 보낼 수 없어. 나는 더더욱 갈 생각이 없고. 당장 물러나!”

MC “그러기 싫다면? 우리가 말을 달려서 너희들을 전부 꼬챙이로 꿰어 버린다면? 그러면 어쩔거냐?” 그리고 트럭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효자손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섭니다.

MC 안에 폭탄이라도 있다는 뜻이?

효자손 네. 진짜로 있어요! 옷깃을 풀어헤치고 속을 보여줍니다. 폭탄을 두른 것이 드러나는 거죠!

MC 호오. 네. 그렇다고 해요. 야만인들은 다가오다가 폭탄처럼 생긴 것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더니, “좋아, 오늘은 우리가 봐 줬다. 하지만 다음에 이곳을 지날 때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떨더니, 그래도 아쉬운지 머뭇머뭇거리다가 자리를 뜹니다.

바베큐 허세 배틀이다!

효자손 사실 배에 감은 것도 폭탄이 아니라거나... 시계.

바베큐 면도기. (웃음)

MC 무에가 올라와서 보고를 합니다. 땀질은 했는데 연료가 다 새 나갔다고요.

효자손 “그럼 할 수 없지.” 만들어야 하나?

MC 어떻게 만들죠?

스미스 일단 공룡을 되살려서 죽인 뒤... (웃음)

영주님 납시다

바베큐 (효자손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부릉부릉 하는 새로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효자손 망원경으로 봅니다. 익숙한 바베큐 마을의 공무용 트럭. “아니, 저것은 바베큐님이 아니신가.”

MC 이 멍청한 식인종들의 이름을 정해야겠어요. 무슨 부족, 이런 식으로.

바베큐 제물로 쓴다고 하면 무슨 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효자손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을지도 ...

MC 그 부족의 이름은 ...

효자손 잿밥족? (웃음)

MC 잿더미 부족입니다.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무서운 부족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에서 별 권력은 없어요. 주로 하는 일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강도질하는 거.

바베큐 가난한 산적단 같은 거군요.

MC 네. 그렇죠. 가난하고, 움집 같은 데 살고, 결속력도 없고. 토벌의 필요조차 대단히 자극하지 않는 ...

효자손 표범 가죽 같은 거 두르고 있나요!

MC 표범이 없을 테니 ... 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별로 많이 가리지도 못해요. (웃음) 하지만 그래도 말 같은 동물을 타고 다닙니다.

바베큐 그러고 보니, 스미스 씨는 뭘 타고 다니나요? 바베큐랑 같이 트럭을 타나요? 오토바이 같은 게 있으려나?

MC 없겠죠, 그것도 다 돈인데.

스미스 저는 차 옆에서 걸어갑니다.

바베큐 근데 걷는 사람이 있으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스미스 어차피 호위병 스무 명도 차 없잖아요.

바베큐 예, 그런가요? 지금 저만 타고 있는 거예요?

MC 네. 아까 말한 것 같은데, 영지에 차가 드물어요. 아마 이 트럭 한 대.

바베큐 정말 가난한 세상이군요.

효자손 바베큐 일행은 걷는 속도에 맞춰서 오겠네요.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느리게 온다고 투덜거립니다.

스미스 계속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경로를 바꾸시면 경호에 지장이 생깁니다.”

MC 마치 루트를 미리 다 파악해 놓은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지뢰를 깔아 놔습니다!” (웃음)

바베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트럭 위에 서서 효자손에게 소리를 칩니다. “어이, 거기 효자손 선생!”

효자손 “어이쿠, 바베큐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바베큐 “방금 그건 뭐였소? 뭔가 이상한 방송을 하시던데.”

효자손 “식인종들한테 죽을 뻔 했는데! 구하러 오셔야죠! 걷는 속도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로 찌렁찌렁 울립니다.

바베큐 “그럼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요!”

효자손 “기름도 없어요!” 연료통에 방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폭발 안 한 게 다행이네.

바베큐 “스미스 선생. 나 좀 도와 주시오.” 그리고 트럭에서 내려서, 육중한 몸을 이끌고 효자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이 있긴 하지만 이건 공물이라 안 된다고 해요. 연료를 받고 싶으면 대신 공물로 바칠 특이한 물건을 달라고 합니다.

효자손 특이한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짐칸에 있어요. 뭐가 있을까. 로봇 세탁기. 로봇 청소기.

MC 그런가요?

효자손 뭐 신기한 것 있으려나요.

MC 재산이 좀 있지요?

효자손 네, 3바꿈 상당의 잡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MC 그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죠.

로봇 물티슈

효자손 로봇 물티슈.

스미스 로봇 물티슈요?

효자손 네. 오수의 개처럼, 몸의 털에 물을 적셔서 운반하는 로봇인데요. (웃음)

MC 그런 건가요.

효자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적셔서, 와서, 닦아 줘요.

바베큐 와... 완전 정교하고 쓸데 없다.

MC 방수처리도 돼 있을 거 아녜요.

효자손 네. 그리고 네 발로 걷습니다.

MC 그거... 1바꿈? 2바꿈?

효자손 기름을 얼마나 받고 싶느냐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1바꿈어치...

스미스 동력은 태엽이라거나...

MC 동력은 뭘까요?

효자손 기름...

MC 그거 석유 먹어요? (웃음)

바베큐 석유 먹는 물티슈!

MC 내연기관이군요. 용케 방수를... 하긴 디젤 잠수함도 있으니. 예.

바베큐 재능 낭비류.

효자손 이런 거 좀 있다고 하고 싶어요. 사치성 기계. 여튼, 그래서 안에서 뒤지더니 털복숭이를 품에 안고 나옵니다.

바베큐 보기에는 예쁘게 생겼나요?

MC 젖은 개처럼 생기지 않았겠어요? (웃음) 그리 예쁠 것 같지 않은데요.

효자손 아직은 마른 개처럼... 아, 작은 피아노 의자처럼 생겼습니다.

합류

바베큐 한숨을 푹 쉬고, “또 뭘 만날지 모르니 우리랑 함께 갑시다” 하고 제 안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줍니다.

MC 타이가 석유통을 받아서, 땀질한 연료통에 집어 넣습니다.

바베큐 그리고 스미스에게 말합니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예정한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효자손 선생 같은 재주는 이 세상에 귀하지. 물론 스미스 선생의 재주도 귀하니까...” 그리고 1바꿈 상당의 귀금속을 줍니다.

MC 아까 판정이 풍요로워서. (웃음) 그래서 행렬에 커다란 트럭이 생겼습니다.

스미스 공물 트럭보다 이 트럭이 더 크가요?

MC 아, 훨씬 크죠! 여긴 작업실이 들어갈 정도니까요.

바베큐 (스미스에게) “원하시면 저기 타셔도 됩니다.”

스미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경호합니다.

효자손 수행하는 행렬을 제 트럭에 태우면 어떨까요?

바베큐 그러게요? 다 트럭에 타고 가면 빨라지겠네요.

MC 그렇네요. 다 들어는 갑니다.

효자손 “아무 것도 만지지는 마세요!” (웃음)

MC 쌀이 신나서 나막신으로 액셀을 밟습니다.

스미스 부양-

MC 이로써 이동 시간은 줄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 대의 차 뒤로 흠먼지가 좌악 일겠죠. 비포장도로라...

바베큐 발은 편하겠지요, 그래도.

MC 네. 발은 편할 텐데, 내릴 때가 되면 얼굴이 누래지겠죠. 다들 토하고.

스미스 트럭 짐칸에 타면 바깥이 안 보여서 멀미가 더 심해지죠.

MC 멀미는 시각 정보랑 균형 정보 사이에 싱크로가 안 맞아서 하는 거라고 읽었는데, 그러면 눈 감으면 멀미를 안 하는 걸까요.

바베큐 자다가 속 안 좋아서 깨는 일도 있는 것 같던데... 꿈하고 싱크로가 안 맞아서 그런가? (웃음)

여신상이 맞이하는 도시, 뉴욕

바베큐 그러면 별 일 없이 휴고네 영지에 도착하나요?

MC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온 셈이죠. 멀미하는 것만 빼고.

스미스 여신상의 햇불이 보인다!

MC 여러분은 초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뉴욕의 문지기들... NYPD 패거리가 늘어서 있습니다. 다들 쇠징과 쇠뿔이 박힌 검은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효자손 아포칼립스답군요! (웃음)

MC 경비병들이 종을 땡땡 울리자 트럭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셔터 문이 좌 열립니다. 셔터 안에는 “웰컴 투 뉴욕”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어요. 문 앞에는 아주 낡은 모자... NYPD라고 쓰인 쇠붙이가 달린 낡은 챙모자예요. 그걸 쓴 수염 난 중년 남자가 서서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바베큐 마을의 바베큐 선생! 잘 오셨소.” 이 사람은 뉴욕의 경찰서장이고, 이름은... 그롬입니다. (중이에 적는다.) “시장님께서는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베큐 “이번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내리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MC 그롬이 말합니다. “오늘은 야회가 있으니, 꼭 참가하셨다가 내일 돌아가지시요.”

효자손 스미스는 대뜸 “안 됩니다” 할 듯. (웃음)

스미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바베큐 승락을 할까, 거절을 할까...

스미스 거절을 하면 “감히 우리의 호의를 거절하다니!”가 되고, 승락을 하면 “이것은 다 함정이었지!”가 될 수도. (웃음)

MC 두고 봐야죠! 뭔가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미스 다른 지역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 영주가 등장해도 재미있겠네요...

바베큐 스미스가 아직껏 조명을 못 받아서 아쉬우니, 하루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 보죠.

MC 상황 읽기 같은 것도 유용할 거예요. 특히 스미스 같으면 경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베큐 “아이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보충할 물자도 많고 해서 장터에 들를 생각이었소.”

MC 그롬은 이웃 영지들에서 상인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귀땀해 줍니다. 그러고 보니 이쪽은 트로이의 목마... 아니 트럭이 있지요. 트럭 문이 열리고, 바베큐 마을의 사냥꾼 스무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베큐 “와, 대도시에서 쇼핑이다!” (웃음)

MC 뉴욕은 바베큐 마을보다 큽니다. 시장도 좀 더 크고... 트럭에서 내린 부하들은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술집에 가기도 하고, 삼삼오오 흩어집니다.

바베큐 박물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휴고는 반짝거리고 신기한 걸 좋아한다는 설정이니.

MC 네.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효자손 황금시대의 보도 블록 같은 게 진열되어 있는 건가요.

바베큐 빨강고 파란 전구가 번쩍번쩍. (웃음)

효자손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MC 네. 이름은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지었는데, 자연사라는 말의 뜻을 아무도 모르는지, 대부분의 소장품은 황금시대의 인공물들입니다.

바베큐 휴고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스미스와 둘이 가겠습니다.

MC 네. 그룹이 말합니다. “부하들은 쉬라고 하시고, 저와 함께 시장님을 만나러 가지죠.”

스미스 스미스는 품에 권총을 품고, 등에 장검을 지고 바베큐 곁에 붙습니다.

바베큐 굵은 빨대와 로봇 물티슈는 직접 들고 갈게요. 특별 공물이니까.

뉴욕의 자랑, 자연사 박물관

MC “시장님은 박물관에 계십니다.” 그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수집한 보물들의 전시장이죠.

바베큐 자랑의 전당이군요.

MC 중요한 손님은 항상 박물관에서 받아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의식입니다.

효자손 효자손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떨어져서 갔다가는 또 습격을 당하거나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어슬렁거립니다.

바베큐 효자손을 보고, “이 신기한 물건은 선생의 작품이니 직접 들고 가지게” 합니다.

효자손 “이건 어린아이라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MC 그룹이 로봇 물티슈를 보고, 시장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가져 왔다고 칭찬합니다. 잠깐 걸으니까 큰 헛간 같은 건물이 있고, 거기에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수많은 나무 선반 위에 특이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접시, 불이 들어오지 않은 TV... 분명 무기처럼 생긴 거대한 물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장갑차...

효자손 관심을 가집니다. 용도를 모르는 물건도 많을 것이고, 장갑차는 황금 시대의 장갑차인가요?

MC 네. 하지만 고장이 났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았겠죠.

바베큐 고장은 났는데 수리는 안 되고. 하지만 멋있고.

MC 밖에 놓고 싶지만 녹이라도 슬까 봐 안에 놓았습니다. 휴고는 안에 서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몸에 작은 전구들이 잔뜩 달린 전선을 감고 있습니다. 전선은 가까운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고, 전구는 대부분 불이 들어옵니다. 알록달록해요. 거기에 높은 실크랫을 쓰고 있습니다.

효자손 플레이어가 듣기에는 우습지만, PC들이 보기에는 아니죠?

MC 네. 하나도 안 웃깁니다! (웃음)

효자손 효자손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세가 느껴지니까.

MC 대단하지요. 전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베큐 세상에서 제일 변화한 도시 뉴욕... (웃음)

MC 그리고 그 주인, 휴고 시장.

효자손 머리를 조아리고 차마 전구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웃음)

MC “잘들 오셨소” 하고 품을 짹니다.

바베큐 인사를 하고, 잠깐 보실 만한 물건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 왔다며 빨대를 내밉니다.

MC “호오, 포장을 뜯지 않은 빨대인가.” (웃음) 매우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크다니. 고맙소, 바베큐.”

바베큐 그리고 효자손에게 로봇 물티슈를 바치라고 손짓을 합니다.

효자손 별별 떨면서 내밉니다.

MC “이건 무엇이요?” 휴고가 묻습니다.

효자손 “이것은 로봇 물티슈...” 아니. 로봇 물티슈라는 말은 가칭이고,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할까... 샤워개.

MC 샤워개! 물을 적셔서 몸을 막 터나요? (웃음)

효자손 “샤워개라고 합니다.”

MC 휴고는 기계류를 많이 다루어 봤는지, 스위치를 금세 찾습니다. 당겨서 시동을 걸자 발이 마구 움직이기 시작하고, 휴고는 “아이쿠” 하더니 바닥에 샤워개를 내려 놓습니다.

바베큐 쿵쿵거리면서 물을 찾나!

MC 후다닥 움직이며 여기저기 부딪치다가, 새 들어 온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침병!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효자손 시동을 건 사람에게 다시 달려 옵니다. 그리고 몸을 타고 기어 올라가 얼굴에 몸을 비빔니다.

바베큐 발톱을 거나요? 아프겠다.

효자손 다리를 감싸고 올라갑니다. 보통 개보다 다리가 길어요.

MC 네, 그렇게 기어 올라가갑니다.

효자손 고인 물 중에 비교적 깨끗한 것을 찾는 기능이 있어요. 안 그러면 곤란할 테니.

MC (생각해 보고) 근처에 빗물받이가 있었다고 하죠. 물에 젖은 몸을 휴고의 얼굴에 맹렬하게 문지릅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죠?

스미스 감전. (웃음)

효자손 내연기관인데요?

MC 몸에 감고 있는 전구요. (웃음)

효자손 (휴고가 감전되는 흉내를 내며) “으아아아-” (표정을 바꾸고)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다.” (웃음)

바베큐 암살전이었어!

스미스 감전까진 아니더라도, 전구가 일시적으로 꺼진다거나...

효자손 형가와 진시황 얘기가 생각나요.

바베큐 어쩐 좋아요. 그렇게 가나요?

MC 아니, 아니. 지금 판정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일어난 일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효자손 좋아한다?

MC 좋아할 수도 있고요.

바베큐 바베큐는 매우 당황해 하며, “선생, 이게 이렇게 과격한 물건이었던 말이오!” 하고 외칩니다.

MC 휴고 역시 당황해서 소리를 질러요.

효자손 비상용 안전장치가 있어요.

MC 그건 또 켜면 어떻게 되나요? 폭발이라도 하나요?

효자손 다 죽는거야! (웃음) “기다려!”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베큐 음성 명령 듣는군요.

효자손 그러면 샤워개는 내려가서 앉습니다.

MC 휴고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내고 “오! 놀랍군!”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사용법을 잘 가르쳐 주시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자손 그래야지요. ‘앉아’, ‘기다려’ ...

MC ‘죽여’ (웃음)

효자손 ‘나를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어 다오’ (웃음)

바베큐 바베큐는 식은땀을 닦으면서, “그럼 선생은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시고, 우린 이만 좀 가 보겠소. 시장님, 연회에서 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스미스를 데리고 나갑니다.

스미스 박물관을 나서면서도 효자손을 주시합니다.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웃음)

MC 휴고는 연회장에서 만나자며 여러분을 보내 줍니다.

연회

스미스 연회장에서 스미스는 자리에 앉지 않고 바베큐 뒤에 시립해 있을 거예요. 칼 짚고.

효자손 과연 연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바베큐 휴고보다 더 경호를 세게 하면 좀 그런데 ...

MC 네?

스미스 바베큐가 휴고보다 지위가 아래니까요.

MC 아아. 그렇겠네요.

바베큐 휴고 뒤에 반짝반짝 전구를 단 보디가드가 두 명이 있으면 안심하고.

..

MC 아, 전구는 오로지 휴고만이 달고 있습니다. 여기 패거리는 뺨뺨한 남색 옷을 웃도리만, 또는 바지만, 아니면 모자만, 이런 식으로 걸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나머지 의류는 가죽이에요.

스미스 남색 옷이라면 경찰복 같은 거지요?

MC 네. 그리고... 오늘은 장터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입니다. 다른 영지에서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일부러 오늘 일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 장사꾼들도 모이고요.

바베큐 스미스의 활약을 보고 싶는데 옆에서 안 떨어지니까 어렵습니다.

MC 액션을 해야 활약이 나오는데 말이죠. 경호 중이라면 사람 읽기라거나, 상황 읽기라거나...

스미스 스미스는 뭘 두려워해서 상황이나 사람을 읽으려고 들까요?

효자손 누군가가 접근하거나 그러면...

스미스 이웃 마을 영주라거나 하는 사람이 접근하면 뭔가 될 것 같네요.

MC 아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스미스 아뇨. 그런 건 아닌데...

바베큐 바베큐는 이런 면에서 허술해요. 다 믿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아니겠지만.

스미스 여하튼 스미스는 누구든 다가오면 막고 볼 것 같네요. 몸 수색을 한다거나... 아무 계기도 없이 이 연회장은 수상하다, 하고 상황 읽기를 하면 피해망상 같잖아요?

MC 긴장되는 상황에서만 쓰는 액션이기는 한데, 모든 것이 순조로운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되니까요. 텐션이 좀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 영지의 영주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긴장은 분명 있을 거고요.

스미스 그러면 바베큐가 연회장에 들어서기 전에, 내부의 안전을 확인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MC 예리 판정을 하세요.

스미스 (주사위: 2d6+2 = 10) (롤북을 보며) 탈출/침입/우회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것인가? 어느 적이 가장 위험한가?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가? 이거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MC 탈출/침입/우회라. 연회장의 천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 방벽에서부터 지붕들을 타고 와서 연회장으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스미스 헉.

MC 천막을 지지하고 있는 나무 틀을 따라 움직여서 연회석에 앉은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그 전에 눈에 떨 거예요. 연회장에서 탈출하는 길은 들어왔던 길로 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스미스 ‘어느 적이 가장 위험한가?’요.

MC 일단 확실히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지만, 가장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일단 NYPD. 개인으로는 NYPD의 서장, 그룹이 상당히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AK-47 같은 거 들고 있나요?

MC 기관단총을 두 자루, 가슴에 X자로 교차시켜 놔어요.

스미스 그럼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가?’

MC 안전이라는 면에서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올지, 메인 이벤트에 초대될 영주들과 그 수행원들을 다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미스 방을 둘러보고 와서, “저 자리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하고 바베큐에게 제안합니다.

MC 출구에서 가까운 자리인가요?

스미스 네.

혜성단의 퀸

바베큐 스미스는 열심히 생각을 해서 자리를 권했을 텐데, 바베큐는 장내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스미스가 앉으라는 자리 옆에 예쁜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음, 나도 그 자리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네.” (웃음)

MC 그런가요. 그 예쁜 남자는 누구일까요?

효자손 효자손이요! (웃음)

스미스 처음 보는 사람?

MC 음. 그거 좋네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미남이고, 그런데 차림새나 표정이나, 갖고 있는 장비나 무기나, 하나 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죽자켓을 입고 있는데 곳곳에 쇠징이 박혀 있고, 어깨에는 혜성 마크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혜성단의 인물인 거죠!

스미스 그걸 못 봤군요.

MC 방금 들어온 사람이라서 못 봤겠죠.

스미스 “이 자린 안 되겠습니다.”

MC 그렇게 말하려는 찰나, 연회장에 들어오는 휴고,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있다가 따라온 효자손.

바베큐 바베큐는 육중한 몸을 바쁘게 움직여 미남에게 수작을 걸고 있습니다. “멋진 분이시군요. 저는 바베큐 마을에서 음식을 만드는 바베큐라고 합니다. 바베큐 스테이크라고 들어 보셨는지?”

MC “아, 바베큐님이셨군요.” 정중한 말씨입니다. “저는 밀크로드에서 운송업을 하는 퀴이라고 합니다.”

스미스 혜성단 두목! 퀴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가요?

MC 혜성단은 밀크로드 외에서 약탈하는 게 주된 사업이라, 아마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효자손 퀴이라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을까요?

MC 아, 그렇겠죠.

스미스 위험해! 엎드려! (웃음)

MC 이 사람은 왜 초대 받았는지? 퀴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들 움찔움찔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바이커들은 없고, 혼자만 와 있어요.

바베큐 바베큐는 미모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희 영지가 보잘 것 없지만 주민들이 친절하고 먹을 것만큼은 아낌 없이 나눈답니다. 언제 한 번 들려 주시죠.” (웃음)

스미스 스미스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바베큐님.” 그리고 자리를 옮기라고 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아무리 저라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베큐 “아니, 이 분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폐를 끼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악명이 좀 높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굴면 되겠소?” (웃음)

스미스 “여섯 달 전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MC 음. 6개월 전. 가만. 76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여기 와 있지?

바베큐 정말 혼자 왔나 보네요? 휴고랑 관련된 일이 있다고 밖에는...

스미스 “혜성단은 우리 영지의 지척에서 행인을 습격했는데 어찌 우리에게 폐를 안 끼쳤다고 하겠습니까?”

MC 그리고 보니 이 일대에 이름을 붙여야겠네요.

스미스 충주! (웃음)

효자손 충주?

MC 음, 여기 땅이 빨강다고 그랬죠? 노을평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뉴욕도 있고, 바베큐 마을도 있고, 잿더미 부족도 있고...

효자손 밀크로드로 통하는 진입로도 있고.

바베큐 “6개월 전에 습격을 한 게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 않소. 게다가 그혜성단이었다면 아직은 돌아올 때가 아니지 않은가?” 역지를 씩니다.

MC 이 대화를 들었는지, 퀴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미스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녹색이고, 짐승의 갈기 같은 주황색 머리가 등줄기를 타고 늘어져 있습니다. “전에 저희 단과 무슨 마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를 뜨고 나면 저희는 아무 원한도 갖지 않습니다.”

바베큐 그렇겠지. 가해자니까. (웃음)

MC “만나 뵈 적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또 만났을 때 이야기할 일이지,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러시는 것은 시장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덧붙입니다. “혹시 뭔가 결산을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다음에 만나 해결합시다.”

바베큐 긴장해서 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변명합니다. “아니 아니, 이 사람은 하는 일이 경호이다 보니 조심을 하느라 그런 것이지, 특별히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목계 된 숙소는...” (웃음)

스미스 “그런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웃음)

효자손 그리고 그쪽을 쳐다보는 효자손은 “히익”하며 놀랍니다.

MC 아. 밀크로드를 다녀서 아는구나.

효자손 휴고 뒤에 숨습니다. 아니, 숨을 것까진 없냐?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에...” 묻습니다.

MC 휴고가 대답합니다. “아신단 말이오?”

효자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무에와 타이는 어디 갔는가!

MC (웃음) 그 둘은 여기 초대를 못 받아서...

바베큐 사냥단 패거리랑 장터에 놀러 갔겠죠, 아마.

효자손 바베큐한테 다가가요. “아니, 바베큐 선생.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바베큐 “보시다시피 연회에 참석중입니다. 옆에 앉으세요. 허허.” 오른쪽에 킨, 왼쪽에 효자손, 등 뒤에 스미스입니다.

MC 원래 효자손은 여기 앉을 만한 지위는 없는데, 선물에 하도 감동한 나머지 휴고가 초대할 거지요. 아까 박물관에서도 자기가 소장한 물건들을 효자손에게 보여주며 이것저것 묻고 그랬어요.

효자손 효자손은 날카로우면서도 기괴한 안목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다.

MC 휴고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웃음) “오늘 당신이 목을 방은...” (웃음)

스미스 스미스는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킨을 쳐다 봅니다.

MC 사람 읽는 건가요?

스미스 킨은 뭔가 노리고 있는가?

MC 네, 그런 걸 알 수 있죠.

스미스 한 번 해 볼까요... 근데 뭔가 말을 하고 있어야 하는 액션 아닌가요?

MC (롤을 보고) 아, 네, 이걸 대화를 해야 하네요. 그냥 쳐다보는 걸로만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할 듯. 아니, 그렇다면 지금은 바베큐가 할 만한데...

바베큐 바베큐는 지금 긴장감이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 봐야지 하는 마음만...

스미스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MC 네, 이것도 긴장이라면 긴장이라.

바베큐 아, 이 사람을 쫓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단 말이죠? 그 목적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MC 네.

바베큐 저희 영지는 평화롭고 휴고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치안도 좋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쁜 분이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해요.

MC 쿨은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 하는 일 같은 건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일단 판정을 하세요. 예리입니다.

바베큐 (주사위: $2d6+1 = 9$) 9입니다. 예비는 하나 받네요.

MC 대화하는 동안 목록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베큐 이 사람을 꺾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고 싶어요.

MC 열심히 관심사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이쪽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은 하고 있지만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베큐 찻.

MC 여기 온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바베큐는 물론 다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베큐 괜히 혼자서 토라집니다. 아무래도 나한테는 마틸다뿐인가 봐. (웃음)

야밤의 조우

MC 네. 휴고가 연회장의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열댓 명 되는 손님들이 다 착석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짧은 연설을 합니다. “자, 많은 동지들께서 오늘 이렇게 와 주셨소.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들도 많고, 오늘 처음으로 와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분들도 계시오.”

스미스 자리를 빛내고 있는 것은 전구를 두른 휴고.

MC “옛 황금시대가 끝난 지 5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 노을평원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 찬란한 옛 문명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소.” 전구가 빛납니다. (웃음)

효자손 반짝반짝.

MC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앞으로 이룩하지 못할 것이 없소. 이 뉴욕은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오. 오늘은 맛있게 드시고, 잘 노시고, 내일은 돌아가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오.” 휴고의 연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바베큐 침울해져서 연회장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퀴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요. 바베큐가 자는 동안은 스미스도 자야겠죠? 어떻게 되려나요?

MC 스미스는 아마 옆방이나 딸린 방에서 자고 있겠죠?

스미스 네.

MC 그렇게 자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깡니다. 일부러 죽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베큐 오, 예리하다.

스미스 문을 열고 봅니다.

MC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는 퀴의 모습이!

스미스 내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어떻게 할까... 몰래 다가가 뒤에서 총을 들이대겠습니다.

MC 몰래 다가가야 하니 들킬 위험이 있고... 위험 견디기 하죠.

스미스 냉철 판정입니다. (주사위: $2d6+3 = 8$) “버벅거리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주저한 것”이군요.

MC 조용히 다가가서, 마지막 순간에 총을 들이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몸을 뒹 돌리더니 품에 있던 단도를 스미스의 목에 이렇게! 그래서 서로 겨누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바베큐 오, 멋지다.

스미스 “이 교활한 놈.”

MC 퀴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합니다. “잘 들어라. 휴고는 아주 위험한 놈이다. 여기만이 아니라 밀크로드와 그 주변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놈이야.” 그리고는, “휴고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말라고 바베큐에게 전해라” 합니다.

바베큐 척 봐도 허술해 보였구나. (웃음)

스미스 “그거랑, 네가 밤중에 몰래 칼을 품고 우리 영주님의 방에 들어오려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지?”

MC 처음으로 퀴이 당황합니다. “아니, 그 방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인데...” (웃음) “내 목표는 휴고란 말이야!”

스미스 스미스는 믿지 않습니다.

MC 그때, NYPD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무슨 일이요? 복도에서 서로 총칼이라니...”

스미스 이 자가 우리 바베큐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몰래 오는 걸 잡았으니 빨리 체포하라고 합니다.

MC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스미스 “빨리 증원을 데리고 오시오!”

MC 황급히 동료들을 부르러 갑니다. 지금 퀴의 머리에 스미스의 총, 스미스의 목에 퀴의 칼이죠?

스미스 스미스는 일단 NYPD는 자기 편을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퀴는 악명 높은 바이커 패거리의 두목이고, 스미스는 영주의 경호원이니까요.

MC 지금 이게 서로 강압을 하는 상태잖아요? “움직이면 쏜다”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퀴는 NPC니까 PC 액션을 하지는 않지만, 스미스가 강인으로 판정을 해 보죠.

스미스 스미스는 칼날요정 액션 냉혈한 덕분에 강인 대신 냉철이 돼요.

MC 아, 그렇죠. 해 보시죠. 여기서 요구 사항은 순순히 잡혀가라는 것이 되겠고요.

스미스 (주사위: $2d6+3 = 10$) 성공.

MC (잠시 생각) 퀴는 체념한 듯, 단도를 떨어뜨립니다.

스미스 수갑을 채우고 싶은데 없겠죠...

MC NYPD 몇 명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품에서 수갑을, 진짜 반짝거리는 황금시대의 수갑을 꺼내요. 기름종이를 풀고 (웃음) 수갑을 채우고... 도로 풀고, 퀴에게 뒷짐을 지우고,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 함박웃음을 짓더니 퀴를 데리고 갑니다.

바베큐 와, 나 이거 써 봤다, 그러는 건가요. (웃음)

MC 다음 날 아침입니다. 퀴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리고 있던 건지, 여러분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휴고가 공물에 대한 대가로 주는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은 바베큐 마을로 돌아옵니다. 선물은... 여기서는 기계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베큐 무기 같은 건 우리한테는 남은 걸 주고 좋은 건 자기들만 쓰겠죠.

MC 네. 그래서 받는 물건은 무기, 농기구 정도겠네요. 총알 같은 것도.

세션 1 종료

MC 그럼 세션 종료를 하지요. “세션이 끝날 때마다, 전보다 이쪽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를 한 명만 고른다. 그런 캐릭터가 둘 이상이라도 한 명만 임의로 선택한다. 그 플레이어는 이쪽 캐릭터에 대한 Hx를 하나 높인다 (+1Hx를 받는다). 그 결과 Hx+4가 되면 Hx+1로 재설정되고, 이에 따라 경험치 칸도 하나 채워진다.”

스미스 저는 바베큐. 계속 경호했으니까요.

효자손 저도 바베큐. 계속 수행했으니까요.

바베큐 저는 스미스를 고릅니다.

스미스 아, 그럼 저는 이걸로 바베큐에 대한 Hx가 +1로 재설정되고, 경험치 하나 받습니다.

세션 2

같은 곳에서 다시 모인 사람들. 잡담을 잔뜩 하고 시작했지만 지면이 아까워 전부 옮겨 적지는 않는다.

세션 시작

MC (웃으며) 네. 곤드레나물이랑 나폴레옹이 좀 그런 사이죠... 이제 플레이 시작하죠! 지난 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바베큐 퀴이 뉴욕에서 체포되는 데까지.

MC 지난 번 세션을 정리해 놓은 종이를 안 가져왔네요... 괜찮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자손 (독자를 향해) RPG를 하다 보면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주사위 트레이를 안 가져 왔어요.

MC 에? 어떡해요? 오늘 공쳤네요! (웃음)

효자손 역시 RPG를 하다 보면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리플레이를 편집할 때, 이 부분에 작은 박스를 달아 놓고, “RPG를 하다 보면 종종 생기는 일”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처 방안을 달아 놓는 거예요.

MC RPG를 하다 보면 종종 생기는 일: 첫째, 준비물을 안 가져 온다. 해결책: 준비물을 가져 온다.

효자손 둘째, 주사위를 갖고 놀다 떨어뜨린다. 해결책: 주사위를 갖고 놀지 않는다. 이건 “리빙포인트”라고 제목을 붙여도 되겠군요.

MC 지난 번의 재료들을 놓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건 휴고와 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틸다나 무에/타이처럼 PC들에게 딸린 식구들. 그리고... 바베큐의 돌발 행동. (웃음)

바베큐 유능한 칼날요정을 둔 영주가 편한 점은 더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짓을 해도 지켜 준다.

스미스 너무 좋군요.

MC 그리고 퀴이 나오면 밀크로드의 끝이 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념의 소용돌이 관련해서 신경쓰이는 것이, 이게 지나간 황금시대에 대해서 계속 틀린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

효자손 멀치깡.

MC 네, 그런 거. (웃음)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면, 사소한 것 말고 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뉴욕 자체가 사실은 멀치깡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도 강조해 볼 만하고, 왜곡된 역사와 사념의 소용돌이라는 것도 주제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역사는 왜곡된 것이었어!” 같이 깨닫고 마는 건 재미가 없지만, 왜곡되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세션 시작 판정

MC 그럼 시작을 해 보죠. 세션 시작이니까, 제 말 하면 오는 자하고 경제 판정을 합니다.

효자손 기괴 판정이죠. (주사위: $2d6+2 = 11$) 1예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를 쓴 직후 판정에 +1을 받겠네요.

MC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베큐 우리 영지는 어떻게 됐나? (주사위: $2d6+2 = 9$) 부족을 한 가지 골라야 하네요. 실업을 고릅니다. 뉴욕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이, 바베큐 마을은 장터가 안 돌아갑니다. 상인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MC 왜 그럴까? (생각을 한다) 운전수들이 안 오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밀크로드를 통해 와야 할 짐이 안 오는 거죠. 대형 트럭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바베큐 지난 세션에 받은 잉여 바꿈은 누적 안 되죠?

MC 안 됩니다.

룰북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실은 누적이 된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 리플레이에도 나오듯, 어차피 다른 PC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캐릭터가 그 돈을 무기로 삼아 배신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바베큐 그렇구나... 이번에는 2바꿈으로 시작을 해요. 영지에 돌아가면 상인들이 울상을 하고 있겠지. 바베큐 또한 표정이... 아, 이렇게 하죠. 쿨이 체포되자, 바베큐는 어젯밤 자기 방에 칼을 들고 숨어들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새벽부터 뉴욕을 떠나려고 부산을 땁니다.

바베큐 마을을 찾아온 흥사

MC 사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죠. 바칠 것도 바쳤고, 받을 것도 받았고. 그걸 타고 온 트럭에 싣고, 다들 바베큐 마을로 돌아갑니다. 별다른 일 없이 황무지를 건넜는데, 마을 앞에 오자 주민들이 정문 앞에 모여서 영주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베큐 나는 사랑 받는 영주로구나. 역시 집이 좋은 것이야. (웃음) 몸을 일으키고 손을 흔듭니다.

MC 저쪽에서도 마구 손을 흔드는데, 도착하자마자... 주민 대표격인 노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잠시 생각)

스미스 NPC 이름 목록을...

MC 아, 그런 편리한 게 있었죠. (찾아 보고) 자네트입니다. 이 사람은 청과상이고요. 주로 다루는 것은 발굴된 과일 통조림,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사과, 땅에서 캐는 사과입니다.

효자손 땅에서 캐는 사과면... 감자네요.

MC 우리가 보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사과라고 불러요. 이것도 사념의 소용돌이의 조화. (웃음) “영주님, 잘 다녀 오셨습니까?” 자네트가 몇 걸음 앞으로 나오며 허리를 숙입니다.

바베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MC 그런데 표정이 환영하러 나온 얼굴이 아닙니다. 울상이네요.

바베큐 일단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좋은 영주니까. (웃음)

MC “와야 할 차들이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에...” 마틸다가 손으로, 문 옆쪽 구석을 가리킵니다. 낡은 담요에 뭔가가 덮여 있습니다.

스미스 다가가서 담요를 젖혀 봅니다.

MC 상처투성이 시체입니다. 이마에는 조각칼 같은 것으로 해성단의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말로 못할 정도로 망가진 차를 몰고 왔는데, 그 보람도 없이 도착하고 곧 죽었습니다.” 자네트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문 근처에 녹이 잔뜩 슬고 문짝이 없는 차가 한 대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사색이 됩니다. “이게 대체 누구지?”

MC 효자손이 보니, 눈에 익숙니다. 트럭을 모는 밀크로더입니다. 여기보다 좀 더 길 위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여기도 가끔 들러요.

효자손 이름은?

MC 네, 이 사람 이름은...

바베큐 이럴 수가. 이름도 나오는데 시체라니... (웃음)

MC 볼트입니다.

효자손 “이 사람은 트럭 운전자 볼트라고 합니다. 이 근방에도 가끔 들르는 사람이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마의 저것은 혜성단의 마크입니다.”

바베큐 “아니, 어제는 대장이 내 목숨을 노리더니!” (웃음)

스미스 “거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위험한 놈들입니다. 아직 자기들 두목이 잡힌 걸 모르고 날뛰는 모양인데, 조금 있으면 잠잠해 질 것입니다.” 안심시키려 합니다.

바베큐 “잠깐.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오.” 그리고 마틸다를 소리쳐 부릅니다.

MC 마틸다는 마을 방벽 위에서 소총을 든 채로 어슬렁거리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옵니다. 사냥단의 두목인 만큼 무장 상태는 가장 좋습니다. 바베큐가 다가가자 인사를 합니다. “잘 다녀 오셨습니까?”

바베큐 나의 신변이 위험하니 경비를 강화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나가고 싶지 않으니 곁에 있어 달라고 해요. (웃음)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하 하나를 시켜서, 바베큐의 개인 금고에서 2바꿈어치 재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MC 네. 금세 갖고 옵니다.

임무 부여

바베큐 그리고 효자손과 스미스에게 1바꿈씩 주며 말합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이니, 수완이 좋은 두 분이 맡아 주시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나는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으니 안전한 곳에 있겠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MC 그러면 여기서... 현재 문제는 볼트가 여기까지 와서 죽은 것, 트럭들이 오지 않는 것. 두 사건 사이에 아마도 관계가 있겠지요.

바베큐 마틸다는 곁에 두고, 뉴욕에 다녀온 사냥단 부하들에게는 쉬면서 마을을 경비하라고 합니다.

MC 알겠습니다.

효자손 상대가 정말로 혜성단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꿈이 더 있어야 일처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웃음)

바베큐 이건 착수금이고, 일을 마치고 오면 더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스미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선생의 예리한 감각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을 거요. 이번 일도 잘 해결해 주시오.” (웃음)

스미스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베큐 “일단은 우리 마을에 차들이 오게 해야 하지 않겠소.”

스미스 찾아가서 막 패면서 “우리 영지에 물건을 팔란 말이야!” (웃음)

MC 왜 안 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트는 왜 여기로 왔는지, 알아내는 게 순서겠지요.

마틸다의 사각관계

MC 아, 그러고 보니... 마틸다랑은 다들 어떤 사이인가요?

바베큐 일단 바베큐랑은 애인 사이이지만, 바베큐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외세랑 결탁하고 있다거나.

MC 휴고? 어찌면 혜성단?

바베큐 혜성단이라. 그러면 불트가 여기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마틸다한테 죽었을 수도!

MC 고려해 보겠습니다.

스미스 처음에 Hx 설정할 때 얘기한 대로 정말 바베큐가 스미스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면, 마틸다는 거쳐야 하는 중간 보스가 되겠죠, 스미스에게는. 나보다 잘 싸울 것 같은 사람.

MC 마틸다는 스미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스미스 효자손은 마틸다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효자손 효자손은 마틸다의 주치도사입니다.

바베큐 의사 일도 하나요!

효자손 아직은 못 해요. 기계를 고쳐주고, 총기를 고쳐주고...

스미스 앓! 마틸다의 기계팔을 고쳐 준다거나.

MC 마틸다의 기계팔! 마틸다는 한 팔이 기계?

효자손 밤에 은밀하게 기계를 고쳐줍니다. 낮에 드러내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MC 기계수리가 그런 비밀스러운 일인가요?

효자손 기계팔이 사치품이라서 널리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MC 아니면 수리는 그저 핑계일 뿐이기 때문이?

바베큐 그럴 수 있지. (웃음)

MC “아닙니다, 영주님! 저는 그저 팔을 수리하고 있었을 뿐...” “에에이, 듣기 싫다!” (웃음)

바베큐 항상 긴팔 입고 다니려나?

MC 그래서, 효자손과 마틸다는 순전히 기계공과 손님 관계인가요?

효자손 모르겠습니다.

MC 모르지 마세요! (웃음)

효자손 지금 정해야 하나요? (생각) 그냥 가게 주인과 손님입니다.

MC 알겠습니다.

단서를 찾아서

스미스 스미스는 밀크로드와 트러커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효자손 선생이 앞장을 서 달라고 합니다. 계획도 효자손에게 짜라고 해요.

효자손 날더러 다 하라고? 돈도 이것 밖에 안 주고... 아! 효자손은 자기 부하, 무에와 타이에게 다 떠넘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바베큐 하청에 재하청이!

MC 보수는 스미스와 효자손이 다 받고, 개들은 캔 콜라 하나씩...

효자손 트럭의 짐칸에 들어갑니다.

MC 예. 트럭 짐칸에서는 무에/타이 남매가 설비를 손 보고 있습니다.

효자손 둘에게 말합니다. “트러커 파티에 가야겠다.”

바베큐 트러커들의 파티가 있나요!

효자손 트러커 파티라는 것은, 밀크로드 진입로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맥주를 마시고 팔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런 집회입니다.

MC 스모를 하고!

바베큐 터질 것 같은 운전석.

효자손 그렇게 노는 모임이에요. 거기서는 효자손이 아니라 무예와 타이가 트럭의 주인 행세를 해요.

MC 아아.

효자손 왜냐하면 효자손은 씨름도 못하고, 운전도 무예와 타이가 다 하니까요.

MC 씨름만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친목 격투기를 한다거나?

스미스 가시철조망 같은 거 치고요? (웃음)

효자손 가시철조망보다... 트럭으로 둥글게 돌려놓고.

바베큐 트럭으로 돌려싸서 만든 공터라. 멋진데요!

MC 네! 그... 트럭 서클에 모닥불 피우고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바베큐 트럭 위에 올라가서 소리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효자손 밀크로드의 트러커들은 다들 우락부락해서, 그런 곳에서 그렇게 노는 게 문화인 거죠.

MC 그러면 무예와 타이가 효자손으로 통하겠네요? 왜냐하면 차에 기계손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니까요, 그제.

효자손 예, 그렇겠네요.

MC 타이가 묻습니다. “그 동안 파티에는 거의 가지 않으시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효자손 “언제부터인지 우리 마을에 트러커들이 발길을 끊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다.”

MC “언제 출발할까요?”

효자손 “지금.”

MC “저기 스미스 씨도 같이 가시나요?”

효자손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서 스미스더러 들어오라고 합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스미스 “선생만 믿겠소.”

MC 뉴욕에서 돌아온 게 오후쯤. 트러커 파티는 밤에 열립니다.

효자손 네. 가는 길에 스미스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나?

MC 트러커 파티의 첫 번째 규칙은 트러커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 농담입니다. 계속하시죠.

효자손 밀크로드 세계에서는 무에와 타이가 효자손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스미스에게 설명합니다.

MC 무에와 타이는 효자손 남매로 불리려나? 정작 효자손은 전속 정비사로 통하겠군요. 사치스러워라. 밀크로드의 선망을 한 몸에... (웃음)

칩거하는 바베큐

MC 그리고, 다른 RPG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건데요. 여기서는 뇌를 개방하면 사념의 소용돌이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처럼 안전하진 않지만...

바베큐 과연 인터넷은 안전할까! (웃음)

MC 이게 즉흥적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정보를 얻을 방법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걸 항상 가능성으로 생각해 주세요.

바베큐 이런 건 영지에서 놀고 있는 바베큐가 해 볼 만하네요.

MC 그래서 네 사람, 무에와 타이, 효자손과 스미스는 노을평원으로 이어지는 밀크로드의 진입로로 갑니다. 한편 바베큐궁에서는... 바베큐는 이제 영지에 왔으니, 영지 내에서 입는 요리사 옷을 입고 편히 쉬고 있겠죠. 쉬면서 뭘 하나요?

바베큐 보통은 심심하면 공장이나 장터를 시찰하며 고민을 듣거나 하지만, 오늘은 방에 틀어 박혀 있어요.

MC 마틸다가 옆에서 기계팔로 포도를 따서 입에 넣어 줍니다. 지잉지잉 텅텅텅텅. 내연기관이라.

바베큐 “나는 그저 영지를 잘 돌보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 노력할 뿐인데 왜 내 목숨을 노리는 걸까? 제자는 키우고 죽어야 하는데.”

MC 마틸다가 말합니다. “노을평원이 뉴욕 휴고 시장의 깃발 아래 대충 통일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내부에 불만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과 특히 친한 바베큐 마을에도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사냥을 다니다 보면 그런 낌새가 좀 보인답니다.”

바베큐 “뉴욕은 강하고 휴고 시장은 우리에게 친절했으니, 주변에서 평이 좀 안 좋다고 우리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지.” 역시 역점을 두는 것은 제 목숨을 노리고 바베큐 마을을 위협하는 자들을 신속하게 잡는 것입니다.

MC 마틸다는 바베큐의 머리를 빗어주고 포도를 따 먹여 주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도 뉴욕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매번 공물을 바치는 것도 사실은 뼈가 아프고요. 주변에는 우리 먹을 것에 의존하는 영지들도 많으니, 그쪽을 가까이 하면서 뉴욕과 거리를 좀 두고 군사를 늘려야 합니다.” 바베큐 마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력을 주변에 투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베큐 “나는 그저 맛있는 통조림을 만들고 싶을 뿐인데 왜 이리 복잡하지?” 머리를 싸쥐고 말합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복도를 지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뇌를 개방합니다.

MC 네. 처음으로 뇌를 개방했을 때가 특히 중요해요.

바베큐 설정상 전에 해 봤다는 건 상관안 없지요?

MC 네. 플레이에서 처음이기만 하면 . 무엇이 보이고 기분이 어떤가요?

바베큐 바베큐에게 사념의 소용돌이는 오색 안개가 자욱하고, 거기에 물방울이나 투명한 통조림 같은 것이 둥둥 떠 다녀요. 정보는 그 안에서 나옵니다. 쪽지라거나, 사람 얼굴이라거나.

MC 그보다는 좀 더 종말에 걸맞은 모양이 좋겠네요. 제가 좀 더 추가를 해 볼게요. 기본 틀은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 . . 마치 비누방울이 터지기 직전에 회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색이 빠집니다.

바베큐 그리고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MC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그을리고 남아 보이게 됩니다. 오래 있을 수록 그래요. 음식이 타고, 얼굴이 늙고, 뼈가 되고 . . . 그것의 반복이에요.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 싶겠네요.

바베큐 기괴 판정이지요? (주사위: $2d6+0 = 9$)

MC 들어왔습니다. 소용돌이의 현란한 풍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노을평원인 것은 알겠습니다. 평원의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면서 색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좁혀지느냐 하면 . . . 모든 것이 타 버리고 바베큐 마을만 남은 상태에서 불이 꺼집니다.

바베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얼른 뇌를 닫-

MC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바베큐 마을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아요.

바베큐 흐이! 얼른 닫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요양중이라고 써 붙여요.

야밤의 트러커 파티

MC 지금은 한밤중, 트러커 파티입니다. 각양각색의 트럭들이 둥글게 모여서 원을 만들고 있고, 늦게 온 차들이 또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모닥불의 빛이 트럭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트러커들은 하나 같이 덩치가 커요. 체격이 좋든지, 키가 크든지...

효자손 배포가 크든지... (웃음)

MC 배포가 아니라 배가 크든지! 아무튼 뭔가는 큼니다.

스미스 머리가 크든지.

MC 원 안에서는 아코디온 소리, 바람 새는 아코디온 소리가 들립니다.

효자손 탭댄스라도 추고 있나?

MC 그리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와 토하는 소리와 뭔가 마시는 소리와 뭔가 쏟는 소리와 뭔가 먹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다가 가자 벌써 누군가가 무에와 타이틀 알아 봅니다. 수염이 길고 머리에 반다나를 묶은 사람이예요.

효자손 효자손은 몸을 움츠리고 세 사람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골룸!

바베큐 스미스는 잘생겼으니 시선을 받겠지.

스미스 저는 안 어울리는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MC 런웨이의 모델처럼 걸어가나요. 수염 반다나가 말합니다. “잠깐. 여기는 트러커만이 올 수 있다. 너희는 어느 차에서 왔나?”

효자손 무에와 타이가 나서겠네요. 정해진 말이 있겠죠?

MC 네. 무에와 타이는 앞으로 걸어가서 모닥불의 빛이 자기들 얼굴에 비치게 하고, “당신은 두부배달부 헤라클레스가 아닌가. 우리는 하이웨이의 하이어나, 효자손 남매다.” (웃음) “내가 무에, 재가 타이지.” 헤라클레스가 대답합니다. “오, 그래? 차에서 내려서 만나는 건 이게 처음이군. 당신들은 파티에 거의 안 오는 모양인데... 저 뒤에 있는 ‘지상인들’은 왜 우리들의 모임에 데려왔는가?” 무에와 타이에게는 어떻게 말하라고 시켰나요?

효자손 저 펜싱 선수... (웃음) 얼굴을 가린 자는 심부름꾼이라 항상 데리고 다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러 했어요.

MC 미리 시킨 대로, 타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스미스를 가리키며 “그럼 저쪽의 저거는?” 하고 묻습니다. (웃음)

효자손 뭐라고 짚을까?

스미스 스미스가 그냥 눈으로 압도... 눈썹으로 압도해야겠네요.

MC 눈썹이요?

스미스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웃음)

효자손 칼날요정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나요!

MC 근데 지금 스미스가 보유한 칼날요정 액션들이 전부 전투용이라...

스미스 강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MC 에에... 가능한 해요, 가능한 한데... 이거 총 들이대고 협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스미스 아니,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될 줄은 알았을 테니까, 스미스에 대해서도 미리 서로 말을 맞춰 놓았을 것 같아요.

바베큐 화물 물주다?

효자손 화물이다? (웃음)

MC 아, 그러면 승객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스미스 승객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죠.

효자손 “화물이오” 하고 무에가 말하겠죠.

MC 그러자 헤라클레스가 답합니다. “짐짝은 우리의 신성한 원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서 옆에 세워 놓은 쇠막대기에 눈길을 돌립니다.

스미스 무에와 타이는요?

MC 헤라클레스의 위세에 놀려 잠깐 주춤합니다.

스미스 나는 들어가야겠다는 눈치를 무에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효자손 헤라클레스의 덩치를 봅니다.

MC 에... 커요. 소시적에 방사능 좀 쪼였을 것 같이 큼니다. (웃음)

효자손 무에와 타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힘으로 밀어 붙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MC 무에와 타이가 매우 곤란하다는 눈으로 쳐다 봅니다.

스미스 악덕 고용주.

효자손 무에와 타이가 어떻게든 말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많은 돈을 준 사람인데 어떻게 안 되겠소?”

MC 보통 이런 건 한 1바꿈 던져 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되긴 돼요. 뇌물 관련 액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조건을 내걸고 1바꿈을 주면 상대를 조종하려는 판정에 10+가 나온 것처럼 한다. 주사위는 굴리지 않아도 된다.”

효자손 앗, 조종도 해 볼 수 있겠네요?

MC 네.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를 헤라클레스에게 제시해야죠.

바베큐 대화하면서 사람을 읽으면... 이 사람이 날 통과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MC 가능하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강압도 되고요: “이 자식! 날 들여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어!” 옵션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이 머뭇거리자 “뭐 하고 있어? 짐작은 짐칸에!” 하고 외칩니다.

바베큐 놀라운 소식으로 혼을 빼 놓는다?

스미스 무에와 타이가 스미스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혜성단의 쿼를 잡아 넣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나?” 하면...

바베큐 “뭐라고? 쿼가 잡혔어?” 하고 반응할지도.

효자손 아니, 스미스를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쿼가 잡혔다고만 얘기하도록 무에와 타이에게 귀뜸합니다.

MC 헤라클레스는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쿼? 어찌다가?”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그래, 통과!” 이걸 좀 이상하죠.

바베큐 소식을 전하러 안에 들어간다면 그 틈을 타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봐, 이봐들! 큰일 났어!”

MC 하지만 그러면 내부 분위기가 싹 바뀌겠지요.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염탐을 하고 정보를 모은다는 목적에는 안 맞을 거예요. 그래도 정보를 못 얻을 건 아니니,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고요.

효자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MC 헤라클레스가 연달아 묻습니다. “아니, 어찌다가, 어디서, 누구한테?”

효자손 뉴욕에서 휴고에게 초대되었다가 그 안에서 체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MC 헤라클레스는 그러냐,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몸을 돌려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봐 다들, 빅뉴스야 빅뉴스!”

잠입

스미스 그럼 우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MC 바로 헤라클레스 뒤를 따라 가긴 뭐하고, 그 옆의 틈새로 갈 수 있습니다.

효자손 먼저 들어가요. 효자손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MC 헤라클레스는 쌓아 놓은 상자를 밟고 어느 트럭 위로 올라가 발을 구릅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나고, 모두가 주의를 돌립니다. “해성단의 퀴이 뉴욕에서 잡혔다는데!” 그러자 다들 웅성거립니다. “뭐라고?” “어찌다가?” “왜?” 같은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효자손 근데 왜 잡혔는지는 얘기를 안 했죠? 칼을 들고 밤중에 어슬렁거리다가 잡혔다는 말은.

MC 네.

효자손 하지만 초대되었다가 잡혔다고 했으니, 마치 비열한 휴고가 퀴을 거짓으로 초대해서 붙잡은 것 같이 들렸겠군요. (웃음)

MC 헤라클레스도 그런 식으로 모두에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 트러커들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소수의 한 무리... 다섯 명 정도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자기 트럭으로 향합니다. 다른 자들은 모두 화를 내고 휴고를 성토했습니다. 지상인 나부랭이가 감히 밀크로더를 구속하다니, 하고요.

트러커를 심문하는 스미스

스미스 좀 덩치가 작은 트러커를 하나 붙잡고 묻습니다. “지금 서둘러 나가는 놈들은 뭐지?”

MC 스미스를 쳐다 보다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떠나는 거겠지?”

스미스 고개를 끄덕이고 다섯 명 중 하나를 뒤쫓습니다.

MC 지금 쫓아가는 대상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요?

스미스 다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웃음) 가장 빨리 걷는 사람을 따라 간다고 하지요.

MC 네. 이 사람은 비쩍 말랐고, 키가 장대 같고, 목과 손목과 발목에 가시가 돋은 가죽테를 두르고 있습니다. 허리띠에도.

스미스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잠깐!”

MC 뭐야, 이놈. 하는 눈으로 쳐다 봅니다.

스미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 (웃음)

MC 위아래로 훑어 봅니다.

스미스 네. “여기는 트러커들이 쉬는 곳이 아닌가.”

MC “실 만큼 쉬었으니까 가는 거지. 보아하니 지상인데, 왜 나한테 들러 붙어서 이래? 비키지 못해?” 손으로 밀치려고 합니다.

스미스 밀쳐지지 않습니다!

MC 위험 견디기 해 보시죠.

스미스 냉철이죠? (2d6+3 = 13) 피합니다. 그리고 그 팔을 잡아서 뒤로 꺾고 충을 들이대요. 가능한가요?

MC 네. 이 상황이라면 못할 것 없습니다.

스미스 주변에 사람 없지요?

MC 네. 지금은 트럭의 그림자예요.

스미스 “퀸이 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더군. 누구에게 알려려는 거지?”

MC “아, 아, 놓고 얘기해, 놓고 얘기해!”

스미스 총구로 뒤통수를 누릅니다. “당장 말해!” 강압을 합니다. 냉혈한 덕분에 냉철이죠. (주사위: 2d6+3 = 11)

MC 오늘 주사위 운이... 게다가 지금 냉혈이 관심 특성치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경험치 받네요.

스미스 그렇지요. (강압의 룰을 읽는다)

강압: 누군가를 무력으로 강압하면 강인 판정을 한다. 10+이면 상대는 반항하여 이쪽이 손을 쓰게 만들거나, 강압에 굴해서 이쪽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7~9이면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다음 중에서 골라도 된다:

- 바로 비킨다.
- 나름 안전한 곳에 틀어박힌다.
- 이쪽이 좋아할 듯한 것을 준다.
- 손을 들고 천천히, 차분히 물러난다.
- 이쪽이 알고 싶어할 듯한 정보를 주거나, 듣고 싶어할 듯한 말을 한다.

효자손 어, 10+가 나와도 시키는 걸 거부할 수 있네요?

MC 네. 원하면 그냥 총 맞아도 돼요. 당하는 쪽에도 그 옵션은 있습니다. 하지만 NPC는 총 맞으면 여간해선 살기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강압을 한 쪽이 피해를 안 주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애가 여기서 버티다가 총을 맞으면,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만요.

바베큐 엄청나게 강력한 충성심이 있거나. 아주 독하게 입막음을 당했거나.

스미스 누군가를 아주 두려워하거나.

MC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말할게, 놔줘!”

스미스 “대답이 먼저다.” (웃음)

MC 고통에 일그러진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 근방에 혜성단의 야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혜성단의 친구래요.

스미스 “혜성단의 친구라니 잘 됐다. 오늘 아침 바베큐 마을에 혜성단 마크가 새겨진 볼트라는 트러커가 와서 죽었는데 말이야.”

MC “볼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난 몰라! 모르는 일이야! 총 좀 치워, 치워 줘!”

스미스 “거짓말.” 왜 그랬어! (웃음)

바베큐 정말로 모르나?

MC 징징 울기만 하는 게, 더 대답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스미스 “넌 이름이 뭐냐.”

MC 이름이 뭘까요?
 스피스 (NPC 이름 목록을 보고) 머서라고 하죠.
 MC 네. 그렇다네요. 원래 자기 이 동네엔 잘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스피스 팔을 풀어 주고 엉덩이를 걷어칩니다.
 MC 머서는 자기 트럭에 황급히 올라, 시동을 걸고 차를 뺍니다.
 스피스 가라고 내버려 두고 효자손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잡혀 가는 효자손

효자손 저는 저대로, 가까운 트러커에게 볼트가 죽은 걸 아느냐고 묻습니다.
 MC 이 사람은 몰랐던 듯한데, 볼트가 누군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볼트? 볼트가 왜? 왜 죽었어?”
 효자손 “중상을 입고 바베큐 마을 근처까지 왔다가 죽었어.”
 MC “그래?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썸통이다. 쥐새끼는 쥐처럼 죽어야지.”
 효자손 “무슨 애긴데?”
 MC “지상인 영주한테 밀크로드의 비밀을 팔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효자손 “비밀? 무슨 비밀?”
 MC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밀크로드의 끝. 그거 말고 무슨 비밀이 있겠어.” 뭔가 더 아는 게 있어 보이지만, 효자손을 바라보는 눈에 의심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더 파나요? 하려면 사람 읽기가 됩니다.
 효자손 네, 캐묻습니다! (주사위: 2d6+2 = 6) 어이쿠. 못 읽네요.
 MC 네. 못 읽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너무 집요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효자손의 입과 코를 틀어 막습니다. 무애와 타이는 저쪽에서 예쁜 여자애들과 얘기하고 있고...
 효자손 저 가면 쓰고 있는데!
 MC 예? 아, 펜싱 마스크... 그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효자손 버둥버둥댁니다. 하지만 신체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겠죠.

MC 스미스가 돌아와 보니, 무에와 타이가 두리번거리며, 우리 사장님을 못 보았느냐고 물어요.

스미스 “나도 여기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어디 갔지?” 주변에 더 물어 봅니다. 철망으로 된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을 못 봤는지요.

MC 고개를 도리도리 젓습니다.

스미스 두세 사람 더 붙잡고 물어 볼게요.

MC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밀크로더들의 파티는 천천히 파장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스미스 “어떻게 된 거야?” 무에와 타이를 책망의 눈으로 쳐다 봅니다. (웃음)

혜성단, 바베큐 마을에 오다

MC 네, 한편 바베큐 마을에서는.

바베큐 네.

MC 아까 뇌를 개방했을 때, 노을평원이 멸망하는 것 같은 환영을 본 것 같습니다.

바베큐 베개를 끌어 안고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깐 고개를 내밀고 복도를 봤는데, 마틸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MC 없나요?

바베큐 문 뒤에 있을 지도요. (웃음) “마틸다! 마틸다!”하고 불러 봅니다.

MC 어디 있었는지 마틸다가 들어옵니다. “바베큐님, 큰일입니다!”

바베큐 평소였다면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부르라 그랬잖아” 하고 눈웃음을 칠 테지만 (웃음) 지금은 그럴 경향이 아니에요. “뭔데? 뭔데?”

MC “영지 밖을 오토바이 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베큐 “뭐? 정문 닫으라고 해!”

MC 명령을 내리고 창 밖을 내다 보니, 과연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붉은 흙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바베큐 그러면 우리 영지에서 제일 높은, 저택의 전망대에 오릅니다. 거기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요.

MC 네. 망원경에 옛 황금시대의 동전을 넣고! (웃음)

바베큐 봅니다.

MC 선두에는 작은 지프차 같은 것 위에,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땀은 건장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바베큐 남자인가요?

MC 지금 보기는 그런데, 여자일 수도 있겠어요. 전체의 수는 족히 백에 달할 것 같습니다. 선두에서 날리는 깃발에는 해성 마크가!

바베큐 영지 문이 잘 닫히고 있나요?

MC 네. 문이 잘 닫히고는 있는데, 방벽 위에서 개폐용 도르래를 돌리고 있던 주민이 비명을 지르며 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으아아아~” 화살에 맞은 듯합니다.

바베큐 “빨리, 누구든 올라가서 마저 닫아!”

MC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오토바이 갯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뉴욕으로 간다. 다음은 너희 차례이니 양전히 기다리고 있거라.” 몇 번 반복됩니다.

바베큐 내려가서 마을에 방송을 합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은 공장으로 대피하시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총이든 활이든 들고 성벽으로!”

효자손 우리는 성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울타리 같은 건가요?

MC 아니, 여기는 상당히 튼튼해요. 정말로 성벽이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는 콘크리트 담장입니다. 바베큐가 캐릭터 만들 때 그렇게 설정했어요. 여길 방어할 때는 패거리가 +2장갑을 받지요. 여하튼, 마틸다는 명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감금된 효자손

MC 한편 효자손은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캄캄합니다. 좁고 어두운 방인지, 트럭의 짐칸인지, 여하튼 그 비슷한 느낌입니다.

효자손 사방을 더듬어 봅니다.

MC 팔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묶여 있습니다.

효자손 울어요. 엉엉엉. (웃음)

MC 그러자 안에 불이 켜지고, “조용히 못 할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효자손 “살려주세요.” 불이 켜졌으면 주변이 보이겠군요. 보이는 것은?

MC 방금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묻습니다. “너 아까 퀴이 잡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지? 직접 봤나?”

효자손 그렇다고 말합니다.

스미스 현장은 못 보지 않았나요?

MC 그때 좀 소란스러웠다면 다들 나와서 봤을지도 몰라요. 그랬다고 하죠. 헤라클레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넌 뉴욕에 있었냐, 그때?”

효자손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에랑 타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웃음)
우리도 휴고 시장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 있었다고 합니다.

MC “그럼 너희는 그 자와 초청을 주고 받는 사이라는 말이군? 너는 정체가 다 파악될 때까지 여기 좀 있어줘야겠다.”

효자손 “아아... 손이 아파요.” 울먹입니다. (웃음)

효자손을 찾는 스미스

MC 파티 현장에서는 이제 트럭들이 다 떠나가고, 무에와 타이, 그리고 스미스만 남았습니다. 온갖 쓰레기, 타다 남은 장작, 매연 냄새만 날 뿐.

스미스 무에와 타이는 “만세, 드디어 자유다! 그간 너무 힘들었어!” 하나요. (웃음)

MC 아닙니다. (웃음) 무에와 타이는 애타게 사장님을 부르짖어요.

스미스 여기 담당자 같은 거 없지요?

MC 없지요.

바베큐 그것은 지상인의 사고방식.

스미스 그럼 여기 더 있어 봤자 소용이 없겠군요.

MC “하지만 이 근처 덩불 같은 곳에 시체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무에가 말합니다. (웃음) 타이가 소리칩니다. “어이, 여기 팔 한 짝을 찾았어!” 무에가 달려갑니다. “이건 사장님 팔이 아닌데?” (웃음)

바베큐 그건 뭐야, 도대체!

효자손 팔 같은 게 찾아지기는 하네요?

MC 색 바랜 마네킹 팔입니다.

스미스 어떻게 하지. 영지로 일단 돌아갈까?

효자손 “보고 드립니다. 효자손이 실종되었습니다.” (웃음)

스미스 “적들은 우리 상상보다 더 거대한...” (웃음)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상황 읽기 같은 걸 할까요?

MC 가능하죠.

스미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주사위를 집어든다)

MC 아, 잠깐만요. 지금은 긴장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맥이 빠지는 상황이라... 별로 파악할 게 없지 않을까 싶네요.

바베큐 지금이 긴장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MC 여기서 말하는 긴장된 상황은 적과 대치하고 있거나, 누가 잔뜩 경계하고 있거나, 이런 건데, 왔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바베큐 텐션이 풀린 거군요.

MC 그래서 상황 파악에 나오는 질문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스미스 그럼 뇌 개방? 이거 제가 하면 위험한데요... 기괴가 낮아서요. 하지만 이거 성공하면 대화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효자손 뇌카오희! (웃음)

MC 가능한 할 텐데,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요. 일단 여기서 효자손으로 전환을 할게요. 그쪽에서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

대탈출

효자손 저는 뇌 개방을 하고 싶어요.

MC 예. 뇌를 엽니다! 좌악! 이번 플레이에서 효자손이 뇌 개방을 한 건 처음이죠? 설정상으로는 전에 해 봤더라도요. 어떤 기분인가요?

효자손 전파가 잡히지 않는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이 나옵니다. (웃음) 그러면서 화면이 번뜩번뜩 스쳐 지나가요.

MC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잡다하게 지나갑니다. 별판에서 비쩍 말라 죽어가는 개, 눈 셋 달린 개구리, 이런 것들이 죽 지나가다가 영상이 어느 하나로 고정됩니다. 그 화면에는 바깥의 풍경이 보여요. 오토바이들이 잔뜩 있고, 지금 효자손이 잡혀 있는 트럭도 보입니다.

효자손 트럭이군요. 달리고 있나요?

MC 아뇨. 아까 정신을 차린 뒤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깃발 여러 장이 나부끼고 있고, 전부 다 혜성 깃발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그 중 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어요. 혜성단은 다들 검은 색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만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긴 금발을 둘로 땀겼고요.

효자손 잠깐만요. 긴 금발, 빨간 망토? 혹시 망치도? (웃음) ‘아이쿠, 내가 지 금 혜성단의 심장부에 들어왔구나. 탈출해야 해’ 하고 생각합니다. (맥가이버 주제곡을 흥얼거린다)

MC 아아, 그러게요? 기계도사라면 그런 거 할 만하죠? 지금 그거 쓰실래 요? 제 말 하면 오는 자로 벌어 놓은 예비요. 그제 장소 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걸 쓰면 여기 탈출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게 됩니다.

효자손 아무도 여기 있는 물건들로 탈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겠지 만!

바베큐 왜 주인공들은 맨날 모든 게 갖춰진 곳에 갇히나 했더니, 적이 잘못 가둔 게 아니라 그제 주인공의 능력이었던 것이군!

효자손 적절한 곳에 갇히는 능력.

MC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효자손 우선 묶인 손을 풀어줄 만한 것을 만듭니다.

MC (인터넷에서 맥가이버 주제곡을 검색해서 듣다) 아, 80년대...

효자손 근데 뭐가 있을까요. 면도칼? 손이 묶여서...

MC 소매 속에서 공구가 튀어나온다고 할 수도 있죠. 숨겨 놓은 총 튀어나 오는 그런 식으로요.

효자손 정말요!

바베큐 팔목 장착형 공구통?

MC 안 될 건 없죠.

효자손 손톱 밑에서 칼이 튀어 나온다거나!

MC 이게 뭐... 효자손도 마틸다처럼 팔이 기계팔이었다거나? 그런 설 정을 지금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효자손 음... 손에서 면도칼이 나옵니다. 마치 마술처럼, 주먹을 쥐었다 펴 니까 손바닥에 칼이 있어요. (웃음) 쓱싹쓱싹.

MC 그것으로, 만들어진지 50년이 넘었을 것 같은 밧줄을 자릅니다.

효자손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들로 폭발물을 만들게요.

MC 뭐가 있으면 될까요?

스미스 에어 콤프레서?

MC (잠시 생각) 폭발물까지는 아니고, 트럭의 벽을 찢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건 있습니다. 음. 에어 콤프레서가 있다고 하죠.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효자손 그리고 무기.

MC 전에 영화 보니까 압축 공기도 무기던데요. (웃음)

스미스 이마에 구멍도 뚫고, 잠긴 문도 열고.

효자손 화염병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MC 일단 빈 병도 있고, 옆에 경유통도 있습니다.

효자손 휘발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MC 경유를 증류하나요! (웃음) 트럭의 연료통에서 뽑는다거나,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서 가져 온다거나 할 수 있겠죠.

효자손 그냥 경유로 만듭니다. 마른 걸레를 깨끗이... 두어 개.

스미스 방금 자른 밧줄 가닥을 풀어서?

MC 그것도 좋네요.

효자손 놓여 있던 크로우바... 쇠지레를 잡고, 압축 공기를 터뜨려서 벽을 뚫습니다. 평 하는 소리와 함께!

MC 평 소리와 함께 차벽이 날아가고, 벽에 기대어 있던 바이커의 머리도 날아갑니다. 머리 없는 시체가 팔을 휘젓더니 쓰러집니다. 밖은 동이 터 오고 있어요.

효자손 시끄러워지나요? 화염병에 불을 붙이고 적당한 곳에 던집니다.

MC 화염병이 무엇에 맞았는지 큰 폭발이 일어나고 바이커 몇 명이 날아갑니다.

효자손 폭발을 등지고 유유히 걸어나가고 싶군요. 압축 공기통을 들고서. (웃음)

MC 이거 GTA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인데. (웃음)

효자손 주인 없이 세워진 오토바이를 향해 갑니다!

MC 네. 한 대 있기는 한데, 오토바이 근처의 한 놈이 이쪽을 보고 외칩니다. “저, 저놈!” 총을 뽑아들려 합니다!

효자손 화염병을 높이 들고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으름장을 놓습니다.

MC 이거... 자기 몸까지 말려드는 강압인가?... 저쪽도 제압된 상태는 아니라 좀 애매하지만요. 일단 강인 판정을 하지요.

판정 기준을 가끔씩 잘못 잡는다고 플레이를 망치지 않는 다. 불확실하면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정하고, 나중에 그 판 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고쳐도 늦지 않다.

효자손 강인으로 해야 하나요? 좀 높은 걸로 판정할 액션은 없나... 기괴한 춤을 출까요? (웃음) “다 죽는 거야!” 이 판정에는 제 말 하면 오는 자 때문에 +1이 붙어요. (주사위: $2d6+1 = 4$) 으아!

MC 바이커가 총을 뽑아 들더니 정확하게 화염병을 맞춥니다. 몸에 기름 이 쏟아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효자손 으아! 구릅니다.

MC 일단 피해를 좀 입으세요. 급조한 화염병이고 휘발유도 아니니 대 단히 셀 건 없다고 치고... 2점 입는다고 하죠. 두 칸을 채우세요. 12~3하고 3~6을 채우면 됩니다. 피해 액션을 하시죠.

효자손 ($2d6+2 = 5$) 그 밖에는 아무 일 없지요? (안도의 한숨)

MC (잠시 생각하다가) 네. 딱히 없습니다.

스미스 하지만 구르는 동안 잡히겠죠?

MC 그렇겠죠. 한편!

지난 밤으로 돌아가서

MC (스미스를 보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과거입니다. 무에와 타이는 매우 곤란해 하고 있어요. “어찌지, 어찌지! 사장님이 없어, 우린 어찌 지!”

스미스 어찌지.

MC 무에와 타이는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똑같고, 생긴 것도 전보다 더 비슷해진 것 같고...

효자손 전보다요?

MC 전보다.

효자손 잉?

스미스 이렇게 된 이상... 지금 트럭은 안 남은 거죠?

MC 효자손의 트럭이 있죠.

스미스 그거 빼면 없죠?

MC 네. 지평선을 향해 가는 마지막 트럭이 아직 보이긴 해요.

스미스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영지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왜 밀크로드의 트러커들이 영지에 오지 않는가, 그리고 혜성단이 왜 바베큐 마을에 협박을 하는지 알아내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퀸이 체포됐다는 소문을 전했더니 사방이 어수선해지고, 별로 얻은 정보는 없는 데다가, 효자손은 실종됐다.

효자손 망했네. (웃음)

스미스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효자손을 찾아 내거나, 효자손은 내버려두고 본래의 임무를 속행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서 실패했다고 한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효자손 환불해 준다. (웃음)

스미스 그럼 주변에는 사람도 무에와 타이 밖에 없지요?

MC 예. 둘은 서로 쳐다보고 매우 당황해 하며 “어... 어...” 하는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바베큐 애들은 조수 근성이 있구나.

스미스 “진정해!” 둘의 뺨을 철썩철썩 때립니다. 그리고 저기 가는 마지막 트럭을 따라가자고 해요.

MC “하지만 쫓아가는 거는... 쫓아갈 수 있나? 쫓아가도 되나? 왜 쫓아오냐고 하면 어떡하죠?” 둘이 곤란해합니다.

스미스 “나머진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흰 쫓아가기만 해.”

MC 무에가 앞에 탑니다. 스미스는 운전석 옆자리에 타나요? 아니면 뒤에 타나요? 뒤에는 차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바베큐 원래는 깃발잡이 자리지만.

스미스 뒤에 탑니다.

MC 타이가 조수석에 탑니다.

스미스 트럭들은 밀크로드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지상으로 가나요?

MC 지상으로 가는 차들이 꽤 됩니다. 흙먼지가 지평선까지 일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무에와 타이는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미스 “평소에 하는 거잖아!” 제일 뒤의 트럭을 쫓아갑니다.

MC 저 트럭의 뒷발잡이가 이쪽을 눈치챈다. 그리고 마구 뒷발을 휘젓는데...

스미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MC 네. 무에와 타이도 뒷발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뒷발을 내리고 쌍권총을 꺼내서 이쪽을 겨누네요.

효자손 와, 성룡 영화 같은 상황이.

스미스 성룡 영화 같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MC 누가 성룡이냐에 따라...

바베큐 아냐, 양쪽 다 곤란해요. (웃음)

스미스 둘 다 불쌍사나운 꼴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MC 주성치인 것보다 낫지 않을까. (웃음)

스미스 여하튼, 권총을 꺼내 드는 거죠?

MC 네. 그리고 운전석에다 대고 쏩니다. 탕탕탕탕탕.

스미스 으아아아!

MC 순간 공중에 피냄새가 퍼집니다. 무에가 외칩니다. “타이가 맞았어요!”

스미스 트럭 타이어를 쏜 것인가 사람을 쏜 것인가... 권총으로 이런 대형차 타이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총 든 뒷발잡이를 쏩니다.

MC 양쪽 다 무장한 상태고 전투 태세라, 이건 힘으로 빼앗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빼앗느냐? 목숨을 빼앗습니다. (웃음)

효자손 정말 룰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마음껏...

MC 네. 물론 판정에 성공을 해도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피해를 줄 뿐이지만요. 강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강압은 “너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총 맞을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 총 맞을래 아니면 총 맞을래?”로 할 수 있어요.

스미스 판정은 강인이죠?

MC 네.

스미스 강압에는 강한데 싸움에는 약한 칼날요정. (주사위: $2d6+1 = 7$) “큰 피해를 가한다”와 “피해를 덜 입는다”. 이거 두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MC 여기서 큰 피해를 가하는 것은 +1피해, 덜 입는 것은 -1피해입니다.

스미스 제 권총은 2 피해를 주는데 무자비로 +1, 큰 피해니까 +1. 철갑탄이라 장갑이 무효고요.

MC 깃발잡이의 권총은 피해를 덜 줘서 스미스에게 1피해. 이놈은 구멍이 뚫려 죽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떨어져요.

바베큐 깃발과 함께 떨어지겠네.

MC 네. 떨어지는 동안 피가 흩뿌려지고, 허리춤에 꽂은 붉고 푸른 깃발이 나부깁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스미스 1피해 입었으니 피해 액션을 하시죠.

스미스 ($2d6+2 = 6$) 아무 일 없지요?

MC 네. 제가 뭔가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피해가 1 줄어들어요. 그냥 피해를 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효자손 깃발 없는 트럭은 어떻게 되나요?

바베큐 가는 곳마다 이런 꼴을 당할까! (웃음)

MC 일단 굉장히 무시 당할 것 같아요. 밀크로드에서는. 하지만 여기는 지상이니까 그런 규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깃발잡이가 떨어지자 저쪽 트럭의 운전이 달라집니다. 트럭을 옆으로 틀어서 T자 충돌을 유도하려고 해요. 길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좀 거리가 된다면 우회할 수 있는데, 이미 상당히 가까워서 이대로 가면 부딪칩니다.

스미스 영화 액션을 할 때가! 저쪽 트럭으로 옮겨 타서 운전수를...

MC 오오. 하나요?

스미스 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MC 네. 저쪽 트럭이 급선회를 합니다. 저 트럭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무에도 따라서 핸들을 틀어 저쪽 트럭과 평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딪칠락 말락하는 순간, 점프할 기회는 지금!

스미스 칼을 뽑아들고 점프!

MC 위험 견디기입니다. 여기서 위험은... 뭐,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스미스 냉철 판정을 합니다. (주사위: $2d6+3 = 9$) 으음.

MC (잠시 생각을 한다) 점프를 해서 상대 트럭의 지붕 가장자리에 간신히 매달립니다. 그러느라 트럭과 트럭 사이로 칼이 떨어집니다. 운전수가 이쪽을 돌아보더니 뭔가를 주섬주섬 챙기는 것 같습니다.

스미스 재빨리 운전석으로 이동합니다. 문을 열거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MC 일단 운전석까지 이동! 그 자체도 좀 위험해요. 위험 견디기.

스미스 냉철 판정합니다. (주사위: $2d6+3 = 12$) 문을 열어요!

MC 문을 열자 운전수가 이쪽에 총을 막 꺼낸 순간입니다. 일단은 스미스가 빨라요!

스미스 먼저 쏩니다.

MC 쏘나요! 저쪽은 간발의 차이로 대항 못하는 상황이라, 이진 강압으로 하셔도 됩니다.

스미스 네. (주사위: $2d6+3 = 10$)

MC 상대는 피를 뿌리며 조수석쪽으로 쓰러집니다... 스미스 운전할 줄 아나요?

스미스 트럭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차량이니 모르겠죠.

MC 트럭은 아직 회전중! 운전수는 죽었고! 운전석에는 운전 못하는 사람이! (웃음)

스미스 다시 뛰어내릴까요?

MC 그런데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뭐죠? 운전수에게 정보를 얻으려는 거 아니었나요?

바베큐 (웃음) 그런데 다 죽여 버렸어!

효자손 무자비, 냉혈. (웃음)

스미스 쓰러져 죽어가는 놈을 붙잡고 정보를 얻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 당장 죽은 건 아니고.

MC 그림은 나오네요. 그렇게 하죠. 운전수를?

스미스 네.

MC NPC가 3피해를 입는 건 상당한 거라...

스미스 죽어갈 때 최후의 말 같은 거 남긴다고 하면 되겠네요.

MC 그런데 영화 같은데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왜들 갑자기 입이 가버
워지는 건지? 죽게 되면 자기 죽인 놈한테 다 털어 놓고. 잠시만요, 3
피해면... “심각한 부상. 치명적.” 곧 죽습니다. 아까 떨어진 개는 그
냥 죽었고요. 하지만 지금 차가 뒤집어지거나 하면 이 사람 그냥 죽습
니다.

스미스 브레이크를 밟고 봅시다. 조종 안 되나! 조종! (웃음)

MC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 위험 견디기까지 할 건 없지 않을까... 여
기서 최대한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다들 폭발.

MC 아, 예. 그렇네요. 위험 견디기 하죠. 쌓여가는 경험치.

스미스 아, 경험치 체크 안 했네요. 얼마나 쌓인 거지...

MC 일단은 판정을 하시죠.

스미스 (주사위: $2d6+3 = 12$)

MC +3이 좋네요. 3 이하만 안 나오면 7 이상이라... 끼익하는 괴음과
함께 엄청난 가속도가 몸에 닥쳐옵니다. 트럭끼리 마찰하며 불꽃이
튀고... 하지만 결국은 암전히 멈춥니다. 운전석 옆쪽으로 쓰러진
트럭커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으... 내가 지상인 따위에
계!” (웃음)

스미스 “묻는 말에 대답하면 덜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브로카 실어증

MC 보통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뭐든지 알더군요. 예
를 들어 “효자손은 어디에 있나?”하면 “으... 나
야 모르지!” 이런 법은 없어요. (웃음) “으... 효
자손이 누군데?”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항상 대답을
해 줘요. 하지만 문법에 맞는 문장은 잘 못 만들고,
조사나 어미가 빠지죠. “으... 헤라클레스... 헤
성단 야영지... 북쪽... 2키로... 비보호 좌회전
...”

효자손 배에 총을 맞으면 브로카 실어증에 걸립니다. (웃음)

MC 브로카 실어증요? 그게 뭐지요?

효자손 방금 그런 실어증입니다. (웃음)

MC 추상적인 어휘를 다 못 쓰게 되나요?

효자손 아뇨, 문법적인 의미 영역만...

바베큐 영어 같으면 전치사 같은 걸 못 쓰게 되려나.

MC 그게 뇌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군요.

효자손 예.

스미스 그래서 배에 충을 맞으면...

효자손 네. 브로카 영역은 대장에 있나 봅니다. (웃음)

스미스 “펜싱 마스크를 쓴 왜소한 남자를 보았나?”

MC 트러커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헤라클레스... 여기서 북쪽... 해성단 야영지... 음.”

스미스 바로 죽나요? 고통 없이 죽여 줄 필요도 없었네.

MC 치명적인 브로카 실어증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웃음)

스미스 내려와서, 떨어뜨린 칼도 챙겨 옵니다. 아까 타이가 충에 맞았다고 그랬죠? 아니면 아까 타이가 충에 맞았는데 지금은 무에가 다쳤나?

MC 아, 예! 타이가 운전을 하고 있고 무에가 다쳐 있습니다.

스미스 상태가 어떤가요?

MC 이걸 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를 2 먹었는데, NPC한테는 상당한 중상이에요. 대체로 치명적입니다. 빨리 해결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타이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고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쳐다 봅니다. 하지만 천사가 아닌 걸! 칼날요정인 걸!

효자손 여기서 천사나, 다른 PC 유형이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요?

MC 그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PC들 말고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NPC 영주도 있지만, NPC 영주는 경제 판정 같은 걸 안 해요.

효자손 아아. 그런 거군요.

바베큐 NPC는 경제 판정 같은 거 안 하고도 뉴욕 시장이 될 수 있어. (웃음)

MC 그렇습니다.

스미스 가까운 마을을 찾아 봐야 하나? 아니면 혜성단 야영지에서? 칼날요정답게. 혜성단 야영지에 쳐들어가서 의사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치료하라고 한다거나!

바베큐 오오.

MC 그런데 혜성단 야영지라는 것이 상설이 아니라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일 터라, 여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합니다. 아마 의료용품은 있을 거고, 그걸 가져다가 직접 치료하는 것... 물론 또 위험 견디기를 해야 하지만...

스미스 하지만 난 냉철하니까 괜찮을 거야!

MC 칼날요정 좋네요. 만능이네.

눈썹이 매력적인 스미스

MC 잊고 있었는데. 스미스 성장해야죠. 성장할 것하고도 경험치가 3이나 남았어요.

스미스 특성치나 올릴까요?

바베큐 칼날요정의 진짜 힘은 냉철에 있구나... 판정할 거리가 많아서.

MC 네. 칼날요정은 특성치 세트를 어떻게 골라도 냉철이 +3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액션에 적합해요. 한편 강인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서로 마구 총 갈겨 대는 액션은 좀...

스미스 그건 총잡이가 잘 하겠지요?

MC 그렇죠. 총잡이는 자나깨나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다 빼앗을 테다.

스미스 예리는 어디에 쓰더라? 사람 읽기, 상황 읽기군요. 그러면... 매력? 강인?

MC 특성치 올리지 않고 칼날요정 액션 추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치명적 눈길 같은 거 어울리고.

바베큐 눈썹. 치명적 눈썹입니다. (웃음)

스미스 매력을 하나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매력은 +2가 되고 경험치가 좀 남아요. 아까 넘친 것 때문이에요.

MC 이로써 더 매력적인 스미스가 되었습니다.

스미스 이제 강압 말고 다른 걸 시도해 볼 만하네요. (웃음)

냉철한 부상 치료

MC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스미스 “혜성단 야영지에 가면 약이 있을 테니 그걸 훔쳐서 치료하자.”

MC “없으면 어떡해요? 개네들은 혜성단인데! 혜성단은 부상자가 생기면 도로에 버리고 다닌다던데...” 타이가 말합니다. 그러자 다쳐 신을 하던 무에가 끼어듭니다. “으윽. 아니야! 잡아먹는다고 들었어...”
(웃음)

스미스 “약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하지.”

MC “그러다 타이가 죽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요!” 그새 또 둘이 바뀌었습니다.

스미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마라.”

MC “아니,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효자손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 (웃음)

스미스 짐승 같은 반사신경이 있어서 옷을 벗으면 강해지는 건가!

MC 애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따라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스미스 트럭에 치료도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MC 음... 그렇게 운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스미스 스미스가 천사였으면 있었겠지.

MC (잠시 생각) 그냥 있다고 할까요? 지금 굳이 압력을 넣지 않아도... 치료함 있다고 하죠. 있습니다. 운전석 옆에, 비상용 구급함이 있습니다. 하얀 십자가, 아니, 하얀 눈송이(*)가 그려진 빨간 상자가 있습니다. 잊혀진 황금시대에는 이 마크가 의료를 나타내는 만국 공통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바베큐 사념의 소용돌이가 또 거짓말한 건가요.

MC 예. 플레이어와 MC야, 물론 알지만...

스미스 “일단 이걸로 때우고, 본격적인 치료는 나중에 하자.”

MC 천사가 아닌데 천사함을 쓰는 경우처럼, 익숙치 않은 장비를 쓰는 것은 위험을 견디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혼자서 대체 +3으로 몇 번을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경험치고!

스미스 (주사위: $2d6+3 = 11$)

MC 자, 이제 천사함 판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자에는 2재고가 있습니다. 재고는 한 번에 0~3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소비한 재고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물을 다시 보고) 잠깐만요. 이게 판정을 안 하는 건가? 지금... PC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NPC에게 쓰기는... 그래도 간단한 판정으로 하죠.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스미스 주사위 굴리고 재고를 더하면 되죠? 2재고 다 쓸게요. (주사위: $2d6+2 = 12$) 안 써도 될 뻔했네!

MC 약을 잔뜩 쳐바르고 봉대를 잔뜩 쳐감습니다. 이 상태로 쉬면 나올 거예요. 무에가, 아니 타이가 운전을 합니다. 그새 또 바뀌었어요. (웃음) 북쪽이었지요? 운전석에는 피 냄새가 가득합니다. 스미스는 타이 옆에 앉나요?

스미스 네.

스미스 접근중

MC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좀 가니까 지평선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바베큐 그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것 같네요. (웃음)

MC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효자손 정말요?!

MC 아닙니다. 연기만 나요. 다가가자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타이가 트럭을 세우고 겁에 질려 묻습니다. “어찌죠? 어찌죠?”

스미스 트럭을 세우고, 효자손을 데리고 나오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게 해 놓으라고 합니다.

MC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다가와서 질문을 할 텐데요.” 타이는, 혜성단 바이커들이 이쪽을 씩 죽이고 트럭을 빼앗지나 않으면 다 행일 거라고 합니다.

스미스 그럼 좀 떨어진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지요. 연기로 신호를 할 테니 그게 보이면 차를 가까이 가져다 대라고 하고요. “알아 들었어?”

MC 연기로 신호요? 불이라도 지를 생각인가요?

스미스 인디언이 담요로 하듯... 모닥불을 피울 수도 있고요.

MC 아, 네, 네. 타이가 알겠다고 합니다.

바베큐 요지부동

MC 한편 바베큐 마을에서는 ...

바베큐 통조림 공장에서 고기를 익히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웃음)

효자손 이거 장면이 뭐가 ...

MC 영화에서 뭐라고 하더라? 몽타주 기법이었나?

바베큐 공장은 풀 가동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통조림을 더 만들고 있어요.

MC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지, 짚이는 데가 있나요?

바베큐 없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 (웃음)

스미스 “감히 우리 단장에게 추근거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MC 그런 거였나!

바베큐 그리고 여기는 바베큐의 방입니다. 바베큐는 열심히 개인 무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MC 권총과 식칼이었죠?

바베큐 네. 이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 본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MC 그 동안은 남이 해 준 것만 먹고 피동피동 살이 쪼었습니다.

바베큐 살은 원래 쪼었지만. (웃음) 요리사 모자를 벗고 쟁모자를 씩니다.

MC 푹푹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베큐 “응, 마틸다 왔어?”

MC 마틸다가 아니고, 청과상 자네트입니다.

바베큐 “무슨 일이시요?”

MC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말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바이 패거리들이 그 강대한 뉴욕마저도 넘본다면 우리는 손쉽게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놈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빨리 알아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베큐 “물론 그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저놈들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소.”

MC “그러면 알아내셔야지요? 당장이라도 사절단을 꾸려서 뉴욕 방향으로 ...”

바베큐 “아니오. 우리의 방벽은 튼튼하고 안이 밖보다 안전한데 함부로 나다니다가는 허무하게 죽을 수 있소.” 순간 스미스와 효자손의 얼굴이 뇌리를 스칩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 보는 게 좋겠소.”

효자손 멸망 플래그를 세우시나요!

스미스 멸망 플래그요?

효자손 사기 같은 데 보면 대체로 이런 군주가 망하던데요. (웃음)

MC “그러면 저 폭도들이 우리 문앞에서 총을 쏘고 활을 쏘고 돌을 날려야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베큐 “지금은 내 명령을 받고 파견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있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뉴욕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른 영지들과 손을 잡을 생각이오.”

MC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고 품에서...

바베큐 품에서?! (웃음)

MC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안에는 간식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집 사과를 드실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효자손 사과칩?

MC 사과전.

바베큐 앞으로는 당분간 통조림만 먹어야 할지도 모르니 이걸 아껴 먹겠다고 합니다.

MC 어, 그렇네요? 공성전의 왕이네? 벽이 무너지지만 앓으면... 빵이 없으면 통조림을 먹으면 되잖아! 빈깡통 발사! (웃음)

바베큐 조금 후 밖으로 나가서 방어를 지휘합니다. 아픈 사람은 자원을 해도 돌려 보냅니다. 공장으로. 그렇게 바쁘게 보냅니다.

MC 한편!

밀크로드의 끝에 바친다

MC (스미스를 보고) 혜성단 야영지에 잠입할 수 있는지 봐야겠네요. 또 위험 견디기. 이걸 만능이네요, 정말! 또 냉철 판정이네.

스미스 일단은 상황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MC 그 상황이 보이는 데까지 들키지 않고 접근하려면 위험 견디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스미스 야영지 자체는 보이지요?

MC 멀리 보이긴 보여요. 트럭은 바위 뒤에 세워 놓고 꽤 걸어왔습니다. 늘어선 오토바이들을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세상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스미스 세계가 딴 건 다 망했는데 오토바이만 ... (웃음) 효자손은 뭘 하고 있을까요?

효자손 형틀에 매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MC 높은 기둥에 묶여 있어요. 손을 위로 해서 매달려 있고요. 기둥의 밑에는 장작과 각종 폐품이 쌓여 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스미스 있는 곳까지 진동을 해요. 여기 접근하려면 이제 위험 견디기.

스미스 (주사위: $2d6+3 = 13$) 와 ...

MC 오늘 주사위가 참 ... 네! 들키지 않고 가까이 갑니다. 효자손의 화형은 전체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몇 명이서 시시덕거리며 불을 붙이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버려 두면 죽기는 마찬가지죠. “이 히히히. 내일의 거사를 위한 제물이다. 밀크로드의 끝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바베큐 효자손의 실력을 알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이지 않을 텐데.

효자손 종교도 있어?!

MC 네! “밀크로드의 끝에 바치나이다!” 다른 놈이 따라합니다.

효자손 거긴 대체 뭐가 있길래 ...

MC “야, 그런 얘기 해도 되냐?” “괜찮아. 어차피 죽을 놈인데.”

효자손 아, 애들은 밀크로드의 끝에 갔다 왔다고 했지요?

MC 네. 그런 소문이 있지요.

효자손 “너희들은 정말로 밀크로드의 끝에 갔다 온 거냐?”

MC “너도 곧 보게 될 거다.” (웃음) 어쩌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지도요? 밀크로드의 끝이라는 게 죽는다는 뜻인지도.

바베큐 죽으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서 밀크로드의 끝이라고 ...

MC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말합니다. 네! 스미스는 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스미스 서너 명이라고 하셨죠?

MC 아, 네 명입니다.

스미스 그러면 이 넷을 다 죽이고... 풀어준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MC 쉽지 않을 거예요. 스미스가 좀 다친 상태라...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스미스 총을 쏘서 줄을 끊는다!

MC 네. 어떻게 하시나요? 당장 여기는 야영지 구석이라, 본대량은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서 화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체구도 왜소하고 비쩍 마른 데다가 어려 보이는, 헤어스타일 좀 화려한 아이들입니다. 2군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위기예요. 혜성단의 밑바닥. 쪼그리고 앉아서 부싯돌을 부딪치고 있습니다.

스미스 모퉁이에 기대서 휘파람을 불어서 유인합니다? (웃음) 아니. 숨어서 네 명을 한꺼번에 다 쏘 죽여야 하나. 아니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접근해서 재빨리 도망친다?

MC 일단 전투가 되면 피해가 교환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스미스 그건 피하고 싶어요. 매수한다? 재산은 4바꿈 있는데, 지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트럭에 일부는 있으려나요?

MC 설령 있다손 쳐도, 선글라스를 끼고 양복을 입은 눈썹 지상인이 나타나서 돈을 내민다고 하면... 그냥 받고서 너도 매달아야겠다 하지 않을까요?

스미스 한 명은 휘파람으로 불러서 죽이고, 한 명은 인질로 잡고, 한 명은...

MC 휘파람 불었는데 두 명 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스미스 근처에 폭발물 같은 거 없나?

MC 폭탄은 애들이 흔히 쓰는 물건이 아니니까... 아니, 있나? 그래서 아까 화염병 하나로 터진 건가? 음... 여기서 아예 효자손에게 넘기죠.

효자손 위기!

MC (효자손에게)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는데, 저쪽 모퉁이에 스미스가 숨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바이커가 넷이나 있으니까 주저하는 듯합니다.

효자손 “저기 봐라! 사람 있다!” (웃음)

MC 정말요?

효자손 아닙니다. 어떡하지?

MC 애들의 주의를 끌 수도 있고.

효자손 사람 읽기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요.

MC 네. 대화할 만한 사람을 보자면, 제일 몸집이 작고 어려 보이는... 대충 한 열세 살? 그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애가 자기보다 머리 하나씩은 큰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야, 너 부싯돌 가져와, 야 너 뭘 가져와... 화장을 허영계 했고요, 눈은 검게. 해골 스타일로요. 머리는 삼중 모히칸. 팔다리는 성냥개비 같은데, 눈은 부리부리합니다. 성격이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효자손 말을 겁니다. “야, 나 정비도 잘 하는데 살려 주면 안 될까?” (웃음)

MC “아, 시끄러. 우린 오토바이도 없어.”

바베큐 그래서 여기서 이려고 있는 거구나.

효자손 애들은 해성단이 아닌가?

MC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아도 사람이 더 많은 게죠. “우린 사이드카 타고 다닌다.”

효자손 자기가 오토바이를 마련해 와야 하는 시스템이군요.

MC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오토바이를 물려 받는 식일 수도 있죠. 보스가 판단해서.

효자손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지. 나는 오토바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MC “거짓말 마. 황금시대가 끝난 뒤로 오토바이가 만들어진 적은 없어.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야?”

효자손 여기서 사람 읽기를 하겠습니다.

MC 예리 판정입니다.

효자손 (주사위: $2d6+1 = 3$)

다들 아아아아...

효자손 아우, 진짜!

MC 주사위가 사람을 가리는 듯... “내가 어리고 사이드카나 타고 다닌다고, 그런 거짓말로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마구 화를 냅니다. 그리고 꼬챙이 같은 걸로 쿡쿡 찌릅니다.

효자손 “아, 아파요! 아파요! 그만!”

MC “야, 빨리 불 안 붙이고 뭐해!”

효자손 “잠깐만! 잠깐만!”

MC 화르르르.

효자손 어, 불 붙었나요? (웃음)

MC 네. 활활 타오릅니다. 불길이 발바닥을 핥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요? 아래에 대고 입김이라도 부나요? (웃음)

효자손 복근에 힘을 줘서 다리를 위로 굽힙니다. 가능한 한 불에서 떨어져요!

MC “하하하, 저거 봐라. 구우니까 오그라드는 게 꼭 새우 같다!” (웃음)

바베큐 이럴 수가!

MC 아이가 마구 웃습니다.

스미스 이젠 밧줄을 끊을 수도 없네요. 불 속에 바로 떨어질 테니까...

효자손 불이 닿았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니까 불쏘시개를 밟고 뛰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베큐 그런데 아까 화염병 깨질 때 기름 목욕을 했으니...

MC 헛. 그랬지.

효자손 오그라드립니다!

스미스 화력을 퍼부어서 기둥을 쓰러뜨린다, 이런 건 총잡이 밖에 못 하려나요?

MC 아... 권총 갖고는 무렵니다.

구출

스미스 일단은 숨어서 우두머리 아이를 쫓니다.

MC 네.

스미스 쏘고 숨어서 이동합니다.

MC 첫발은 애가 아무 저항도 못하겠네요. 이건 완전한 전투 상황이 아니니 강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룰북에 저격을 강압으로 처리한 예도 있고요.

스미스 (주사위: $2d6+3 = 9$)

MC 제가 선택하는 거지요. 총알은 빗나갑니다. 하지만 애가 짝 하고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더니 머리를 감싸고 도망칩니다.

바베큐 이르러 간다!

MC 이르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럭에서 내려 놓은 어느 컨테이너 안에 숨습니다. 나머지 셋은 어떻게 된 일인지 두리번거립니다.

스미스 그새 자리를 옮깁니다.

효자손 지난 인생이 눈 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MC 어떤 내용인가요?

효자손 무애와 타이틀 괴롭히고 있어요. (웃음)

스미스 (효자손을 흉내 내어) “그런 것도 몰라, 이 바보야?”

MC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아포칼립스 월드 끝나냐?” (웃음)

효자손 후회됩니다. 좀 잘해 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MC 셋 중 하나가 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칩니다.

스미스 남은 둘의 무장 상태는요?

MC 권총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투 상황이 됩니다. “저기 있다!”

스미스 힘으로 빼앗습니다. 엄폐물에 숨어서 총을 싸요.

MC 무엇을 빼앗으려는 거지요? 아!

스미스 효자손을 빼앗습니다. (주사위: $2d6+1 = 11$) 성공. 세 가지 고르면 되지요?

MC 네.

스미스 적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피해를 덜 입고, 목표를 확실하게 장악하겠습니다.

MC 둘이 총을 쓰고 있어서... 각각 2점의 피해를 주지만 피해를 덜 입으니까 1점씩 두 번 피해를 입으면 돼요. 합은 2피해. 좀 심한 부상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스미스의 총알을 맞고 쓰러지고, 나머지 하나는 겁에 질려 아까 그 컨테이너로 뛰어갑니다. 그럼 이제 풀어 주면 되겠네요.

스미스 네. 불로 약해진 기둥을 쓰러뜨리면서 효자손을 풀어줍니다.

효자손 효자손은 재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MC “이게 웬 소란이냐!” 하는, 어른 바이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총 쏘고 불 지르고 컨테이너 두들기고 하나까 알아챈 것 같아요.

스미스 무에와 타이에게 하기로 한 신호는, 저 불의 연기로 충분하겠죠.

효자손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스미스 같이 도망칩니다.

MC 이리로 오고 있는 트럭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라고 뛰어가자 타이인지 무에인지 외칩니다. “뒤에 타세요! 뒤에!”

스미스 효자손과 함께 뛰어오릅니다.

여긴 트럭인가 앰블런스인가

MC 스미스의 부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 방금 피해 판정을 잊었네요.

스미스 아.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할까요?

MC 네.

스미스 (주사위: $2d6+2=10$) 주사위가 계속 높게 나오더니만! 낮게 나와야 하는 데서도 높게...

MC (목록을 보다가) 행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건 좀 그렇고... 피해를 더 입는 걸로 하는 게 맞겠네요. 트럭에 뛰어오르는데 상처가 벌어집니다.

바베큐 이렇게 해서 더 받은 건 피해 판정 안 하죠?

MC 룰북에 말은 없는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면 좋아요? 피해가 9시를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다쳤네요. 당장은 그렇다 쳐도, 이거 낮는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스미스 괜찮습니다. 오늘 충분히 활약했어요.

MC 9시 뒤의 피해는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9시 넘어갈 때 약화 효과를 택하면 피해를 9시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약화 효과가 아포칼립스 월드에서는 영구적입니다. 약 먹으면 낮은 던전월드랑은 달라요.

스미스 그냥 피해를 입겠습니다.

바베큐 그리고 보니 아까 천사함을 다 써버렸어!

효자손 고통 받는 PC들...

MC 그거, 재고가 0이면 그냥 2d6+0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찌꺼기 재료가 남아 있는 상자를 무에가 가져 옵니다. 타이는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차에서 수술은 무리니까요. 이대로 잠시 머무르겠죠. 해가 뜰 때까지 여기서 쉰다거나... 자기 상처를 직접 치료하나요?

스미스 천사가 아무도 없으니 치료하려는 사람은 위험 견디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럼 아무래도 제 손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주사위: 2d6+3 = 11)

MC 네. 이로써 상태가 안정되고요...

스미스 아니, 이걸 천사가 아닌 사람이 천사함을 사용하기 위한 판정이고요. 천사함 판정은 또 따로.

MC 아, 그렇네요. 근데 또 성장했네요! 냉철 판정하느라.

스미스 그건 좀 있다가 하고... (주사위: 2d6+0=9) 오오.

MC 그러면 피해는 6까지 치유. 하지만 7~9이면 MC가 두 가지 효과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또 위험을 견디시고요.

바베큐 이걸로 또 경험치. (웃음)

스미스 (주사위: 2d6+3=9)

MC 네. 이걸로 또 뭔가 안 좋은 게 일어나겠죠. 그와 별도로, 두 번째 효과로, 스미스는 의식을 잃습니다. 앞으로 만 하루 동안 정신이 들었다 말았다 할 거예요. 그리고 위험 견디기에 7~9가 나온 효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처는 확실히 안정된 거고요. 음... (생각하는 중)

스미스 성장은 어떻게 하지... 다른 플레이북 액션을 갖고 올까? 기절했다 깨어나니 사이코가 돼서 초능력을 쓴다거나요! 프리랜서 액션 중에도 괜찮은 게 좀 보이네요. 총잡이 액션 중에 만반의 준비도 좋아 보이고.

MC (생각 끝) 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간신히 치료를 끝내고 의식이 멀어져 가는데, 자기 뜻과 관계 없이 뇌가 열립니다. 완전히 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열려요. 앞칸에서 무에와 타이 사이에 오는 흐름이 들려요. 애들 사이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신적 왕래가 있습니다.

바베큐 애들 뇌카오흐 하고 있는 건가요!

MC 네. 뇌카오통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도 오락가락해서 둘이 구별이 안 되는 경지에 다다가고 있어요.

바베큐 아아.

MC 사이킥 삼 쌍둥이입니다. 둘이 머리가 붙어 있어요. 무선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스미스 두렵고 신기하지만 어찌 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바베큐 애들 계속 바뀌는 것도 설명이 되네.

MC 그게 정말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구별의 의미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누가 알겠어요?

스미스 몸은 그냥 단말기일지도요.

분노의 발명가

MC 자, 스미스가 치료를 하는 사이 효자손은 어떻게 하나요?

효자손 지금 바베큐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죠?

MC 네.

효자손 폭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밀크로더라고 호의적으로 봐줬는데. 더 이상 의리도 없고 뒤틀도 없어요. 폭탄을 만들까... 아니, 뭔가 괴상한 무기를 만들어요. 사위개 같은.

바베큐 폭탄개?

스미스 별로 괴상하지 않네요.

MC 판정 안 하고 발명을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경험치 받을 기회가 없네요.

효자손 기계팔을 여럿 만들어서 몸통에 붙일까. 침략! 오징어 박사... (생각) 날아다니는... 오징어 행글라이더.

바베큐 그걸로 폭격을 하는 건가요?

MC 행글라이더면 높은 곳에서부터 활강을 하잖아요?

효자손 앗. 추진도 되는 거예요!

MC 그건 그냥 비행기잖아요. 초경량. 그겁니까?

효자손 네. 그걸로 발명합니다.

바베큐 동력연. (웃음)

MC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며칠 걸리고요. 가벼운 고출력 엔진을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뇌를 개방해서 사념의 소용돌이로부터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효자손 알겠습니다.

돌아와 보니 마을은 전시 체제

MC 트럭이 돌아왔습니다. 스미스는 의식이 없고요.

바베큐 영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성벽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효자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바베큐 “여러분이 나가 계신 사이 혜성단이 시위를 하고 갔소.” 그리고 의식이 없는 스미스를 보고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두 사람 다 의무실로 보냅니다.

MC 여기 의무실도 있나요?

바베큐 의사가 있어요. 최소한 직함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러 가면... 마을에 주둔중이던 NYPD 열 명 있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장비를 뺏고 지하감옥에 처넣습니다. 우리 마을 사냥단은 무기가 약하니까, 그렇게라도 보충을 할래요.

MC 그냥 도와 달라고 하지 않고요?

바베큐 다른 도시의 군대에게 방위를 맡길 수는 없죠.

MC 음음.

바베큐 그리고 혜성단이 뉴욕을 함락시키고 우리 영지로 오면, 그 열 명을 내놓으면서 “뉴욕의 잔당을 잡았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도 뉴욕에 불만이 있었지 말입니다.”

MC “이 지역의 새로운 교역 중심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웃음)

바베큐 여하튼 다 잡아 넣습니다. 바베큐의 마음 속에서 뉴욕은 이미 망했어 요.

MC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베큐 뉴욕이 안 망하면 혜성단이 망했겠죠. 그렇게 되면 열 명은 어딘가 묻어버리고, 혜성단의 손에 죽었다고 하고. (웃음)

효자손 힘이 빠진 뉴욕을 공격한다?

바베큐 아뇨, 다시 공물을 바쳐야죠.

효자손 왜 원군을 안 보냈냐고 다그칠 수도 있겠네요.

바베큐 우리가 그럴 힘이 있으면 당초에 공물을 바쳤겠냐고 해야죠. (웃음)
우리는 먹을 걸 주고 당신들은 보호를 해 주는 관계였을 텐데!

효자손 그렇다! 쌍무적 계약관계 아니었느냐!

바베큐 여튼 그 열 명한테는 독한 처사를 결정합니다. 마틸다에게 명령을 내려요. “공장 지하에 가둬!”

MC 마틸다는 눈을 한 번 크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딱히 판정은 필요 없어요. 상대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베큐의 야망

MC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바베큐 마을은 비교적 평화로운 통조림 공장촌에서 요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아직 의식이 없지만, 효자손은 깨어납니다. 늦은 오후라고 하죠.

효자손 나와서 바베큐를 찾아갑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역설해요. 이래서는 가만히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는 꼴 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놈들이 날 나무에 묶어 놓고 구우려고 했다! (웃음)

바베큐 찾아와서 열변을 토하는 효자손에게 말합니다. “일단 쉬시오. 안 그래도 곧 상의를 드릴 일이 있으니.”

효자손 눈이 별개져서 작업실로 돌아갑니다.

바베큐 남은 지시를 내리고 효자손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효자손 문을 엽니다. “아, 오셨군요.”

바베큐 “선생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यो.” 운을 땡니다. “우리가 앞으로 혜성단과 싸우건, 성난 뉴욕과 싸우건, 우리는 무장이 약하고 수도 적어서 상대가 되지 않을 터.” 무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 달라고 합니다.

효자손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혜성단을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설계도를 보여 줍니다. 방패연입니다. (웃음)

MC 방패연요! 왜 이렇게 싸구려죠?!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웃음)

효자손 알 수 없는 장치들도 물론 잔뜩 달려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 하늘을 날아서 그자들을 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바베큐 “혹시 이걸로 혜성단이 아니라 요새화된 영지도 공격할 수 있겠소?”

효자손 “얼마든지!” 하고 대답하고는 바로 “예?” 하고 반문합니다.

MC 폭격기를 만든 거군요.

효자손 아마 이런 건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MC 이렇게 황금시대 최후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웃음)

바베큐 “좋소. 그럼 공장의 인력과 물자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오.”

효자손 “감사합니다.”

바베큐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미스가 저 꼴이 된 거요?”

효자손 혜성단과 싸웠다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바베큐 “살아 돌아온 게 장하군.”

효자손 “스미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간 겪은 고초를 모두 말하고,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분해 합니다.

바베큐 그러면 동력연을 빨리 완성하라고 합니다.

효자손 무에랑 타이에게 파일럿 훈련을 시켜야겠군!

바베큐 “그 자들이 내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친 적은 없지만, 효자손 선생과 스미스 선생을 이렇게 괴롭혔으니 이제 나의 원수요.”

MC 근데 마을 문 앞에서 활 쏘고 다음은 너희 차례다 했을 때부터 이미 원수 아니었나요?

바베큐 물론 그렇지만 말은 이렇게 해야죠. (웃음) 뉴욕 병사들에게서 뺏은 무기와 갑옷을 우리 사냥꾼들에게 입힙니다.

MC NYPD라고 칠해진 총칼과 갑옷과 방패, 헬멧 등등이 배급됩니다. 제법 번듯하네요. 이 정도면 사냥단은 당분간 +1피해라고 하죠.

바베큐 NYPD 마크는 대충 덧칠해서 지웁니다. 마틸다에게는 그 중 제일 좋은 갑옷을 줘요. 스미스는 상태가 어떤가요?

MC 마을 의료팀의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팀이라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바베큐 아!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왔으니 보상을 줘야죠. 효자손과 스미스에게 바베큐 스테이크 한 상자씩을 내립니다. 각각 1바꿈어치예요.

효자손 이거 한 상자로 한 달 먹을 수 있는 거죠?

MC 대충 그렇습니다. 30개 정도 들어 있다고 하죠. 한 캔을 하루 세 번 나눠서 먹으면 되겠죠.

바베큐 그리고 아까 자네트한테 받은 사과전을 의무실에 가져가서, 스미스를 간호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건 정말 귀한 음식이지만, 지금은 스미스 선생이 빨리 낫는 게 중요하니 꼭 먹이시오.”

MC “그리고 깨어나거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하시오.” (웃음)

바베큐 그렇지요.

스미스 이제 목숨을 다 바쳐 싸워야 하나요? (웃음)

MC 뉴욕 방향으로 정찰을 나간다가나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바베큐 스미스가 쉬고 효자손이 연을 만드는 동안 정찰대를 보냅니다. 절대로 절대로 싸우지 말고, 들킬 것 같으면 바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틸다에게 지휘를 맡겨서.

MC 근데 들키면 죽죠. 저쪽은 오토바이가 있고 이쪽은 도보인데, 도망 못 치죠.

스미스 오토바이가 못 올라올 만한 곳으로 가면?

MC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 포인트는 알고 있겠죠. 기울어서 쓰러져 가는 마천루라거나... 그런데 그런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위험할 수 있겠죠.

바베큐 아니, 가뜩이나 수도 적은데 위험한 상황에 넣는 건 안 되겠어요. 전에 나왔던, 동전 넣는 망원경을 이용해야겠네요. 망원경이 있는 저택 테라스를 병사들에게 개방합니다.

최종병기의 윤곽

MC 효자손은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쉬고 있고요. 곧 연구를 시작하나요? 아까 말씀 드렸듯 엔진 필요하고요. 뇌를 개방해서 사념의 소용돌이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해요.

효자손 네. 뇌를 개방합니다. (주사위: $2d6+2 = 9$)

MC 사념의 소용돌이로부터, 날아다니는 기계에 관한 3분짜리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게 행진곡 같은 음악과 함께 머리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정체를 모를 거대한 폭격기가 나오며 끝납니다.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한 번 더 7 이상으로 성공을 해야 더 자세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어요.

효자손 (주사위: $2d6+2 = 9$) 경험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MC 다시 비슷한 자료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겠어요.

효자손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MC 사념의 소용돌이에서 나온 영상에 따르면, 황금시대가 멸망할 때 이런 연들이 각각 폭탄을 매달고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효자손 “아! 이거로구나! 나는 죽음의 신이 되겠다!” (웃음) 그 꿈이 이거였네요.

MC 네? 무슨 꿈요?

효자손 바베큐가 본 환상요. 노을평원이 다 불타는...

바베큐 2차 아포칼립스네요.

스미스 그럼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월드가 됩니다.

효자손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MC 그러면 지금은 포스트이자 프리인 아포칼립스?

바베큐 간아포칼립스기. (웃음)

MC 그럼 이제 엔진만 찾으면 됩니다.

효자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내 트럭... 하지만 안 돼... 내 트럭인데.

MC 아니, 아니. 트럭 엔진은 너무 무거워요. 가벼운 엔진이 필요합니다.

바베큐 오토바이 엔진이면 될까요?

MC 아. 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마을에는 없어요.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효자손 그럼 오토바이 패거리 사냥꾼이 되어야겠네요. 무리에서 이탈한 오토바이를 사냥하는...

스미스 하이웨이의 하이에나. (웃음)

효자손 바베큐를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딱 한 가지, 엔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차 엔진으로는 안 되겠고, 오토바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 오토바이라고는 혜성단이 가진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포획해야겠는데, 그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미스 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듯...

바베큐 “하지만 스미스는 지금 크게 다쳤으니, 당분간은 엔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만들고 계시는 게 좋겠소.”

효자손 그렇게 합니다.

MC 네. 다친 몸에 붕대를 감고 망치와 스패너로 뚱뚱뚱뚱. 며칠 걸리는 일이라고 했었죠? 무에와 타이에게 이런 저런 고된 일을 시키면서 비행체의 틀을 만듭니다.

효자손 “이렇게 밖에 못하겠냐?” 구박합니다. 아까 죽을 뻔했을 때는 착하게 대해줄 걸, 하고 후회했는데 돌아오고 나니 마음이 원상복귀.

세션 2 종료

MC 그럼 세션 종료를 하지요. Hx 올릴 대상을 찍으세요.

바베큐 저는 효자손을 고릅니다.

효자손 저는 스미스를 고르겠습니다.

스미스 저는 효자손이 스미스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MC 넵. 수고하셨습니다!

세션 3

이 세계의 운명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플레이 시작.

왠지 플레이 내용을 다 잊어버린 MC

MC ... 그렇게 해서 서울은 앞으로 300년간 안전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난 번 플레이를 정리해 보죠. 어떻게 됐었죠?

스미스 볼트가 바베큐 마을에 찾아와 죽었죠. 심한 부상을 입고, 이마에는 혜성단 마크가 새겨져서.

바베큐 그 뒤를 보면 혜성단의 소행이 맞는 것 같고.

MC 볼트가 누구였죠?

효자손 밀크로드의 트러커요.

MC 맞다. 휴고하고 결탁했다는 이유로 죽은...

효자손 어, 그냥 지상인이라고만 하고 볼트란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스포일러다!

MC 아니, 아니. 스포일러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웃음) 하지만 휴고 말고 또 누구랑 손을 잡겠어요?

바베큐 마틸다도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바베큐 몰래 뒤에서 외세랑 손 잡고 있을 수 있다고.

MC 그랬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효자손 효자손은 컨테이너 같은 곳에 갇혔다가 찢고 나왔는데 도로 잡혀서 기둥에 묶였고요.

MC 그걸 구출을 해서 돌아왔죠?

바베큐 스미스가 무에랑 타이를 데리고요.

MC 그럼 다들 바베큐 마을에 돌아와 있는 건가요?

바베큐 네. 바베큐 마을은 전시 체제.

스미스 뉴욕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MC 아, 그랬죠. 바베큐 마을에 주둔 중이던 뉴욕 병사들을 급습해서 무장 해제 시키고... 무장 상태가 나빠서 패거리가 받던 -1피해 있죠? 뉴욕인들의 무장을 빼앗았으니까, 그거 없애세요.

바베큐 이거 성장할 때 옵션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MC 아닙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반영돼요.

바베큐 그렇구나. 후불로 선택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MC 없습니다. (잠시 생각)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딱 한 번 전투에 한해서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죠. 기껏해야 열 명 정도의 물자를 뺏은 거니까요.

바베큐 그게 적당할 것 같아요. 병기고가 엉망이라는 걸 지우려면 보다 대대적인 보급이 필요하겠죠. 동력연이 완성되면 지워질 수도. 효자손이 그거 타고 뉴욕으로 가 버리지 않으면. (웃음)

효자손 망명한다.

바베큐 괜찮습니다. 뒤통수를 치려면 치세요! (웃음)

세션 시작: 관심 특성치 교체

MC 세션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전에 놓친 것 같은데, 원하면 누구나 관심 특성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하자고 말을 꺼내기만 해도 다 해야 해요.

바베큐 말을 꺼내겠습니다.

MC 네. 그럼 바베큐부터 왼쪽으로 돌죠. 바베큐 시트에서 가장 Hx가 높게 나와 있는 게 누구지요?

바베큐 지금 스미스가 제일 높네요.

MC 그럼 스미스가 찍으면 돼요. 지금 관심 특성치는 강인과 매력입니다.

바베큐 있는 걸 꼭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미스 전 하나 고르죠?

MC 네. 나머지 하나는 MC인 제가.

스미스 예리를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

MC 저는 그대로 강인을 하겠습니다.

효자손 제 것은 바베큐가 정해야 하네요.

MC 지금 효자손의 관심 특성치는 냉철과 기괴.

바베큐 저도 예리를 찍겠습니다.

MC 지난 번에 고생이 많았으니, 저도 높은 쪽을 찍겠습니다. 기괴에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진 밸런스 조절의 장이기도 해요. 지난 번에 혼자서 막 경험치 쌓은 사람을 견제하거나 할 수 있죠.

스미스 저네요, 그거. 냉철을 빼야 하나. 저는 효자손이 정해 주면 돼요.

바베큐 저라면 냉철 찍을 텐데. 성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웃음)

효자손 저는 강인 찍어드리겠습니다.

MC 저는 매력어요.

바베큐 스미스는 눈썹의 움직임이 지난 세션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MC 관심 특성치가 변하면 캐릭터의 행동도 변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문제는 경험치 신경 안 쓰는 플레이어한테는 별로 안 통한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던전월드가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일단이 있지만.

바베큐 그쪽은 위로가 된다는 기분이... (웃음)

스미스 실패했는데 경험치라도 받아야죠!

NPC도 정리하고

MC NPC를 죽 읊어 보면, 뉴욕에 휴고 시장이 있고, NYPD의 그롬 서장이 있고요. 잿더미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고... 족장은 아직 안 나왔죠. 해성단이라는 바이커 갱과, 그 두목 퀴. 바베큐 마을의 장터에 원로 상인 자네트가 있고, 사냥단 두목 마틸다, 쌀 한 되에 팔려 온 운전수 쌀. 그리고 효자손의 조수인 무애와 타이가 있어요.

스미스 무애와 타이는 정신적 삼 쌍둥이었죠... 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더군요.

MC 삼이라는 말어요?

스미스 삼 쌍둥이라는 용어요.

MC 듣기 거북하기는 할 것 같네요.

세션 시작 판정

MC 지금 영지의 방위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바베큐와 마틸다가 이 비슷한 상황을 예상한 적이 있던 듯, 매뉴얼대로 착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풍족하고 안정적인 영지와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바베큐는 경제 판정을 못 하고, 모든 부족이 다 일어납니다.

바베큐 네. (캐릭터 시트를 확인하고) 실업, 굶주림, 그리고 보복.

MC 근데 뉴욕이 당장 공격 받고 있으니 여기에 지금 직접적인 보복은 못 하겠지요. 하지만 NYPD를 감금하고 장비를 빼앗았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분명 알아챌 듯.

바베큐 네. 뉴욕과의 불화는 시나리오에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MC 굶주림은 전시 통조림 배급 체제의 결과라고 하면 되겠군요.

바베큐 세상에서 제일 잘 먹는 영지였는데! NYPD 패거리한테서 뺏은 물자들 있지요? 스미스한테는 방탄조끼를 주고 효자손에게는 바지를 줍니다.

효자손 바지요? 지금까지 없었나! (웃음)

MC 두꺼운, 쇠장이 잔뜩 박힌 가죽 바지입니다. 1장갑이에요.

바베큐 흰 페인트로 NYPD라고 쓰여 있는데, 그 위에 진흙을 덮어서 가렸어요.

MC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저거 뉴욕 패거리 제복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바베큐 네.

MC 아, 스미스의 방탄조끼도 1장갑입니다.

바베큐 그건 속에 입는 거니까 NYPD 표시를 안 지웠습니다.

스미스 (옷자락을 좌우로 젖히는 시늉을 하며) NYPD다! (웃음)

MC 효자손도 제 말 하면 오는 자 판정을 해야죠.

효자손 네. (주사위: $2d6+2 = 11$)

MC 예비 하나 받으시고요. 기괴였으니 경험치도!

효자손 이로써 성장! (다들 박수)

MC 성장은 어느 옵션을 택하시나요?

효자손 작업장에 생명유지장치를 붙이겠어요. (시트에 표시)

MC 네. 그러면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겼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기회를 봐서 집어 넣기로 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MC 혜성단이 노을평원을 가로질러 뉴욕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장 뭐가 닥쳐오고 있지는 않아요.

바베큐 무기가 부족하니 일단은 효자손 선생을 닦달해야...

MC 맞다. 비행기 만드는 애길 했었죠?

바베큐 동력연입니다!

스미스 동력연. 그것으로 폭격도 정찰도 할 수 있다고...

효자손 그러면 폭격정찰기... 폭정기.

바베큐 폭군 머신 같네요. (웃음)

MC “그 동안 폭정이 참 귀찮으셨지요? 이제부터는 로봇 폭정기 폼바가 해결해 드립니다.” (웃음) 효자손 외에 다른 캐릭터들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지요?

바베큐 네. 근데 스미스는 부상이 심하죠.

MC 실제 부상 정도는 스미스나 효자손이나 같은데, 스미스는 24시간 의식이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어서...

바베큐 스미스의 머리맡에 사과칩을 놓고 갔어요.

스미스 사과칩이 아니고 사과전이에요.

바베큐 아, 네.

MC 자네트가 줬던 거지요?

바베큐 자네트가 싫어할 수도? 자기가 바친 거 냉큼 딴 사람 줬다고.

MC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죠. “우리 영주님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구나” 하고. 한 손으로 받고 다른 손으로 주는 분.

바베큐 통조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MC 전시에도?

바베큐 농성용으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 안에서 굶어 죽지는 말자고요. 먹는 거 아끼고, 있는 음식은 대부분 통조림으로 만듭니다.

MC 신선한 샐러드를 먹으려는 사람이 그릇째로 빼앗기고.

바베큐 정말?!

MC 양상치 샐러드가 시래기국이 되어 통조림에 들어가고.

바베큐 공장 기계 돌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칩니다.

MC 사과를 깨물려는 순간 빼앗기고, 사과는 줄여져 깡통에 들어가고.

바베큐 그리고 공장 기계와 겹쳐서 바베큐가 삿대질하는 모습이 비치고.

MC 오. 반투명하게 겹쳐서. 다 흑백이죠? (손가락을 딱 튕기며) 나이스.

바베큐 아... 흑백은 아니고, 그냥 저채도!

MC 알겠습니다. 옛날 영화 나레이션으로 목소리가 오버랩될 것 같아요.

바베큐 저는 대한뉴스 생각했어요.

MC 저는 사브리리나 카사블랑카 오프닝 같은 거 생각했는데.

바베큐 그쪽은 화면이 예쁘잖아요.

젯더미 부족의 방문

MC 여튼 그렇게 영지를 전시 체제로 굴리고 있는데, 성벽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외칩니다. “누가 마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망원경 옆에서 노닥거리던 병사가 화들짝 놀라더니, 급히 동전을 넣고 앞을 내다봅니다. “젯더미 부족입니다! 수는 다섯!”

바베큐 무장 상태를 살피라고 해요.

MC 다들 장총을 들고 말을 타고 있어요.

바베큐 말?

MC 말이라고는 해도, 진짜 뭔지 우리는 모르죠. 마치 이 세계에서 “사과”가 사실은 감자이듯, 말도 사실은 다른 것일지도.

효자손 이런 RPG여도 괜찮은 걸까!

MC 안 괜찮나요?

바베큐 사실은 코뿔소라거나.

효자손 알파카? 낙타? 초코보...

MC 아니면 황금시대에는 없던 돌연변이.

바베큐 비늘이 나고 다리가 여섯 개 달린 말.

MC 머리 둘 달린 말.

효자손 비늘도 나고 다리도 여섯이고 머리도 둘이고 날개도 달리고 꼬리도 길고.

바베큐 불도 뿜을 것 같네요. (웃음)

효자손 정말 괜찮은 걸까!

바베큐 마을에 가까이오기 전에 메가폰을 들고 외칩니다. “정지! 정지! 무슨 용건이냐!”

MC 영지가 찌렁찌렁 울립니다. 저쪽에서도 안 들릴 리가 없는 큰 소리입니다. 잿더미 부족 다섯 명은 들고 있던 총을 도로 짊어지더니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깃발을 하나 꺼내 흔듭니다.

바베큐 어떤 깃발이지요?

MC 백기예요.

효자손 이 세계에서는 혹시 싸우자는 뜻인가? (웃음)

바베큐 “무장을 풀고 손을 잘 보이게 들고 천천히 다가오면 목숨은 살려 주겠다!”

MC 지금은 망원경으로 얼굴이 식별이 될까 말까 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얼굴에 색색깔 칠을 하고, 정수리에서 코까지 덮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은 다양한 새들의 깃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화려한데.

MC 그리고 말을 끌고 문 앞으로 옵니다.

바베큐 쪽문을 열고 하나씩 들여보내고, 들어오면 다 포박해서 공장 지하로 보내요. (웃음)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아요.

MC 아, 일단은 한 명만 와요.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옵니다.

바베큐 그러면 들여보내고 총을 겨눕니다.

잿더미 부족의 족장

MC “나는 무장도 안 했다.” 발음이 좀 어눌하다 싶는데, 보니까 이빨을 전부 줄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나이가 꽤 있어 보여요. 가면은 가까이서 보니 나무로 만들었네요.

바베큐 “이런 시기에 갑자기 행복이라니 무슨 꿈꿨이냐.”

MC “행복은 아니야. 나는 협상을 하러 온 거라네.”

바베큐 “무슨 협상?”

MC 지금 이 사람한테 잔뜩 활과 총을 겨누고 있는 거지요?

바베큐 네.

MC “너희들은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가?”

바베큐 “정말 손님이 맞는지 봐야겠다. 우리는 시장도 닫았고 공장에서 물건을 팔지도 않는데 뭘 하러 온 거냐?” 사람을 읽습니다. (주사위: $2d6+1 = 5$) 실패.

MC 전혀 속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이 이쪽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바베큐가 느끼고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요?

바베큐 딱 이 사람에 대해서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MC 전반적으로요.

바베큐 지금은 패닉 중입니다.

MC 바베큐는 이 사람이 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바베큐 호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순순히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베큐가 대화하는 도중에 흘끔흘끔 뒤를 돌아 보고, 부하들의 무장 상태를 훑고, 그런 눈빛이 다 보이는 거죠, 이 사람한테?

MC 그렇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최소한 당분간은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

바베큐 당분간?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도 곧이 믿을 수 없다.”

MC “그것은 우리가 손님과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부하들이 바베큐를 흘끔흘끔 쳐다 봅니다.

바베큐 마틸다를 보고 묻습니다. “마틸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MC 마틸다가 즉시 대답합니다. “이놈들은 황무지에서 사람을 잡아먹기나 하는 놈들인데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베큐 “그렇다고 하지 않느냐? 당장 이놈들을 내쫓아라!” (웃음)

MC “잠깐! 나는 잿더미 부족의 족장이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대화를 하려는 마당에, 내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문전에서 박대하겠다는 건가?”

바베큐 바베큐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뭔가 시도 하셔도 좋아요.

효자손 그럼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일하 다가 나와 봤다고 할까요?

MC 좋습니다.

효자손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사람 읽기를 할게요. (주사위: $2d6+2 = 11$) 그리고 예리 판정이니까 경험치 칸도 채웁니다.

MC 족장은 바베큐의 호통에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자손이 다가와 말을 걸자, “당신은 저 똥보보다 말이 통할지도 모르겠군” 하고 응합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밀크로드에서 도적떼가 내려와 우리 부족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곳곳의 도시와 마을들에 들이닥치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비 세 개는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써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효자손 저는 우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MC 족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부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효자손 나는 혜성단을 용납할 수 없다. 다 죽일 생각이다. 세상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웃음)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여기 휘말리면 살아 남는 자가 없을 것이요.” (웃음)

MC 족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포부가 대단한가?”

효자손 “그 놈들이 날 기둥에 묶고 옥을 보였소. 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MC “그렇다면 우리도 도울 테니, 혜성단 놈들이 밀크로드로 다리를 절며 꿈무늬를 빼게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명이니, 당신네 추장을 잘 설득해 보시게.”

바베큐 저는 추장인가요.

효자손 “우리는 그대들이 먹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해 주지 않으면 받아 줄 수가 없소.”

MC “그럼 무엇을 해 주면 되겠는가? 무엇을 하면 우리를 벽 안에 들이고 보호해 주겠는가?” 족장이 묻습니다.

효자손 파일럿...

MC 파일럿!

효자손 이 사람들이 뭘 잘하죠?

MC “우리는 저 황야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지. 당신들은 꿈에도 모를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효자손 뇌 개방하면 알지 않나? (웃음)

MC 뇌 개방이 항상 원하는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효자손 “나는 지금 오토바이가 필요하오. 그런데 이 근방에 오토바이는 혜성 단의 손에 밖에 없지 않소? 당신들이 오토바이 훔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겠소?”

바베큐 아하.

MC “후후후.” (웃음) “그건 할 수가 없지. 하지만 우리는 오래 전 오토바이들이 추락한 골짜기를 알고 있어.”

효자손 추락!

바베큐 과연 엔진은 멀쩡할 것인가.

효자손 “그건 솔깃한 얘기인데. 그럼 당신들이 안내를 해 줘서, 내가 찾는 것이 멀쩡하게 있으면 바베큐님께 말씀을 잘 드려 보기로 하지.”

MC “안 돼!”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당장 우리를 들여 보내고 바베큐 스테이크를 내 줘야 해!”

효자손 (바베큐를 보고) 그렇게 할까요?

바베큐 바베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효자손 그러겠노라고 합니다.

난민들

MC 그러자 족장이 입술을 잡고 길게 휘파람을 불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네 명이 뒤를 보고 뭐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좀 떨어진 바위 뒤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웃음)

효자손 난민인가요?

MC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합해서 한 열다섯 명? 무장한 사람은 없고, 다들 헐벗고 마르고 지저분합니다.

바베큐 바베큐는 추장에게,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합니다. “효자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일단 받아는 주겠는데,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을 멧으로 나누어서 영지의 일을 돕게 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했다간 전부 죽여버리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잘 듣고 협조한다면 배불리 먹여주겠다.”

MC “야, 야, 다들 들어 오란다.” (웃음)

바베큐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효자손에게, 힘 세 보이는 사람은 마틸다에게, 나머지는 통조림 공장에 보냅니다.

MC 족장이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쪽의 밀크로드 입구 근처 야영지에 살고 있었지. 혜성단에게 쫓겨서 반이 넘게 죽고 고작 열댓 명만 살아남았네. 혜성단이 노을평원을 휘젓고 다니니 앞으로는 분명 집을 잃은 사람들이 나올 거야.” 걱정된다는 표정입니다. “우리 전사가 네 명이 있어. 무기도 갖고 있고 솜씨도 좋지.” 아까 장총을 지고 같이 온 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은 잿더미 부족 사람들을 돌보고, 남은 두 명은 오토바이 골짜기까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족장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훔바바라고 하네.”

스미스 으아아아!

바베큐 일곱 겹의 갑옷을 입고 있네요! 우리 마을에는 길가메시도 엔키두도 없는데. (웃음)

MC 음. 안내를 할 두 명이 각각 메시와 키두라고 하죠.

효자손 축구를 잘 할 것 같네요. (웃음)

MC 둘 다 앙상합니다. 근육은 없고 힘줄만 있는 듯한 몸매. 눈 밑에 줄줄이 흉터를 냈습니다. 피부색은 황무지의 물이 들었는지 시뻘겍습니다.

바베큐 바베큐 스테이크 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일단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지.”

효자손 효자손은 트럭을 준비합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찾으러 갈 거예요. 무에, 타이, 메시, 키두, 와라! (웃음) 재빨리 출발할게요.

MC 오토바이만이 아니라 앰블런스까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트럭에 생명유지장치를 붙이는 아까 그 성장 옵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바베큐 그리고 좀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스미스의 간호를 돕게 합니다.

MC 할머니가 하나 있어요. 허리에는 약초주머니도 차고 있습니다. 얼마
나 효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의사라고 합니다.

바베큐 그래요? 그럼 캔을 따로 하나 챙겨 줍니다.

MC 게걸스럽게 먹습니다. 할머니답지 않은 왕성한 식욕으로...

바베큐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거나?

효자손 “너 같은 할머니가 어디 있어?” (웃음)

MC 의무실에 할머니를 데리고 가자 스미스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
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스미스의 곁에 앉더니 약초를 개어
물감 같은 것을 만들고, 그걸로 스미스의 얼굴에 바릅니다. 그리고 뭇
가 주문 같은 소리를 읊습니다.

젯더미 부족의 전설

MC 한편 족장 흠바바는, 부족민들을 모아 놓고 전설인지 무엇인지를 즐
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되게 궁금하네요, 그거.

MC 오랜 옛날, 젯더미 부족의 조상들이 원래 커다란 산속 동굴에 살았는
데 거기 거대한 오토바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자기가 그 안
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스미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MC 딱히 구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들은 한참을 떠돌다가 외
부인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굴 속에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죽이고 나
라를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미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긴데요.

MC 그러니 우리도 외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황무지를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효자손 굉장히 현 상황을 정당화하는 전설이군요.

MC 아이들 몇이 외칩니다. “족장님! 흑기사와 아들 얘기를 해 주세요!”

바베큐 내가 네 애비다!

효자손 후- 후- (웃음)

MC 네. 족장이 입에 손을 대고 “후- 후-” 하는 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침
을 꿀꺽 삼킵니다. (웃음) 이거 어느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오토바이의 무덤

MC 효자손으로 카메라를 돌리죠. 트럭이 달립니다. 앞에는 무에가 운전을 하고 짐칸에는 타이가 탔어요. 출발할 때는 그랬는데, 자리를 바꾼 적도 없지만 이제 타이가 운전을 하고 무에가 짐칸에 있습니다. 메시와 키두는...

효자손 길 안내를 해야 할 테니 한 명은 앞에 타야겠네요.

MC 네. 메시가 앞에 타고 키두가 뒤에 탑니다. 메시가 길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짐칸에 창문이 있나요?

효자손 없습니다.

MC 위를 열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효자손 그건 된다고 하죠.

바베큐 깃발 흔들려 나갈 천장 문이 있는 거군요.

MC 기계팔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효자손 옷, 주도면밀한데!

MC 그 창이 있다는 것을 알자 키두가 자기를 올려 보내 달라고 조릅니다.

효자손 허락합니다.

MC 올라가더니 팔을 좌우로 짝 펼치고 바람을 받습니다.

바베큐 혼자서 타이타닉.

효자손 그런 거 하라고 올려 보낸 게 아닐 텐데! (웃음)

MC 배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선장이나 선원들은 맨날 봐서 짜증 날 것 같아요. 올라가서 밖을 보던 키두가 “저쪽이다!” 하고 소리를 치는데, 아래에서는 보여야 말이죠. “오토바이 무덤이 보인다!”

효자손 “어디야? 어느 쪽?”

MC 대답을 안 해줍니다. 위에서 타이타닉 하느라. (웃음)

효자손 비집고 올라가서 봅니다.

MC 올라가 보니, 정말로 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주변 풍경이 완전히 생소해요. 어디 산 뒤편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럭은 절벽 앞에서 멈춥니다. 내려서 아래를 보니 비좁고 깊은 협곡이 있어요. 누런 안개가 끼어 있고, 독한 냄새가 납니다.

효자손 “지형이 생각보다 험하군.” 밧줄을 트럭에 묶고 내려가서 줄줄이 꿰어서 끌어 올려야겠습니다.

MC 트럭에 윈치가 있다고 하죠.

효자손 아예 번지!

MC 번지 가나요! 뛰어내려서 바다에 놓인 오토바이를 꺼안고 반동으로 튀어오르며 절벽 위에 갖다 놓는! (웃음)

효자손 제작 중인 연을 써서 내려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치 행글라이더처럼.

MC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밑에 엔진까지 다는 걸 전제로 만든 거라, 사람만 달랑 붙어 있으면 균형이 이상합니다. 위험 견디기.

효자손 네.

MC 근데 윈치로 천천히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연을 타시는 이유가?

스미스 실험해 보려고?

효자손 (끄덕끄덕)

MC 알겠습니다. 목숨, 그런 거 예전에 버렸다!

효자손 효자손은 겁이 많지만, 무에와 타이한테 한 30분 전쯤에 뭔가 또 실망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하지 마, 됐어!” 모드입니다.

MC 운전하다가 돌에 바퀴가 튕 거죠. “이크! 이 아무 쪽에도 쓸모 없는 것들!” (웃음) 네. 그래서 몸소 무모한 글라이딩을 합니다.

효자손 몸에 끈을 매고! (주사위: $2d6+0 = 12$) 오오.

MC 연이 어떤 모양이지요?

효자손 방패연입니다.

MC 님자가 연 타는 게 생각나네요. 슬슬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계곡에 바람이 가득해서 유유히 활강 가능합니다.

효자손 내려가면서 직접 몸으로 공기의 흐름과 균형을 체크합니다.

바베큐 직접 내려 갔으니까 필요한 부품만 뜯어서 올려 보낼 수 있겠네요.

효자손 네, 엔진만.

MC 근데 그래도 끌어 올릴 게 많네요. 엔진도 올리고, 앰블런스 설비도 뜯어서 올리고, 사람도 올리고, 연도 올리고.

효자손 그렇네요.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나.

스미스 밑에서 엔진을 분해하고 연에 바로 붙이면...

효자손 오. 현장 조립. 그렇게 날아오르는군요.

MC 이름은 주작호... (웃음)

효자손 그러면 무에와 타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등실하고 눈 앞에서 떠오르는 건가요? 괜찮군요. 네.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MC 안개 밑으로 활강하니 누런 물이 얇게 흐르는 계곡 바닥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예닐곱 대가 계곡 안에 추락해 있어요. 그 곁에는 흰 눈송이 모양이 찍혀 있는 빨간 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앰블런스지요. 효자손 아까 성장했을 때 트럭에 생명유지장치 붙이는 옵션 택했잖아요? 여기서 가져다 트럭에 붙이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 골짜기는 냄새가 아주 심하고, 허파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효자손 앰블런스에서 방독면을 꺼내 씁니다.

MC 필터 유효기간은 지났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곁에 널브러진 해골들의 모양으로 보아, 오토바이가 추락한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보존 상태는 괜찮습니다. 바퀴 축 같은 건 다 휘어져 있지만, 녹도 하나도 안 슬고... 계곡에 흐르는 누런 물이 오토바이를 덮고 있는데, 그게 악취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효자손 기름인가요?

MC 네. 그래서 보존이 잘 된 듯.

효자손 오토바이 튀김. (웃음)

MC 엔진오일의 강입니다.

효자손 뭐지. 오토바이의 천국인가?

MC 그곳은 휘발유와 엔진오일이 흐르고. (웃음)

바베큐 타는 사람도 없고. (웃음)

효자손 해체합니다. 공구를 갖고 끼릭끼릭.

MC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을 골라서 뜯습니다.

효자손 어, 여러 개 뜯고 싶어요.

MC 네, 여럿 뜯습니다. 일곱 대쯤 되는데, 세 대를 해결했습니다. 연에는 엔진만 달면 돼요.

효자손 엔진을 달고, 나머지 엔진 둘을 싣고, 앰블런스 내에 있는 고가의 장비를 뜯습니다.

MC 앰블런스 안에도 해골이 된 시체가 몇 있습니다.

효자손 고가의 반창고... 디즈니 라이선스가 있는!

MC 잘 나가는 영주만 쓸 수 있다는 인어공주 반창고.

효자손 날아오를 수 있을 수 만큼 싣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나 많은 의료 장비가 필요한가?

MC 엔진이 매우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 무게를 버티고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효자손 엔진오일을 강에서 떠다가 넣고 시동을 겁니다.

MC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효자손 연연연연연 하는 소리가.

MC 연에 달았기 때문에?

바베큐 상황 파악이 빠른 엔진이군.

동력연, 뜨다

MC 무에, 타이, 메시, 키두의 시점입니다. 다들 아래에 내려간 사장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하고 있는데 밑은 유독한 안개가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개를 뚫고 날아오르는 동력연! 지난 번에는 맥가이버였는데 이번에는 에어울프 주제곡이 흐릅니다. (웃음)

효자손 호버링도 되나요?

MC 될까요?

효자손 (속삭이며) 된다, 된다, 된다.

바베큐 네. 주제곡이 에어울프였기 때문에. (웃음)

MC 수직이착륙연인가요...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원리가?

효자손 괴과학.

MC 이건 초능력의 영역인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바베큐 사념의 소용돌이에서 나온 설계도로 했으니.

MC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여기는 사실 현실 세계가 아니고... 여기는 매트릭스지! 여기는 마인크래프트야! (웃음)

스미스 우리는 다들 네모 얼굴이었군요.

MC 대리석 같은 얼굴! 아니, 되기는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수직 이착륙을 하는 건지는 설명을 해 보죠?

효자손 날개를 펴려인다?

MC 방패연인데요? 양쪽에 방패가 달려서 펴려 펴려?

스미스 방패 부분은 그냥 몸통이고, 양력을 얻는 부분은 따로 있었던 거죠.

효자손 방패가 카드마술처럼 펼쳐져서?

MC 음... 연이 진동을 하며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스미스 그래서 엔진이 필요했던 거군요. 진동을 얻기 위해서.

효자손 진동만을 얻기 위해서? 떨리기만 하면 됐다는 건가!

MC 다리를 좀 세게 떨어도 떠오를 수 있었다거나... (웃음)

효자손 어쨌든... 연연연연 소리를 내며 올라옵니다.

MC 그리고 트럭 옆에 착륙.

효자손 “성공이다.” 짐을 내려요.

MC 무에와 타이가 박수를 칩니다.

효자손 메시와 키두에게도 박수 치기를 강요합니다.

MC 박수 칩니다.

MC 메시와 키두가 말해요. “그럼 이걸로 우리는 약속을 지킨 거지?”

효자손 그렇다고 합니다. “좋다. 가자.”

최종병기를 싣고

MC 트럭에 탑니다.

스미스 가는 길도 연을 타고 가나요?

MC 그렇지는 않겠죠? 트럭에 탑재하고... 나중에 트럭도 개조해서 천장 쪽 열리고, 연이 발진하도록...

효자손 와아. 연을 분해했다가, 이륙하기 전에 조립한다거나?

MC 아니면 뚜껑을 열고 부품을 공중에 사출해서 결합. (웃음)

바베큐 갈수록 로봇 만화 같이 되어 가는데요. 좋은데.

MC 기계팔도 떨어져서 동력연에 붙고, 트럭이 바로 서고, 다리도 들고.

바베큐 그때까지 플레이할 수 있을까? (웃음)

효자손 2차 대전 때 일본이 하려고 했었죠.

MC 변신 트럭요?

효자손 아뇨. 잠수함에 비행기 격납하기.

MC 비행기 부품을 사출해서 공중에서 결합요?

효자손 아뇨, 날개만 접어서.

MC 췌. (실망했다는 표정) 그렇게 성공적인 인양과 조립을 마치고 돌아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뒤에 타고 있는 거죠?

효자손 아뇨. 효자손은 앞에 탑니다.

MC 운전은 무어가 하고, 효자손은 그 옆에 타요. 타이, 메시는 화물칸에. 키두는 또 위에 올라가서 팔 펼치고 있고. (웃음)

젯더미 부족은 무엇을 타고 다니나

바베큐 하긴, 젯더미 부족은 차 탈 기회도 없지.

MC 그렇습니다. 차 없어요. 말 타고 다닙니다. 실은 말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타고 다녀요.

효자손 타조!

MC 토끼? 돌연변이 거대 토끼? 사슴? 유니콘? 거대 염소?

효자손 두꺼비 기병!

MC 멀미가 좀... 피부병도 생길 것 같고요.

효자손 개구리 기병! 성벽도 막 뛰어넘고 말이죠.

MC 성벽을 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 한 번 뛰었다 착지하면 개구리는 살지만 사람은 죽는다! 그 멀미를 버텨낼 수 없어! (웃음)

복수의 기회

MC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시야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십여 대의 자동차들.

효자손 엇? 트럭들인가요?

MC 본격적인 트럭은 없어요. 별의별 차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픽업 트럭도 있고, 차체가 파이프로 되어 있는 그 뭐지?

바베큐 매드맥스에 나올 것 같은 ... 철골차?

MC 철골차! 그거 좋네요. 아니, 철근차? 콘크리트가 아직 굳어있는데 붙어 있는 철근으로 만든! 그리고 NYPD 깃발이 그 사이에 휘날립니다.

바베큐 도망치는 건 쿤인가.

MC 그렇습니다. 혜성의 꼬리처럼 날리는 머리카락.

바베큐 뉴욕에서 탈출한 거군요.

MC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베큐 빈집털이! 빈집털이를 해야 해! 아니, 혜성단이 이미 털고 있지 않을까?

효자손 앗, 지금 뉴욕에 가면! 혜성단을 폭격할 수 있을지도.

MC 글썄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여기는 뉴욕이랑 꽤 가깝습니다.

효자손 그럼 지금 폭격을 하러 갈까...

MC 폭탄 없지 않나요?

효자손 그러니까 바베큐 마을로 일단 돌아가서...

MC 아니면! 지금 제 말 하면 오는 자의 예비를 쓰는 거예요. 이거 적절한 도구와 지식을 갖고 원하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효자손 하지만 방금 전까지 트럭을 타고 있었는데...

MC 어떻게 거기에 갇는지는 설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되어 있네요.

효자손 안 해도 좋나요! 하늘에서 폭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MC 예비를 써서 갑자기 이동하는 게 맘에 걸리면, 당장 쓸 폭탄이 있다고만 해도 좋아요. “앗! 그 폭탄은 어디서?”

효자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니, 이것이 룰에서 보장이 되다니! (웃음) “연을 준비해라.” 화물칸에 대고 명령을 내립니다.

편대 출격

MC 네. 트럭 뚜껑이 열립니다.

스미스 아, 이 트럭 벽하고 지붕이 포장마차잖아요?

MC 맞다, 그랬죠. 그럼 쫄쫄이 방수포가 좌르륵 걸립니다. 지금까지 지붕 열고 나간 건 뭐죠? 지퍼라도 있었나 보네요.

효자손 효자손도 짐칸으로 가서 출격 준비를 합니다.

MC 근데 뉴욕에 갔는데 혜성단이 없으면 어떡하죠?

효자손 휴고를 폭격한다?

MC 뉴욕도 곧 적으로 돌리게 될 테니, 최소한 경찰의 의미라도 있겠죠.

바베큐 “이렇게 된 이상 뉴욕을 폭격한다!” (웃음) 막 여신상 쓰러지고.

효자손 와! 세계 멸망의 상징적인 장면이겠네요.

바베큐 비록 사람 크기의, 햇불의 여신상이지만요.

효자손 흥분해서 무에와 타이에게 말합니다. “혜성단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오겠다.”

MC “사장님, 혜성단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기 있는 건 뉴욕의...”

효자손 “어디 있는지는 알 것 같다.” 떠올라요. 음. 아예 여기서 세 대 다 날릴 수 있나요? 엔진 셋을 갖고 왔으니. 동력연 프레임은 출발하기 전에 둘 만들어 뒀다고 하고요. 나머지 두 대는 메시와 키두에게 맡깁니다.

MC 아... 제 말 하면 오는 자의 예비가 폭탄과 더불어 이것까지 마련해 준다고 할까요. “이상하다 아깐 없었던 것 같은데?”

효자손 “동력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오토바이 엔진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웃음)

MC 타라는 소리를 듣자, 메시와 키두가 대답해요. “우린 이거 탈 줄 모르는데?”

효자손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 보면 쉬워. 타면 바로 알게 된다.”

MC “몰라도 후회할 틈이 없을 것이다.”

효자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MC 모르면 정말로 그만. 모든 것이 그만. (웃음)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효자손 “지금 뉴욕에 가면 필경 혜성단이 있을 거야. NYPD의 상당수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겠지. 우리는 뉴욕을 불바다로 만들고 혜성단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MC 애들이 주저합니다. 이걸 조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효자손 네. 제가 원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력연에 타게 하는 것입니다. 매력 이죠? (주사위: 2d6-1 = 10)

MC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따로 식량을 줘야 해! 그리고 옷도!” 대충 1바 꿈씩 주면 되겠죠.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면요.

효자손 그러겠노라고 하고, 조종법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폭탄의 사용법까지도 가르쳐 줘요.

MC 안전장치를 풀면 짧은 시간 뒤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류탄이랑 똑같아요. 두 사람이 연에 가서 앉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누르면 되나?” 부릉부릉.

효자손 연연연연.

MC 떠오릅니다. 계속 올라가요.

효자손 예? 정말요? 소실점이 되어 사라지나요?

MC 그럴 듯하다가 도로 내려옵니다. 정말 금세 능숙해진 듯.

효자손 재들 재주가 있는데요. 다 익혔을 듯하면 출발합니다.

MC 이거 조종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효자손 오토바이 같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핸들까지. 효자손도 따라서 날아오릅니다.

MC 네. 트럭 짐칸은 다 비고, 아까는 타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에가 손을 흔들니다. (잠시 생각) 아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 자리에서 신발명품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스미스 어차피 사념의 소용돌이가 가르쳐 준 지식으로 만든, 오토바이 엔진으로 날아오르는 동력연이니까 상관 없지 않을까요.

MC 그러게요. 이게 정말로 기계의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여하튼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뉴욕으로!

효자손 아래에 오토바이의 무리가 보이는지 주시하면서 갑니다.

MC 정말로 있습니다. 뉴욕 방향을 향하는 오토바이의 떼. 다들 위를 올려다 봅니다. “저건 뭐지? 새인가?” (웃음) “비행기인가?”

스미스 “아니야. 동력연이야!” (웃음)

MC “그런데 비행기가 뭐지?”

효자손 사념의 소용돌이가 잠시 개입을 ...

MC 그리고 여신상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와 더불어 성벽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신기한 것이 있어요.

효자손 설마 대공포?

MC 대공포는 아니고, 쇠대롱들이 30도 45도 각도로 뻗어 있습니다.

스미스 대롱이라면 어느 정도의?

MC (지름 20cm 정도의 원을 그리며) 이 정도 굵기예요.

효자손 역시 대공포인가!

MC 콰광, 하는 소리가 연속으로 나며, 대롱들이 불을 뿜습니다. 연의 뒤 쪽에서 충격이 느껴지고, 돌아보자 오토바이의 잔해가! 오토바이의 무리는 타격을 입지만, 그래도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효자손 대공포가 아니라 야포로구나! 쫓아갑니다.

MC 그리고 뉴욕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서둘러! 빨리 다음 사격을 준비해라.” 오토바이 무리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정문을 향해 질주합니다.

폭격

효자손 오토바이 무리 한가운데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MC 저쪽은 전투 준비가 완전한 상태라 응사가 가능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가온 거라 기습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다칠 위험이 있어요.

효자손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가릴 정신이 아니에요.

MC 그러면 이 공격은 힘으로 빼앗기가 됩니다. 목숨을 빼앗는...

효자손 (주사위: 2d6+강인 = 7) 목록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는군요. ‘큰 피해를 가한다’와 ‘적이 두려워하게 만든다’를 택하겠습니다.

MC 이 폭탄은 수류탄으로 치죠. 수류탄은 4피해 광역입니다. 큰 피해를 가하니깐 5피해가 되지만, 저쪽 패거리와 규모 차이가 있어서 조절이 돼요. 이쪽은 원래는 개인 세 명이지만, 신무기에 탑승 중이고 기습인 면도 있으니까 소규모 패거리로 칠게요. (계산을 해 본다) 적은 중구 모라 4피해만 입습니다. 적의 대응 사격으로 입는 피해는 4... 메시가 타고 있는 동력연은 엔진이 폭발하고 날개가 타고오르고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효자손 메시는 추락하나요?

MC 네. 다양한 방향으로 추락합니다.

스미스 헉.

바베큐 으으!

MC 키두는 동력엔 엔진은 멀쩡하지만 왼발과 왼다리와 왼쪽 날개에 총알을 맞아 뱅글뱅글 돌면서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효자손은 엔진 블록이 총알을 어느 정도 막아 줬지만, 튕긴 것이 몸에 맞았습니다. 엔진과 방탄조끼 합해서 2장갑으로 치죠. 2피해를 입으시면 됩니다. 적들은 뉴욕에서 온 포격에는 버텼지만, 수류탄 폭격에는 정통으로 맞아 우왕좌왕합니다. 아무 질서도 무엇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몇몇은 쓰러진 오토바이를 두고 뛰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효자손 천천히 착륙합니다.

MC 네. 하지만 부상은 꽤 심합니다.

스미스 아까 트럭에 앰블런스 설비를 옮겨 놓았지요?

효자손 네. 그랬죠.

MC 예. 무에와 타이가 트럭을 몰고 달려옵니다.

효자손 저는 적들이 두고 온 오토바이를 챙길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리품이죠!

MC 무에와 타이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옵니다.

효자손 때맞춰 잘 왔다고 칭찬합니다.

MC 오토바이 갱들이 물러나자 뉴욕에서 차 몇 대가 나와 이리로 접근합니다.

효자손 기다리는 것 말고 할 게 없네요.

MC 아! 피해 액션을 해야죠.

효자손 네. (주사위: $2d+2 = 9$) 성공하면 나쁜 거죠?

MC 그렇습니다. 제가 목록에서 고르면 되네요... “잡고 있던 것을 놓친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러 가는데, 뭐가 잘못 됐는지, 엔진이 갑자기 부르릉거리더니 연이 날아갑니다.

효자손 날아가요? 제 혼자서?

MC 네. 그리고 바람을 타더니 높은 바위 기둥 위에 올라 앉습니다. 올라가서 끌고 내려올 수는 있겠는데, 시간 좀 걸리겠어요. 다행히 불은 꺼졌습니다.

효자손 추락한 것 중에 키두가 타고 있던 것만 멀쩡하네요. 저는 다쳤으니 부하를 보냅니다. 무에한테, 여기 있는 오토바이 하나를 잡아 타고 키두가 떨어진 쪽을 가리킵니다. 저리로 가서 추락한 동력연을 도로 챙겨 오라고요.

MC 무에가 묻습니다. “메시는요?”

효자손 “메시는... 모든 곳에 있다.” (웃음)

MC 무에가 오토바이에 올라 가리킨 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타이가 말합니다. “사장님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효자손 트럭에 타서, 아까 앰블런스에서 꺼내온 장비로 치료를 합니다. 타이에게는 운전을 시킵니다.

스미스 지금 효자손 부상은 안정이 안 된 거죠?

MC 네. 이대로 있으면 악화됩니다. 천사함도 하나 꺼내 왔다고 하지요. 재고는 1d6 있다고 할게요. (주사위: 1d6+0= 2) 재고라고 하는 것은 휴지, 살 접촉제, 뼈 고정용 못, 혈청주사, 진통주사 등등의 총칭입니다. 전에 스미스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함 판정 하기 전에 위험 견디기를 했지요? 여기는 이제 의료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정이 필요 없습니다.

효자손 재고를 하나 소진합니다. (주사위: 2d6+1 = 7)

MC 우선, 진통주사를 맞았는데도 너무 아픕니다. 참으려면 위험 견디기에 성공해야 해요.

효자손 냉철이죠? (주사위: 2d6+0 = 6)

MC 너무 아파서 차의 진동에조차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장 치료는 물 건너 갔습니다.

효자손 “야, 세워! 세워!” 트럭이 멈춥니다.

MC 그리고 또 하나, 상처가 크게 벌어졌어요. 무에가 무슨 일인지 달려와서 보니까 피가 철철철. 무에가 보더니 이거 앞으로 이틀 정도는 살펴 봐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36시간 동안 누가 계속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효자손 무에요?

MC 그새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다른 차들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편 바베큐 마을에서는...

바베큐 출진

바베큐 잿더미 부족의 흠바바를 불러 놓고 바베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부족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우리에게 세금을 낸 적도 없고, 오히려 그 동안 영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자를 약탈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돌봐주었다.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대답하기 전에 얼른 말을 가로채요. “밖에 부족의 전사들이 더 있다고 했지? 그 사람들을 모아 오라. 잠시라도 내 병사로 썼으면 좋겠다.”

MC 흠바바는 깃털 장식을 고쳐 쓰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통 부탁이 아니야. 우리 전사들은 자존심이 강해 당신 같은...” 음. 밀크로더들은 고가도로를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을 지상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잿더미 부족은 마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효자손 깍쟁이! (웃음)

바베큐 그러게요? 애들은 자기네 마을이 있나?

MC 야영지의 연속이겠지요.

바베큐 그러면 우리를 불박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MC 좋습니다. “당신 같은 불박이 추장의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열댓 명을 먹여살리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이다.”

바베큐 “부탁? 지금 내가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지?” (웃음) 마틸다에게 손짓을 하고 말합니다. “야만족의 노인과 아이들에게 총을 겨눠라.” 강압을 합니다.

MC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바베큐 “말을 듣지 않으면 저들을 다 썩 죽여 버리고, 말들도 썩서 통조림으로 만들겠다.”

MC 사람들은 통조림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바베큐 만들면 누가 먹어야 하잖아요!

MC 그러자 흠바바가, “이 잔악한 불박이놈!” 하고 소리칩니다.

바베큐 (주사위: $2d6+2 = 7$) 경험치도 받습니다.

MC 제가 목록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지요. (룰을 읽는다) ‘손을 들고 천천히 물러난다’ 여기서 손 들고 물러나서 어찌겠다는 거야!

바베큐 10+일 때의 옵션도 가능하죠?

MC 네. 10+이면 “그래, 다 죽여라”하고 “당신 뜻대로 하겠소” 사이에서 만 고를 수 있고, 7~9이면 다섯 가지 옵션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다섯 가지 중에 이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잠시 생각) ‘이쪽이 좋아할 듯한 것을 준다’? 이걸 어떻게? “미남 미녀 다섯 명을 바치겠다.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는가.” (웃음) 아닙니다, 이거.

스미스 전사들 다는 안 되고 잘 싸우는 사람 하나 드릴게요, 처럼 나올 수도?

MC 그것도 괜찮겠네요. 같은 잿더미 부족의 전사들이라고 하지만 다들 속해 있는 씨족이 달라, 그걸 모으려면 오랜 회의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려 온 네 명을 주겠다. 둘은 지금 효자 손이랑 같이 있지만요. 그리고 잿더미 부족의 용사가 은거한 곳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상황을 얘기하면 반드시 올 거요. 그 사람만이 잿더미 부족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소.” 흠바바가 말 합니다.

바베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노인과 아이들은 잘 먹이고 잘 입혀 주겠지만, 언제든지 머리에 총알이 박힐 수 있는 상태로 둘 것이다. 그리고 흠바바 당신이 밖에 나가 무슨 꿩꿩이를 꾸밀지 모르니, 용사의 은 거지라는 곳에는 나와 마틸다가 따라가겠다.”

MC 그러라고 합니다.

바베큐 “그럼 안내를 하도록.”

MC 마을의 트럭을 타고 가나요?

바베큐 그래야죠. “쌀! 쌀!”

MC 쌀이 옵니다. 이 트럭은 너무 빨리 가려고만 안 하면 열 명까지 탈 수 있어요.

바베큐 그렇게 합니다. 흠바바랑 마틸다, 쌀, 바베큐 다 포함이죠?

MC 네. 그렇게 소규모의 패거리로 인정이 돼요.

바베큐 지금은 요리사 모자가 아니고 군인 모자를 쓰고 있어요.

MC 모자로 현재의 자기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거군요.

바베큐 네. 군사 독재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MC 그렇게 출발합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스미스

MC 갑자기 깨어난 스미스.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의식이 흐릿합니다. 그리고 있는데 뒤쪽에서 사냥꾼 한 명이 말합니다. “스미스 씨. 주무셔 야 낮습니다.” 눈 위에 수건을 얹어요.

스미스 고개를 움직여 수건을 떨구고, 선글라스에 턱짓을 합니다. (웃음)

MC 네. 주워서 끼워 줍니다. 뭔가 진통제가 잔뜩 주사된 것 같고요. 조금 있으니까 발가락을 폼지락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엄지발가락 부터.

스미스 (웃음) 7년이나 지나다니! 폼지락 폼지락. 입과 목은 잔뜩 말라 소리가 안 나옵니다.

MC 잘 하면 물컵으로 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미스 잘 해 봅니다.

MC 그런가요! 위험 견디기!

스미스 물컵으로 손을 뺀 것뿐인데요?

MC 지금은 그조차도 어렵고 위험합니다.

스미스 (주사위: $2d6+3 = 7$)

바베큐 +3이 되니 주사위가 이렇게 나와도 성공이군요.

MC 물컵으로 손을 뺀다가 우당탕, 하고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물 컵은 잡았어요. 간호하던 사람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 선글라스를 끼워줬더니!” (웃음) 물로 목을 축입니다. 감각이 하나씩 돌아오는 기분.

바베큐 아프겠다!

효자손 감각이 하필 이때 돌아와!

MC 감각이 돌아와서 창피합니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다니. (웃음) 이제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미스 침대를 짚고 몸을 일으킵니다.

MC “아니, 누워서 쉬셔야죠!”

스미스 “지금 상황이 어쩔소?”

MC “지금 바베큐님이...” 하고 소상히 설명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유명한 계곡 뭐 있죠?

스미스 유명한 계곡요? 노을평원이에요?

MC 네. 지구에 실제로 있는 지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스미스 그랜드 캐년? (웃음) 사망의 골짜기? (웃음)

MC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였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였나?

바베큐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MC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무장한 동포들과 함께 가셨으니 괜찮긴 할 텐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 골짜기는 안 좋은 소문이 많아서...”

바베큐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 이름이네요.

MC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웃음)

스미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노약자를 인질로 삼다니, 이건 영주가 할 짓이 아닌데.” 가서 찾아 뵙고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할까?

MC 간호하던 사냥꾼이 아직 효자손과 일행은 소식이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를 만든다고 나가시더니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스미스 양쪽 다 걱정되네요. 하지만 몸은 한 개고! Hx가 높은 쪽을 택하죠.

MC 효자손이군요.

다시 황무지로 떠나는 스미스

바베큐 하지만 효자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스미스 어쩔 수 없지. 뇌를 개방합니다.

MC 기괴가 -1인데 뇌 개방이라니, 용감한데요.

스미스 스미스의 뇌 개방 풍경은, 녹색 코드가 흘러내리겠죠! (웃음) “자리를 비켜 주시오.”

MC “여긴 의무실인데...”

스미스 “그럼 내가 자리를 비켜야겠군.” (웃음)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뇌를 개방합니다. (주사위: $2d6-1 = 10$)

MC 와... 마치 시야 가장자리에서 종이가 접히듯 풍경이 바뀝니다. 알 수 없는 녹색 글자들이 흐릅니다.

스미스 아무 질문이나 할 수 있나요?

MC 네. 뇌 개방이 왜 있냐면요, 아포칼립스 월드가 거의 즉흥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중간에 정보가 적절하지 않으면 전개가 막힐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있는 만능열쇠인 셈입니다.

스미스 효자손의 현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MC 네. 정신을 집중하자, 갑자기 풍경이 바뀌며 자기가 막 뛰고 있습니다. 이건 스미스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효자손의 트럭 뒤예요. 그런데 새로운 설비가 있고, 침대 같은 것 위에서 효자손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사장님!”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에나 타이, 둘 중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시야 가장자리에 그 위치가 뜬니다. 좌표까지!

스미스 혁. 좌표 알아 볼 수 있나요?

MC 생전 처음 보지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가까이에서 트럭을 향해 달려 오는 뉴욕의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스미스 가 봐야겠네요. 나가서 무장을 챙깁니다. 옷을 차려 입고...

MC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미스 넥타이까지 바르게 맵니다. 그리고 경비를 서던 사냥단원을 한 명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효자손 선생을 찾으러 다녀올 테니, 혹시 무슨 일이 있거든...”

MC “어디 있는 줄 알고 나가신다는 말입니까?”

스미스 “뉴욕 근처.”

MC “아니, 그 몸으로 거기까지 걸어서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스미스 그것도 그렇네요. 말을 한 마리 내 달라고 할까?

MC 그리고 보니 말 있죠? 잿더미 부족이 타고 온 거.

바베큐 그 말들은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가져 가려면 나중에 바베큐한테 혼날 각오를 하셔야 할 거예요.

스미스 그러면 “자네 말이 맞네” 하고는 말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죠. (웃음)

MC 그러면 마굿간지기랑... 아니, 마굿간지기가 있을 리 없지. 마굿간이 없을 테니. 말들은 고기창고 옆에 묶여 있습니다. (웃음) 고기창고에는 항상 어슬렁거리는 경비원이 있어요.

스미스 처음에는 말로 해야지. “효자손 선생을 찾으러 가야 하니 말을 한 마리 내주게.”

MC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젓더미 부족 놈들은 말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서, 붙잡아 놓은 동안에도 잘 보살피라고 바베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스미스 “하지만 자네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겠지.” 칼을 들이댁니다.

MC 오? 강압입니다.

스미스 나는 강압도 냉철로 하지! (주사위: $2d6 + 3 = 15$)

MC 별별 떨며 말 한 마리를 묶은 밧줄을 푼다. “저, 이거 탈 줄은 아시 나요?”

스미스 “지금부터 알아 봐야지.” 올라타입니다.

MC 네. 위험 견디기!

스미스 위험 견디기도 냉철로 하지! (주사위: $2d6 + 3 = 7$)

MC 굴러 떨어질 뻔합니다. 아무래도 말이 낮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탈 수는 있는데, 목적지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미스 여하튼 나갑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MC 다시 화면을 전환해 봅시다. 여기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오래된 풋말이 입구에 꽂혀 있어요.

바베큐 “잠깐, 차를 세워.”

MC 차가 멈춥니다.

바베큐 “여기는 그냥 봐도 음험한 곳인데, 왜 하필 여기지? 계략이 아닌가?”

MC “계략이면 내가 계략이라고 말하겠소?”

바베큐 하지만 여기서 사람 읽기를 하면 어떨까? (주사위: $2d6+1 = 7$) 경험치도 받고, 성장도 하고!

MC 네.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와중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베큐 (룰을 참고한다) 어떤 질문을 할까?

MC “여기가 위험한 곳이기는 하지만 . . .” 가만있자. 이 사람 이름을 또 정해야 하는데.

스미스 부족의 용사요?

MC 네. 지금까지 잿더미 부족민 이름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따왔으니 그걸 따르자면...

바베큐 여자 히어로! 여자 히어로를 원해요!

MC 여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슈타르라고 하죠. “슈타르가 여기로 은퇴를 했소. 내가 부탁을 하면 나와 줄 거요. 슈타르가 칩거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면 다른 씨족의 전사들도 하나둘씩 합류할 것이고.”

바베큐 음음.

MC “그러니 여기가 좀 어둡고 좀 사망이고 그렇다 해도 (웃음) 이걸 두려워하면 슈타르와 함께 싸울 자격이 없다고 하겠지.”

바베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걸 질문으로 할게요.

MC 예. 대체로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어요.

바베큐 신음을 하다가, “좋아. 하지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혼자 멀쩡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전진합니다.

MC 이 골짜기는 거대한 바늘처럼 생긴 바위들이 서로 기대어 비스듬히 서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바위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것이, 마치 건물의 창문과 같아요. 전설에 따르면, 지나간 황금시대에는 이 바위들이 거대한 궁전들이었다고 합니다. 세계가 멸망할 때 불타고 쓰러져서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베큐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길이 막히면 내립니다. 그리고는 흙바바를 앞세우고 뒤에서 총을 겨누며 걷습니다. 어두우니까 회중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갑니다.

MC 쌀은 마틸다의 소매를 붙잡고 갑니다. 겁을 잔뜩 먹었어요. “애들이 그러는데, 여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산대요.”

바베큐 “그게 이런 사람들이다.” 손가락으로 흙바바를 가리켜요. “걱정할 것 없다.”

MC 그러자 흙바바는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지만, 여기에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아닐 거요. 우리는 여기 들어오지 않소. 슈타르가 여기 사는 것도 잿더미 부족이 오지 않기 때문이지.”

바베큐 “그럼 여기 산다는 사람들은 잿더미 부족이 아니라는 거요?”

MC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 때 주변에서 들려 오는 크르릉거리는 소리!

바베큐 소리를 칩니다. “경계! 경계!” 그리고 회중전등을 이리저리 비춥요. 불박이 티를 냅니다. (웃음)

스미스 그건 사망 플래그 아닌가요!

바베큐 바베큐는 착했습니다? (웃음) 아냐, 안 착했어!

MC 바위와 바위의 틈새에서 상당한 수의 사람 그림자가 기어 나옵니다.

바베큐 이미 들켰으니, 그리고 여긴 남의 홈그라운드이니, 대놓고 목적을 얘기합니다. “에헴. 나는 여기서 좀 떨어진 바베큐 마을의 영주인데, 용사 슈타르님께 전할 말씀이 있어서 왔소.”

MC 사람 같은 것들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가오는데, 눈에서 녹색 빛이 형형하게 비칩니다.

바베큐 말을 뺏습니다. “우리는 용건이 끝나면 얌전히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싸우겠다고 싸워 주마!”

MC 이리로 달려옵니다. 수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두 다리로 걷고 두 팔을 휘젓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베큐 “모두 방어 태세!” 지휘를 합니다. (주사위: $2d6+2 = 10$) 예비 셋을 받습니다.

MC 괴물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바베큐 예비를 바로 하나 써서, 적의 강한 전진에 버티는 명령을 내립니다.

MC 다들 총을 쏩니다. 이쪽은 수가 적어서 소규모, 저쪽은 중규모입니다.

바베큐 원래 저희 패거리의 무장 상태가 안 좋아서 -1피해를 받지만, NYPD의 물자를 뺏은 덕분에 일시적으로 그 효과가 없다고 하기로 했어요.

MC 그랬었죠. 그게 이번에 적용됩니다.

바베큐 그렇지만... 성장을 할 것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 성장 옵션으로 아예 무장 상태를 보통으로 만들어 버리죠.

MC 아, 그래요? 네. 이로써 바베큐 패거리의 3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편의 사격에 괴물들이 우루루 쓰러지지만,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달라 붙어서 손톱과 이빨로 공격합니다. 바베큐에게도 한 마리 달려 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바베큐 식칼로 내리칩니다. 힘으로 빼앗기죠?

MC 네. 여기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확실히 정하죠.

바베큐 수가 많으니까, 다 죽이는 것보다는 알아서 도망치게 하고 싶어요. 싸울 의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MC 네. 강인 판정.

바베큐 (주사위: $2d6+2 = 8$) 식칼을 휘둘러도 경험치를 받네요. 옵션 둘 고를 수 있지요? 큰 피해를 가하고, 적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식칼로 두 토막을 냅니다.

MC 하지만 괴물의 손톱이 박힙니다. 1피해입니다. 갑옷 있던가요?

바베큐 없어요. 하지만 부하들은 1장갑 있습니다. 바베큐는 어깨에 박힌 괴물의 손톱을 뽑고 괴물을 바닥에 패대기칩니다. 그리고 총을 꺼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쏩니다.

MC 괴물들의 야만적인 공격에 부상자도 나오지만,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베큐를 필두로 한 사냥단의 분전에, 녹색 눈의 괴물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뛰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죽는 놈들도 몇몇 있고요.

바베큐 총부리를 흠바바에게 돌리고 계속 가라고 종용합니다. 아우 아파. (웃음)

휴고가 원하는 것

MC 한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효자손. 밖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효자손 손을 흔들니다.

MC 인사인가요? 행복인가요?

효자손 인사예요.

MC 제일 앞에는 휴고가 타고 있습니다. 차 위에 서서, 세그웨이 손잡이 같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효자손 아프지만 트럭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MC 자동차들이 트럭 앞에 멈춰 섭니다. 휴고가 내리더니 효자손에게 치하의 말을 하며 다가옵니다. 덕분에 혜성단이 물러났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휴고가 어떻게 나오려나?

효자손 벼슬을 주려나?

MC 흠. “효자손 선생. 당신은 바베큐 마을 같은 작은 곳에 두기 아깝군. 뉴욕에 와서 저 연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소?”

효자손 영지를 달라고 할까? “조수가 더 많으면 동력연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고, 넓은 땅도 있으면 좋습니다.”

바베큐 그러나 주는 것은 영지가 아니라 작업장.

효자손 거대 지하공장?

MC “동력연이라고 했다.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밀크로드를 지배하는 것도 꿈은 아니지. 하지만 당장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군.” 부상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뉴욕에서 쉬며 치료를 받고 있게.”

효자손 “그리 하겠습니다.” 출세한 건가!

스미스 밀크로드를 지배?

MC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네요. 한편 효자손을 찾아 말을 달린 스미스. 오는 도중 말에게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바베큐 아이고.

MC 도로 잡을 틈도 없이, 말은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웃음) 한참을 걸었는데, 가다 보니 지평선 아지랑이 너머로 효자손의 트럭이 보입니다.

스미스 서둘러 다가갑니다.

MC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참 전에 바베큐 마을에서 소용돌이가 보여준 광경이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자동차들은 아직 다가오는 중이고, 심지어는 무에인지 타이인지가 운전석에서 뛰어 나가 화물칸으로 가 문을 열어젖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스미스 이럴 수가. 그냥 인터넷이 아니었어!

바베큐 예언이었어.

스미스 더욱 서두릅니다.

MC 몸을 숨기거나 하지 않아요?

스미스 네. 딱히 뉴욕이랑 척진 적도 없고.

MC 으흠.

스미스 물론 바베큐 마을에서 소식이 갔다면 모를까.

바베큐 효자손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 휴고가 뇌 개방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NPC가 그러면 안 되지!

스미스 그냥 갑니다.

MC (효자손을 보고) 휴고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NYPD 한 명이 호루라기를 불니다. (스미스를 보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발견된 것 같습니다. 휴고가 호루라기를 분 자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실눈을 뜨고 봅니다. “전에 바베큐님을 호위하던 경호원인 것 같습니다.” “바베큐도 있나?” “아뇨, 혼자 옵니다.” “좋았어.”

스미스 좋다고요? 뭐지. 의미심장.

MC (효자손에게) 스미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효자손 “오, 스미스다!” 안도합니다.

MC 휴고도 스미스를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합니다.

스미스 휴고에게 목례를 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던 중에 효자손 선생이 혼자 떠났다고 하여 찾으러 왔습니다.”

MC “오, 그래? 이제 우리가 맡았으니 걱정할 것 없네. 돌아가 보게.” (웃음)

효자손 “스미스도 같이 오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MC 옆에 있던 부하가 소근소근, 휴고에게 뭔가 얘기합니다. 휴고가 “음?” 하고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안 들려요.

바베큐 ‘둘이 사귀나봐요!’ (웃음)

MC 그런데 그건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여기서 바베큐 마을의 뉴욕 주둔군이 무장해제되고 갇혔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

스미스 우리가 말해 버릴까요?

MC “바베큐 나쁜 놈이래요!” (웃음)

바베큐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효자손은 NYPD 바지 입고 있고, 스미스는 NYPD 방탄조끼 입고 있고.

스미스 헉!

효자손 그렇네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MC 그렇구나! 그럼 그 부하가 소근소근한 것이 이거라고 할까요. “그 조끼와 바지는 어디서 난 건가?” 휴고가 묻습니다.

효자손 “모르겠습니다. 바베큐님이 줬어요. (웃음) 질감이 좋길래 입었습니다.”

MC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던 휴고가 스미스에게 다가와 앞섶을 찢습니다. 흰색 NYPD 글자가 완전한 방탄조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모든 것을 알았다는 표정이 지나갑니다. “둘 다 체포해.”

스미스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MC 부하들이 총을 들이댁니다. 휴고가 부하들을 두 무리로 나누더니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저 트럭을 호송해서 뉴욕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해성단을 쫓아가자.”

스미스 휴고가 몸소 해성단을?

MC 휴고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상 입은 놈을 잘 돌봐라. 흑시라도 죽었다간 너희도 다 죽을 줄 알아.”

바베큐 아까까지는 선생이었는데 바지 때문에 놈이 됐네요.

효자손 그깟 바지! 벗어 버려야겠다. (웃음)

다시 뉴욕으로

MC 여기 있는 NYPD 중에는 대형 트럭을 몰 줄 아는 자가 없어서, 무에를 협박해서 뉴욕으로 운전을 시킵니다. 스미스와 효자손은 짐칸으로 밀어 넣고요.

스미스 어떡하죠?

효자손 오해입니다, 허허허.

스미스 그냥 뉴욕까지 따라가죠. 어차피 연행되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효자손을 치료해 봅시다. 천사함 재고가 남아 있었죠?

바베큐 가뭇만 놓고 묵지 않았으면 가능하겠죠?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포박까지는 안 했을지도.

MC 그러면 스미스가 간호까지 하는 거네요. 36시간 돌봐야 하는 거니까.

스미스 일단 치료를 할게요. 위험 견디기까지 해야 하죠?

MC 네.

스미스 냉철하게! (주사위: $2d6 + 3 = 9$) 부분 성공이네요.

MC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곧 이어지는 판정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죠. 재고가 하나 더 듭니다.

스미스 재고는 1밖에 안 남았는데...

MC 네. 그러니까 그냥 $2d6$ 으로 판정해야죠.

스미스 (주사위 2d6 = 5) 으아아! “여기 있는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빨리 제대로 된 시설로 옮겨야 해!”

MC 장비 탕을 하고 있어! (웃음) 실패했으니 환자가 1피해를 입습니다.

효자손 으으으...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피를 흘리고!

바베큐 어디선가 빌려온 피를 흘리고 있군요.

MC 계속 물을 마셔서 고속으로 피를 만들어 흘리는 건가!

바베큐 앗! 무에와 타이가 헬썩해져요!

MC 그런 관계였어요?

스미스 이토 준지 만화도 아니고. (웃음)

MC 죽을 위기기는 하네요. 아직 죽지는 않는데... 피해 액션 해야죠.

스미스 (주사위 2d6+1 = 6) 아직 괜찮지요?

MC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피해 액션 운이 좋군요.

입원하는 효자손

스미스 “뉴욕에는 좋은 병원이 있나?” 묻습니다.

MC 미드 하우스에 보면 뉴욕 머시라는 병원이 나오던데요. 있다고 할까요. 지금 반항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무에도 뉴욕까지 착실히 운전을 해서... 잠깐! 타이 두고 왔잖아요!

효자손 네. 동력연 찾아 오라고 보낸 상태였죠.

바베큐 하지만 개네 들은 서로 때때로 바뀌니까 상황 파악이 되겠지요.

MC 그렇네요. 주차를 시키고 다들 내려옵니다. 효자손은 들것에 실려갑니다. 운전석에서는 무에인지 타이인지 모를 조수가 내려와서 효자손에게 말을 겁니다. “사장님, 지금 무에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효자손 “무에는 너 아냐?”

MC “아니, 저는 타이고요.”

효자손 “내가 죽을 때가 돼서 헛것이 보이냐 보군. 그래, 무에가 어떻게 뺏다는 거냐?”

MC “지금 동력연을 쉐켜오려고 하는데요. 키두는 바위에 부딪쳐 죽었어요. 연은 날개를 꺾매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구가 없어요.”

효자손 음음.

MC “그러니까 공구함 열쇠를 주시면 제가 재료랑 공구를 갖고 . . . 바꾸겠습니다.”

바베큐 헉.

효자손 영? 소지품까지 바꿔져요?

MC 금시초문입니다.

효자손 “내가 죽을 때가 돼서 헛소리가 들리나.”

MC 그새 가능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갈수록 자주 바뀌고 있었으니까.

효자손 가능한 건가요?

MC 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자손 그렇군. 그럼 나를 끌어안고 여길 떠나면 안 되나 . . . (웃음)

MC “그러다가 사장님이 부상으로 돌아가시면 곤란합니다. 뉴욕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면 저희가 탈출할 방법을 마련해 올게요.”

스미스 이거 다 들리는 건가요?

MC 아니죠.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효자손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줍니다.

MC 네. NYPD가 들것을 운반해서 갑니다. 스미스는 총부리로 찢어서 견게 하고요.

스미스 정말로 뉴욕 머시 병원이 있나요? (웃음)

효자손 노 머시 (No Mercy) 병원.

MC 무자비 병원인가요! NY 머시가 아니고 NO 머시 . . . (웃음) 네,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해도 바베큐 마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천막 밑에 야전침대 같은 게 있는 정도입니다.

스미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저는 의사가 나오나요? (웃음)

MC 나옵니다. 그리고 효자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마귀가 씌었어.” (웃음)

효자손 “난 총에 맞았는데!”

바베큐 마귀를 추방해야 한다고 하고 총알을 빼내는 거죠.

MC 향을 피우더니 메스와 수술도구를 가져 옵니다. 주문을 외면서 주사를 놓자 의식이 멀어집니다.

효자손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투옥된 스미스

- 스미스 스미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 MC 감방이 있어요. NYPD 본부 지하에.
- 스미스 감방 안에서 서성립니다.
- MC 간수가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 스미스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는 동정심도 없느냐, 가만 있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대답니다.
- MC 총부리를 들이대며 말합니다. “내 손가락도 가만 있지 말아 볼까!?” 호통을 쳐요. 그리고 있는데 무에인지 타이인지가 다가옵니다.
- 스미스 멀뚱멀뚱 쳐다봐요.
- MC “지금 타이가 열심히... 그걸 수리하고 있어요.”
- 스미스 “음, 그래서?”
- MC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 스미스 “싹!”
- MC “사장님은 여기서 다리가 잘려서, 좁은 골방에 갇혀서, 평생 동력연만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 바베큐 으으... 가능한 미래네요.
- MC 웬지 무에는 잡히질 않았네요. 너무 비천해 보였나.
- 스미스 칼로 창살을 자르고 탈출할까?
- MC 그 칼 쇠창살도 자를 수 있어요?
- 스미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써 보질 않아서. (웃음)
- 효자손 자주 안 뽑는 걸 보면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게 아닐까요, 사실은?
- MC 별 볼일 없는 게 아닐까요, 자주 안 뽑는 걸 보면? (웃음) 꺼내 보면 다 녹슬어 있다거나.
- 스미스 그래서 찢린 사람은 파상풍에 걸리는 거죠!
- 효자손 와! 찌르고 나서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웃음)
- 스미스 수치는 3피해 밖에 안 되네요.
- MC 물론 설령 전설의 명검이라고 해도, 감방에 갇혔는데 지금 차고 있지는 않겠죠.

스미스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텐데.

MC 네, 칼도 총도 바로 저기 손 안 닿는 곳에 있어요.

스미스 어찌지. (한참 생각하다가) 곤란한 상황에서 두고 화면 전환하면 안 될까요?

MC 아, 네. 그러죠. 화면 전환!

슈타르

MC 증상을 입었다는 건 되게 불편한 거구나.

효자손 그렇습니다.

스미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효자손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증상은 매우 불편하답니다. (웃음)

MC 그리고 보니 바베큐도 1피해를 입었지요? 피해 액션 해야죠.

바베큐 (주사위: $2d6 + 1 = 9$) (MC에게) 옵션 고르시죠.

MC ‘잡고 있던 것을 놓친다’로 하죠. 괴물들과 싸우고 부상을 살피다 보니, 흠바바가 없어졌습니다.

바베큐 예? “이 자식!” 여기서 상황 읽기를 할 수 있나요?

MC 음, 지금이 긴장되는 상황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바베큐 흠바바가 도망을 간 거죠?

MC 모르겠어요. 아까 그놈들이 잡아갔는지도.

바베큐 우리는 길도 모르는데...

MC 근데 길이라고 할 만한 게 한 줄기 밖에 없어요, 지금. 전진 아니면 돌아가는 겁니다.

바베큐 “애들아, 천천히 조심해서 전진하자.” 가다 보면 뭔가가 보이겠지! 오 두막인가요, 동굴인가요, 아니면 공중에 매달린 천막인가요.

MC 네모난 구멍이 뚫린 바위들, 한 때 거대한 궁전들이었다는 그 사이로 난 검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어딘지 모를 방향에서 외침이 들립니다. “불박이들!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바베큐 “슈타르를 만나러 왔소!”

MC “그런 사람 여기 없다. 돌아가라!” 굶은 여자 목소리입니다.

바베큐 “흠바바라는 자를 아시오?” 메아리가칩니다.

MC 건물들이 우루루 무너져 내리려나! (웃음) 그러자 네모난 구멍 중 하나에서 밧줄 같은 것이 늘어지더니 사람이 한 명, 능숙한 솜씨로 내려옵니다. 등에는 기다란 총을 메고 있고, 팔이 하나입니다. 머리에는 두건을 눌러 쓰고, 얼굴에는 노랑고 파랗게 색칠한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총을 앞으로 하고서,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위치까지 다가옵니다.

바베큐 “훤바바의 안내를 받아 슈타르를 만나러 왔는데, 괴물들이 습격하는 통에 훤바바를 놓쳐 버렸소.”

MC “내 친구가 이 깊은 곳까지 위협을 당해 들어왔길래 내가 도로 찾아 온 거다.” 긴 총을 든 여자가 말합니다. 이쪽은 수가 훨씬 더 많은데, 무서워 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이만 돌아가라. 안 그러면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바베큐 일단 사정을 설명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겁박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훤바바가 먼저 부족민들을 데리고 우리를 찾아 왔고, 이건 우리 성벽 뒤에서 우리 밥을 먹는 대가라고요. 당신도 우리를 도우면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조중으로 되죠?

MC 네. 판정을 하시죠.

바베큐 (주사위: $2d6 + 2 = 12$)

MC 자기 왼팔을 들고 소매를 걷어 보입니다. 기계팔이에요. “내 오른팔을 잃어 버린 지 한참 되었는데, 어찌 흘러 흘러 저 여자가 갖고 있구나.” 그리고 마틸다쪽으로 턱짓을 합니다. “저걸 돌려 준다면 좀 더 얘기를 해 볼 수 있겠다.” 마틸다는 반사적으로 팔을 움켜잡니다.

바베큐 “저 팔의 출처는 내가 알고 있소. 당신에게서 훤친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마틸다에게 내가 새 것을 사 주고 저 팔은 당신에게 줄 수도 없지는 않지. 그러나 맥들은 지금까지 약속을 여기기만 했어.”

MC “맥들이라니? 당신네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바베큐 “최소한 훤바바는 받을 걸 받더니 사라져 버렸소. 우리를 돕지 못하겠다면 그 자라도 내놓아 대가를 치르게 하시오.”

MC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리고 덧붙입니다. “팔을 주지 않겠다면 나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개들을 더 풀겠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다.”

바베큐 10+가 나왔으니까,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되는 거죠?

MC 그렇습니다.

바베큐 그러면 그러겠다고 해요.

MC 마틸다와 바베큐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흠바바를 데려 오겠다고 물러납니다.

바베큐 기다립니다.

MC 시간이 좀 지나자 흠바바를 이끌고,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여기서 나가면 나는 다시 슈타르라고 불릴 것이다.”

바베큐 영지로 돌아가면 효자손이 돌아와 있겠거니 하며 차에 오릅니다. (웃음) 돌아오면서 슈타르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스미스 뉴욕과, 해성단과...

바베큐 우리의 목표는 해성단을 밀크로드로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뉴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MC 뉴욕을요?

바베큐 뉴욕은 그 동안 우리에게서 공물을 받기만 하고, 보호 병력이라고 열명 남짓 남겨 놓기는 했지만 정작 적들이 우리 문 앞에 왔을 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MC 그야 바베큐가 장비를 빼앗고 지하에 가두었으니까...

바베큐 이유야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웃음) 뉴욕이 우리 물자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더 풍족했을 것이고, 잿더미 부족과도 더 일찍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MC 흠바바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도 NYPD의 차를 볼 때마다 이를 같지.” 슈타르는 마틸다의 팔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마틸다는 그런 슈타르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영지에 도착해요.

바베큐 영지에 도착하자마자, “효자손 선생은 돌아왔는가” 하고 소리칩니다. (웃음) 여기서 전환해 주세요.

MC 네. 한편 효자손은...

감옥의 두 사람

효자손 정신이 드나요?

MC 그렇습니다. 눈 앞에 지팡이를 짚은 의사가 보입니다. “마귀를 뽑아 놓았으니 한 번 보시게.” 그리고 쇠쟁반을 들이딛니다. 일그러진 탄환이 두 개 놓여 있어요.

효자손 이런 천사 같은 놈! (웃음)

MC “붕대도 감았고, 붕대에 주문도 잘 써 놓았으니 금방 나올 거요.”

바베큐 하지만 36시간 돌봐야 하는 건 계속되는 거죠?

MC 그냥 그것까지 해결됐다고 하죠? 고생도 많이 했고...

스미스 아니면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고 해도!

MC 아. 그것도 괜찮을지도. 깨어나 보니 다음 날입니다. 스미스도 계속 갇혀 있고요. 그런데 아직 휴고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흥흥합니다.

효자손 죽었구나.

스미스 내 전 경호대상을 죽였듯.

MC 다 나왔으면 감옥으로... 총 든 병사들이 와서, 방금 상처를 꿰맨 효자손을 연행해 갑니다.

효자손 안 돼! 다 안 나왔어! (웃음)

MC 그로부터 몇 시간 전, 동 틀 무렵 스미스의 창살 밖에는 다시 무에인지 타이인지가 면회를 와 있습니다. “무에가 그러는데요, 지금 다 준비가 돼서 몰 수 있을 것 같대요. 날아와서 우리를 뉴욕 밖으로 빼가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스미스 “무에까지 포함해서 네 명인데, 연 하나에 다 탈 수 있다고?”

MC “좀 비실비실해도 담은 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트럭을 두고 가야 하죠.”

스미스 “그럼 트럭을 탈취해야 하나... 아니, 그 전에 이 창살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MC 타이는 그걸 도와주진 못해요. 자기는 트럭을 빼돌릴 수 있을지 한 번 살펴 보기나 하겠다고 나갑니다. 좀 있다가, 붕대를 칭칭 감은 효자손이 감방에 끌려 옵니다.

스미스 타이가 해 준 얘기를 하고, 뭔가 뽀족한 수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효자손 “나의 뽀족한 수는 항상 실패했어.” (웃음) “나는 치세에는 능신이지 만...”

MC 난세에는요?

효자손 난세에는 등신! (웃음) “무던 수는 하나 있지. 스미스 선생, 당신 칼로 다 죽이고 나가는 거요.”

스미스 “내 칼은 저기 있는데.”

효자손 “아, 그거? 그 정도야 쉽지.”

스미스 나와라, 효자손 만능팔! (웃음)

효자손 정말?

MC 정말요? 그런 거 있어요?

효자손 어찌죠? 여기서 나가긴 해야 할 텐데.

세션 3 종료

MC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일단 세션 3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Hx 조정하죠.

스미스 나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은 다른 캐릭터를 고르면 되죠?

바베큐 바베큐는 스미스를 고릅니다.

효자손 효자손을 더 잘 알게 된 것은 바베큐입니다.

스미스 아, 잘 모르겠네요. (주사위를 굴린다) 스미스는 효자손을 택합니다. (효자손이 스미스에 대한 Hx를 올린다.)

세션 4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정말 있기는 한가? 있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나태한 문명인에게 과연 미래란 있는가?

관심 특성치 변경!

MC ... 음,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플레이 시작하지요.

바베큐 (다짜고짜) 관심 특성치 바꾸고 싶습니다!

MC (스미스를 보고) 냉철 안 찍힌 게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웃음)

바베큐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미스 아네요, 괜찮아요.

MC 그래도 해야 해요. 바꾸자는 사람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지금 관심 특성치를 다 지우고, 내 시트에 Hx가 가장 높게 적혀 있는 사람이 내 관심 특성치를 정하는 거죠?

MC 네. 그리고 MC가 또 하나 고르고요.

바베큐 제 건 스미스가 정해 주세요.

스미스 지난 세션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으니, 강인을 찍겠습니다.

MC 저는 매력을 찍죠. 말론 브란도를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스미스 저는 둘 중 하나 고르면 되는데... (주사위를 굴린다) 효자손이 골라 주세요.

효자손 냉철!

MC 저는 기괴. 아, 별 상관은 없지만, 전에 무에와 타이의 정체를 본 게 스미스였지요?

스미스 네.

효자손 저도 두 분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주서방에게 묻죠. (주사위를 굴린다) 스미스가 골라 주세요.

스미스 예리를 찍지요.

MC 저는 기괴를 찍겠습니다.

세션 시작 판정

효자손 제 말 하면 오는 자 판정할 게요.

바베큐 이거 기괴죠?

효자손 네, 경험치 있습니다. (주사위: $2d6 + 2 = 9$) 이거면, 예비는 받는데
곧이은 판정에 보너스는 못 받네요.

MC 어, 그러고 보니 지금 효자손은 감방에 갇혀 있잖아요? 탈출하는 데
써도...

바베큐 그럼 바베큐가 지난 번에 “효자손 선생은 돌아왔는가” 했을 때...

효자손 “네, 여기 있습니다!” (웃음)

MC 어떻게 가능했지?

효자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MC 네.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스미스 효자손이랑 같이 올 수 있나요?

MC 안 됩니다. 스미스가 장비가 아닌 다음에야...

바베큐 그건 그렇고 영주의 경제 액션을 할게요.

MC 네. 시작 때 하게 되어 있죠. 강인 판정입니다. 이것도 경험치네요.

바베큐 (주사위: $2d6 + 2 = 7$) 잉여 전부 받고 부족을 하나 받네요.

MC 그럼 오늘에야 말로 보복을 받겠네요.

바베큐 그걸 선택하면 그렇겠죠.

MC 근데 지난 번의 보복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건 제가 재량으로 쓰겠습니다.

바베큐 그렇다면 그냥 보복을 받는 게 낫겠네요, 이번에도. 한 번에 크게 일
어나야지... 3바꿈 생깁니다. 시장도 도로 열리고요.

MC 시장은 어떻게 다시 열릴까요?

바베큐 밀크로더들은 안 오겠죠, 아마. 교역 상대는 다른 영지나 잿더미 부족
일 것 같아요.

MC 이 지역의 중심 시장이 잠시 뉴욕이 아닌 여기가 된 거군요. 뉴욕은
공격도 받고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밀크로더들의 거대한 트럭이 아닌
1~2톤짜리 트럭들이 바베큐 마을로 쇠도합니다.

바베큐 마을: 생각지 못한 전갈

스미스 어떡하죠? 효자손은 비행기 타고 탈출하고, 스미스는 사막에서 쫓기나?

MC 일단 바베큐 마을 쪽을 해 볼게요. 마을 장터의 청과상 자네트가 또 바베큐를 찾아 옵니다. “다시 장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못 보던 사람들이 많아서 물어 보니까, 원래 다들 뉴욕에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뉴욕쪽 분위기가 흥흥해서 이리로 왔다고 해요.”

바베큐 뉴욕에 날 일이 났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MC 자네트가 계속 얘기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이걸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계속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바베큐 “안 그래도 그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요.” (웃음) 주변에 묻습니다. “효자손 선생은 아직도 안 왔는가?”

MC 그런데 옆에서 자네트가 손가락으로 쿡쿡 찌릅니다. 보니까 자네트가 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원하면 효자손일 수도 있고, 무에나 타이일 수도 있어요. 예비는 제가 쓸 수도 있지만, 일단 효자손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새일 수도 있고요. (웃음)

효자손 날아오는 것은 무에인가 타이인가입니다. 아예 이걸 이름처럼 불러야겠네요. ‘무엔가타인가’.

MC 뭔가 아프리카 이름 같은 ...

바베큐 손을 흔들니다.

MC 동력연이 수직으로 착륙하며 날개가 접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비행 기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보니까 무엔가타인가가 타고 있습니다.

바베큐 “아니, 효자손 선생은 어찌고 혼자 왔는가?” 그러면서도 동력연을 살펴 봅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유용하겠군.”

MC 뭘 상상한 건데요?

효자손 황금시대의 폭격기?

스미스 B2. (웃음)

MC “사장님은 뉴욕의 감옥에 잡혀 계세요!” 무엔가타인가가 다급히 말합니다.

바베큐 큰일이네요. 효자손이 지금 필요한데.

MC 있어야 하나요? 왜죠?

바베큐 마틸다가 쓸 팔을 만들어야 하니깐요.

MC 아, 팔! 떼어서 슈타르에게 주기로 했었죠.

바베큐 어떻게 도우면 되겠느냐고 무엔가타인가에게 묻습니다.

효자손 실제로 플레이된 부분이 아닌데... 여기서는 효자손이 앞서 지시를 했다고 할게요.

MC 네. 그러죠.

효자손 효자손은 복수에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를 구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바베큐 마을의 창고에서 폭탄을 가져다가 휴고와 쿨을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바베큐 “그럼 아직도 혜성단은 뉴욕 앞에 있고 휴고와 대치중인 건가?”

MC “혜성단은 뉴욕 성벽의 포격과 저희의 폭격에 큰 타격을 입고 도망쳤습니다.”

바베큐 입이 귀에 걸리려고 하지만...

MC “휴고 시장은 그 뒤를 쫓아갔어요.”

바베큐 입이 더 귀에 걸리려 하지만...

MC “군대를 끌고요.”

바베큐 자네트에게, 무엔가타인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쉬게 돌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마틸다와 슈타르를 불러요.

MC 때는 왔다? 루비콘 강을 건너자? 전에 묘사가 좀 덜 됐는데, 슈타르는 이소룡 같은 근육을 한 50~60대의 여자입니다. 턱에 각이 졌고, 눈 하나는 기계입니다. 팔이 하나뿐이고, 그마저 기계인 건 전에도 봤어요.

바베큐 “지금 효자손 선생이 뉴욕에 잡혀 있다고 한다. 마틸다, 좀 미안하지만 당분간 외팔로 있어 줘. 상실감이 클 테니 여기를 방비하면서 쉬어라.” 그리고 2바꿈을 줍니다. (웃음)

MC 한숨을 쉬고 재물을 받습니다. “이건 꼭 보상을 해주셔야 해요.”

바베큐 “물론이지. 거사가 성공하면 너에게 이 마을을 주고 나는 뉴욕으로 가겠다.”

MC 마틸다가 어깨의 소켓에서 팔을 뚫는다. “그러면 이번 일은 꼭 성공을 해야 하니, 저도 쉬고 있을 틈이 없어요. 따라가서 일을 돕겠습니다.” 슈타르는 말없이 팔을 받아서 오른쪽 어깨의 소켓에 끼웁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두 손을 깎지 끼니, 일관된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팔에 얽힌 사연이 있겠지만 당장 말을 해 주지는 않아요.

바베큐 바베큐는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뇌를 개방합니다. 궁금한 것은 휴고의 동태예요.

MC 자, 휴고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바베큐 (주사위: $2d6 + 0 = 2$) 으아아아!

MC 평소에 뇌를 열면 보이는 아름다운 오색의 방울이 아니라 얇은 회색 물이 나옵니다.

바베큐 모든 것이 썩고 있습니다. 마틸다는 나의 목을 조르고, 어느새 조르는 사람이 슈타르로 바뀌고, 효자손으로 바뀌고! 바베큐의 영지도 불타고, 뉴욕도 불타입니다.

MC 그 모든 것의 사이로 무애와 타이가 보입니다. 분명 한 명 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바베큐 쓰러집니다.

MC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소용돌이 관련이니까, 아주 괴상해도 상관 없어요. 흠. 피해를 입습니다.

바베큐 얼마나 입나요?

MC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뭐 있죠?

바베큐 식칼하고 권총입니다.

MC 권총 피해가 2죠?

바베큐 네. 혹시 자기 손으로 총을 들어서 머리를 쏘나요!

MC 그렇습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바베큐 (피해를 표시하고) 출정 준비를 하겠다고 가더니 방에서 총소리가!

스미스 싫으면 싫다고 하지지! (웃음)

MC 정신이 들자 피가 잔뜩 나고 있고, 마틸다가 수건으로 상처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니, 영주님, 대체 왜!”

바베큐 횡설수설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진군 못하냐?

MC 영주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병사들은 대기를 시켜야겠다고 마틸다가 말합니다. 뭔가 설명을 해 주나요? 아직 횡설수설?

바베큐 “아니야! 아니야! 비었을 때 쳐야 해! 지금 가! 지금 가! 나를 싣고 가라!”

MC 마틸다가 신음을 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괴상한 모습의 군대가 마을을 나섭니다. 트럭 뒤에는 바베큐가 실려 있어요. 슈타르는 등에 긴 깃대를 지고 거기에 자기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잿더미 부족의 용사들이 보고서 자연히 합류할 것이다.”

바베큐 앓을 수는 있으려나?

MC 머리에 붕대를 감기는 했지만 설 수는 있습니다.

바베큐 굳이 모자까지 쓰고 있습니다. “가야 돼! 가야 돼! 지금뿐이다!”

MC 무엔가타인가도 폭탄을 챙겨 들고 따라옵니다. “뉴욕에는 커다란 대포가 있습니다. 제가 폭격을 해서 포대를 마비시키겠습니다.”

바베큐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도록.”

MC 네. 이제 바베큐의 군대는 마을을 나섭니다. 과연 뉴욕을 정복할 수 있을까?

스미스 안에서 호응한다면...

MC 그러게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군요. 한편 스미스와 효자손은!

감방의 두 사람

스미스 “아니, 우리를 풀어 달라고 해야지, 그냥 보내 버리면 어떡합니까?”

효자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인생은 짧고, 한 목숨 죽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날 괴롭힌 놈들은 용서할 수 없지.”

MC 목숨보다 복수가 중요한 거군요. 이게 예의 바른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네요. (웃음)

스미스 “아무튼 나갈 방법을 찾기는 해야 할 텐데.” 두리번거립니다.

효자손 그리고 다시 효자손을 돌아보는데, 효자손이 없다! 창살 밖에 나가 있다!

바베큐 아! 필요한 도구를 들고!

효자손 열쇠를 들고!

MC 그렇게 하실래요? 어차피 이걸 기괴 액션이고, 사념의 소용돌이에 닿아 있을 만한 능력이니까... 이미 그 비슷한 게 가능하다는 건 무에와 타이틀 통해서 나오기도 했으니, 아예 갑작스럽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닐 듯합니다.

효자손 네. 스미스가 감방의 뒤쪽 벽을 살피 보고서 몸을 돌리자, 효자손이 창살 밖에 나가 있습니다. 손에는 열쇠를 들고요. 그리고 자물쇠를 열어 줍니다.

스미스 엄청나게 놀랍니다. (웃음)

바베큐 어떻게 한 걸까.

MC 예비 쓰시고요.

스미스 “어떻게 한 거요!”

바베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무에나 타이틀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지.”

스미스 “어떻게 한 거요!”

효자손 천연 루비 일곱 개가 필요하지. (웃음) 대답하지 않고 빼앗긴 짐을 근처에서 찾습니다. 그러고 보니 간수는 없나요?

MC 아, 그러고 보니. 있을 법도 한데... 얘기를 안 했으니 자리를 비웠다고 하죠. 근데 열쇠는 어디서 난 거지...

효자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웃음)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풀어 줄까요!

바베큐 휴고에게 반항한 사람들이 있겠죠, 주로.

효자손 네. 다 풀어 줍니다.

MC 철창에서 썩은 사람들이 한 열댓 명입니다. 나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릴 풀어 주는 거요?”

효자손 “나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다.” (웃음) “휴고를 죽이고 뉴욕을 접수할 것이다.”

바베큐 앗! 바베큐랑 충돌이 일어나려나?

스미스 스미스는 뒤에서 머리를 긁습니다. (웃음)

MC 아, 스미스의 칼과 총은 저쪽에 있고요. 탈옥수들이 챙기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 해요.

스미스 그렇게 합니다.

MC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모퉁이 저쪽에서 간수가 들여다 봅니다. “이게 웬 소란-” 퍽! 어느 건장한 탈옥수의 주먹에 맞아서 코가 깨져 쓰러 집니다.

바베큐 무기와 갑옷을 빼앗기겠지.

MC 권총과 방석모와 손도끼를...

효자손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일까요?

스미스 정말 흉악범들일지도.

효자손 얼굴이 흉악한 흉악범들. (웃음)

MC 너는 못 생겼으니 투옥!

스미스 뉴욕에서는 그게 정말로 범죄일지도 모르죠.

MC 황금시대의 뉴욕이 어땠는지 아느냐! 하고 당시 패션 잡지를 보여 주는 거죠. 아름답지 못한 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없다! (웃음)

죄수 반란!

효자손 안에서부터 뉴욕을 뒤집자고 선동합니다.

MC 여기는 뉴욕 시장의 저택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통치 시설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간혀 있던 곳은 그 지하고요. 여기가 노을평원에서 비교적 대도시기는 하지만, 사람을 가둬 둘 만큼 튼튼한 곳이 여기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효자손 방어에도 적합한 곳이 아닐지?

MC 그렇죠. 이 저택과 도시 방벽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탈옥수들이 우글거리며, 안내를 기다립니다.

스미스 “이런 수가 있었을 줄이야. 다음 계획은 뭐요?”

효자손 예비는 다 쏘는데. (웃음) “다음 계획은 기습이오.”

스미스 “휴고도 없는데?”

효자손 “휴고가 없는 틈을 타서 NYPD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거지.”

바베큐 그러고 보니 플레이 처음에 경찰서장이 나왔었죠.

MC 네. 그롬이라는 이름이었죠. 아까 차들이 떠날 때 없었던 걸로 봐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새 떠나지 않았다면.

효자손 NYPD 본부는 어디있나요?

MC 이 건물 3층요. (웃음)

효자손 “똑똑.” “누구세요?” “반란군이다!” (웃음)

MC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 보려고 하나요?

효자손 스미스가 하는 게 어떨지?

MC 그러게요. 매력이 높으니까...

스미스 “이렇게 된 이상 모두 NYPD 본부로 간다!” (웃음)

MC 그렇게 지시를 하면 탈옥수들 중 누군가가 나름대로의 요구를 하겠죠. 그 말로 조종 액션이 발동됩니다.

바베큐 “다 죽이고 약탈해도 되나요?” 같은 거?

스미스 (주사위: 2d6 + 3 = 13)

MC 그 중 덩치가 아주 큰, 소싯적에 방사능 좀 쬐어 봤을 것 같은 (웃음) 탈옥수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NPC 이름 목록을 보고) 브레인이다.”

스미스 머슬이 아니고.

MC “남의 뇌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지. 나는 그놈 서장한테 원한이 좀 많아. 여기 있는 사람 아마 다 그럴 거야.” 동의의 외침이 들립니다. “당신 둘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러니 살려서 우리에게 넘겨. 좀 천천히 오래오래 손을 봐 줘야겠어.” 원한 서린 말에 영상이 섞여서 보일 지경입니다. “그놈만이 아니라, 생포되는 NYPD는 다 우리가 처리할 거야.”

스미스 “물론이지.” 승락합니다. 뭐 그런 걸 다 요구사항이라고.

MC “약속한 거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효자손 가자!

MC NYPD는 상당수가 해성단의 기습에 대비해 방벽을 지키러 나갔어요. 탈옥수들이 열 몇 명 밖에 안 되지만, 본부에 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큰 위협이 됩니다. 누가 감방 문을 다 열어 제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웃음) 얼마 되지 않는 NYPD 병사들에게 주먹과 총알을 날리며, 여러분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워낙 급한 일이라 다들 어이 없이 쓰러지는데, 마침내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 병사 하나가 갑자기 모퉁이 저쪽에서 나타나며 스미스의 앞을 막아서고 산탄총을 겨눕니다. 어떻게 하나요?

스미스 권총으로 쏩니다. 힘으로 빼앗기인가요?

MC 네. 길을 빼앗는 것이 되겠죠.

스미스 (주사위: $2d6 + 2 = 10$) 세 가지 선택하면 되죠? 피해를 덜 입고, 큰 피해를 가하고, 감격하거나 경악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겠습니다.

MC 네. 피해는 1 경감됩니다. 갑옷 입고 있죠? 산탄총은 3피해니까, 1피해만 입으세요. 반면 상대는 이마에 구멍이 뚫리며 죽습니다.

스미스 저는 또 피해가 9시네요. 피해 액션 할게요. (주사위: $2d6 + 1 = 8$)

MC 중요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죠. 무엇인지는 천천히...

바베큐 여기서 약화 효과 선택하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거죠?

MC 네. 하지만 약화 효과는 영구적이예요.

스미스 마지막 세션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웃음)

MC 올라가는 길에 효자손은 특별히 할 것이 있나요?

효자손 음...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NYPD 본부

MC 커다란 문 앞입니다. NYPD HQ라고 스프레이로 써 있습니다.

바베큐 그리고 그 앞에서 이발소 등이 돌아가는 거예요. 권력의 상징!

다들 오오!

MC (감격) 멋있어! 좋았어! 이발소 등입니다. 경찰 색깔은 다 있네요!

스미스 문을 박차고... 브레인이 들어갑니다. (웃음)

MC 네. 안에서 “이게 웬 소란이냐?” 하는 소리가 들리자, 브레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데, 그룹이 번개 같이 총을 뽑아 브레인의 머리를 쏩니다. 뇌수가 흩뿌려집니다.

스미스 헉.

바베큐 “내 뇌수를 보게 될 줄이야!” (웃음)

MC 브레인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스미스와 그룹이 서로 총을 겨누는 상태.

스미스 효자손은 제 뒤에 있나요?

효자손 네.

MC 그룹이 말합니다. “이게 뭐하는 것이냐?”

스미스 뭐라고 대답하지. “시장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웃음)

MC 제가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바베큐 마을 100명 남짓이잖아요?

바베큐 120명.

MC 뉴욕이 커 봤자 그 2~3배 정도일 거 아녜요. 5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 아무리 무력이 강하다고 해도, 사실 지금 이게 고등학교 교장실로 돌진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교사들이 나와서 “복도에서 뛰지마!” 하는 거 총으로 쏘고 가는. (웃음) 그래서 참 덧없고 조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베큐 게다가 패거리가 대규모라고 해도 일부가 해성단을 쫓아갔으니까 여기는 그만큼 비었겠죠.

MC 상당수가 갔죠. 차는 다 끌고 간 것 같고.

바베큐 남은 병력은 정말 얼마 안 되겠네요.

MC 그룹과 대치하고 있는 그 때, 그룹의 책상 위 무전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베큐 무전기요?

MC 없을까요? 아. 그리고 보니 밀크로더들도 깃발 휘두르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를 잠깐 바베큐에게 돌리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MC 뉴욕이 시야에 곧 들어올 만한 거리입니다. 조공을 바치러 올 때마다, 저 앞의 붉은 줄무늬 바위를 지나면 뉴욕이 아지랑이 너머로 보이곤 했습니다. 동력연은 조금 전에 도착해서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바베큐 몸을 일으켜서 주변을 둘러 봅니다.

MC 슈타르가 휘날리는 깃발을 보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외치는 괴성을 듣고, 잿더미 부족의 전사들이 곳곳에서 말을 타고 합류했습니다. 수는 어느 새 예순에 달한 것 같습니다.

스미스 와.

MC 동력연 위에서, 무에인지 타이인지가 아래에 대고 소리를 칩니다. 엔진 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지만, 폭격을 하겠다는 신호로 앞서 약속해 둔 빨간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바베큐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룸

MC 스미스가 그룸과 서로 충을 들이대고 대치하고 있는데, 성벽 쪽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연쇄 폭발의 소리가! 그룸이 매우 당황합니다. 그룸 등 뒤의 창문을 통해, 스미스의 눈에 성벽 상공에서 선회하는 동력연이 보입니다.

스미스 쏩니다.

MC 그냥 쏘나요? 아무 대화도 없어요?

스미스 뭔가 할 말이 있을까요? 행복해라, 이런 거?

MC 대치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뒤에서 말합니다. “저 놈은 우리 거야. 약속을 잊지 마라.”

스미스 그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한테 죽는 게 행복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MC (잠시 생각) 뭐지? 역심리학인가? (웃음) 그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려고 있어봤자, 시장님이 개선하고 오시면 너희들은 끝이야. 노을평원이 다 끝이야.”

바베큐 밖에서 먼 함성이 들립니다.

MC “휴고 시장님은 세상의 끝, 밀크로드의 끝에 가셨다.”

스미스 세상의 끝이 뭔지 물어 보면 대답해 줄까요?

효자손 후후후, 어차피 나는 죽을 테니 가르쳐 주지. (웃음) 아.

MC 네?

효자손 여기서 유일한 밀크로드 사람인 효자손이 말합니다. “세상의 끝? 그런 건 없어. 밀크로드는 순환도로다.” 괜찮죠?

MC 헉! 정말요? 순환도로였어요? 의외의 비밀이 밝혀졌네. 그럼 효자손도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효자손 “해성단이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스미스 “들었지?” 한 번 더 설득을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미래가 뭔지는 몰라도 오지 않을 거다.”

MC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시장님을 믿겠다.” 그리고 권총을 쏩니다.

스미스 예측해서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 MC 이미 총을 뽑은 상태라...
- 스미스 그러면 손을 쏘겠습니다. 힘으로 빼앗기. 말하자면 총을 빼앗는 거죠. (주사위: 2d6 + 2 = 9) 피해를 덜 입고, 대상을 확실하게 장악합니다.
- MC 권총의 피해는 2점인데 덜 입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방탄조끼가 있으니까 0이네요. 피해 액션을 +0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지 말죠, 지금은. 그리고 그룹이 입는 피해는... 권총의 2피해를 맞지요? NPC가 입으면 상당히 큰 부상입니다. 보통은 치명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그룹은 방탄복 정도는 입었을 거고...
- 스미스 아, 이 권총은 칼날요정 특제 무기라서 관통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무자비 액션 때문에 피해는 3이 되고요.
- MC 그래요? 그럼 애는 죽겠는데요. 총알이 손을 뚫고 총을 날려버린 뒤 목에 박힙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으며, 그룹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창 밖으로, 검은 연기를 내며 불타고 있는 포대가 보입니다.
- 스미스 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잔당들을 소탕하자!”
- MC 다들 “그룹이 죽었다! 그룹이 죽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남은 NYPD를 목표로 흠어집니다.
- 효자손 효자손은 그룹의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장악합니다. “너희들은 다 포위됐다. 총대장 그룹도 죽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웃음)
- MC 마이크를 놓고 내려오자 저택 앞 광장에 NYPD 병사들이 푹푹 멍쳐서 사망으로 총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대가 폭격 당하고 그룹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린 시점에서 아무래도 다들 겁을 집어 먹은 것 같아요.

바베큐 입성

- MC 바베큐의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몇 명은 아래에 총을 겨누고, 두 명은 도르래를 돌려 육중한 정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베큐의 트럭이 들어옵니다. (바베큐를 보고) 바베큐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했습니다. 포대를 폭격했다고 저항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닐 텐데, 이쪽으로는 총알 하나도 안 날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와 보니 NYPD는 이미 알아서 포위된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바베큐 바베큐가 데려온 군대는 이제 반 이상이 야만족입니다.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시민들, 미처 중앙에 모이지 않은 문 근처의 NYPD를 포로로 잡습니다.

스미스 대도시가 다 이렇게 망하는 거죠. (웃음)

MC 그때, 뉴욕 시민이라고 생각되는, 기품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나와서 바베큐에게 샷대질을 합니다. “너는 그동안 우리 뉴욕과 시장님의 은덕을 입으며 우리 문명의 혜택을 받았는데, 야만인들을 데리고 와서 문명 최후의 보루를 배반한단 말이냐!”

바베큐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까 다친 바람에 누워서 힘이 없긴 한데.

MC 동력연에서 폭탄이 하나 더 떨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죠, 물론.

바베큐 박물관에!

MC 헉. 박물관에... 아니. 정문 위에서 있는 햇불의 여신상에 던집니다. 뉴욕의 자랑이던 여신상이 여지 없이 쓰러집니다. 모두 경악합니다.

효자손 문명의 끝이다!

MC 이름을 오도아케르로 바꾸고...

바베큐 마틸다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합니다. “열을 셀 때까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박물관도 불태우고, 저택에도 불을 지르고, 시민들을 약탈할 것이다.”

MC 이건 NYPD에 대한 강압으로 하죠.

바베큐 네.

MC 물론 애들은 그룹이 죽었고 방벽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항복 조건을 말하려고 여기 모인 거죠. 안 통하면 최후의 저항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 바베큐가 들어와서, 너희 열 셀 때까지 항복 안 하면 다 죽는다고 하는 거지요.

바베큐 네. (주사위: $2d6 + 2 = 9$) 경험치 받습니다.

MC 이쪽이 듣고 싶어할 듯한 말을 하는 옵션을 고르겠습니다. (잠시 생각) NYPD 병사들 중에서 지위가 높아 보이는 자가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항해 봤자 죽을 건 알고 있소. 우리도 항복을 하고 싶지만, 당신들은 시빨건 야만족을 데려오지 않았소? 항복한다고 해서 우릴 살려 둔다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이오?”

바베큐 아무래도 우리의 규율을 보여 줘야겠군요. 지휘 판정을 합니다. (주사 위: 2d6 + 2 = 9) 패배한 적을 자비롭게 대하게 합니다. 부하들에게, 문 근처에서 잡은 뉴욕 시민과 NYPD를 데려 오라고 합니다. 총부리를 겨누고는 있지만, 때린 흔적도 재물을 빼앗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강인**이죠. 역시 경험치 받습니다. 앗, 성장이다!

MC 탈옥수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스미스에게 따집니다. “이게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저 똥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가?” 물론 스미스는 그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이죠.

스미스 잠시 기다리라고 종용합니다.

MC 중앙에 모인 NYPD들은 바베큐를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행복하는 게 맞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뭔가 제스처가 필요할 듯도 합니다.

바베큐 그러면 트럭에서 일어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어섭니다. “자, 지금 여기 누구든 총을 한 번만 쏘면 나를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 있는 쪽이 모두에게 좋지. 나와 함께 일하면 모두가 살이 짙 것이야. 나는 휴고와 다르다. 나는 전구가 있으면 내 몸에 두르는 데 쓰지 않아.”

다들 오오.

바베큐 이런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걸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어! (웃음)

MC NYPD의 상급자 같은 사람 몇이 먼저 무기를 내려 놓자 다들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자 스미스에게 따지는 탈옥수들은 늘고, 항의도 거세 집니다. 마구 다그쳐요. “너 저 영주네 부하야? 가신이야?”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저 영주를 죽이면 되겠군!” 그 중 한 명이 장총을 들어, 전신을 드러낸 바베큐에게 겨눅니다.

효자손 흐흐흐, 여기서 바베큐만 죽으면... (웃음)

바베큐 그런 건가요!

MC 그런데 여기서 바베큐가 총을 맞아 쓰러지면 잿더미 부족의 고삐가 풀립니다. 뉴욕은 피바다가 될 거예요.

스미스 어찌지, 어찌지. 장총을 겨누는 놈을 쏩니다. 아니면 겨누고 위협을 할까?

MC 어느 쪽이건 **강압**입니다.

스미스 썩 버립니다.

MC 네. 총 맞아 죽으라는 요구를 담은 강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받아들여도 피해를 받고, 거부해도 피해를 받는.

스미스 쏘고서 말합니다. “내가 NYPD를 주겠다고 했지, 바베큐님을 주겠다고 했나?” (주사위: $2d6 + 3 = 7$) 아아.

MC 7~9가 나왔으니까, 맞는 쪽에게는 다른 옵션이 생겨요. (잠시 생각) 스미스가 총을 쏘기 직전에 납작 엎드려서 피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듭니다. (바베큐를 보고) 휴고의 본부 건물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바베큐 올려다 보면 효자손과 스미스가 눈에 필까요?

MC 네.

바베큐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스미스 탈옥수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잖아. 저놈들이 너희를 도로 잡아 가둘 것도 아니고, 너희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나중에 알아서 죽이면 될 거 아냐.”

MC 납득할 것 같지 않는데... 여튼 그렇게 뉴욕은 함락되었습니다.

바베큐 이렇게 쉽게...

MC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정적이지 못해요. 일단 밖에 휴고와 혜성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 시민들도 완전히 승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잿더미 부족이 들어와 있고요. 잿더미 부족이 동원된 것은 근본을 따지자면 노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갖고서 흠바바를 위협했기 때문이니, 아무래도 불안한 상황이지요.

바베큐 저는 아직 성장할 것을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영지를 키우는 방법이 있죠?

MC 우선 다른 영지에 보호세를 내고 있다는 항목을 지우세요. 이권 성장 옵션으로서가 아니라, 플레이 중에 일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바베큐 네.

MC 그리고 성장 옵션을 택하시면 됩니다.

바베큐 여기서 잿더미 부족을 흡수하면... 인구가 늘고 풍습이 퇴폐적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MC 음, 아직 주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건 두고 보죠. 하지만 성장과 별개로, 지금 당장 패거리에 야만성 태그를 붙여 주세요. 잿더미 부족의 야만성은 뉴욕 습격이라는 의외의 행동에 흥분한 바베큐 마을의 사냥꾼들에게 금세 퍼졌습니다.

바베큐 어느 새 얼굴에 칠도 하고. (생각중) 뭘 추가하지. 산업으로 약탈 사업 추가. 잿더미 부족을 흡수해 보겠습니다.

스미스 뉴욕은 약탈하지 않고, 그 주변을 약탈하는 건가요?

바베큐 그런 셈이죠.

MC 하지만 잿더미 부족은 마을에 들어와서 살 게 아니잖아요. 황무지로 돌아갈 텐데, 그럼 황무지까지 바베큐의 영지가 되는 건가요?

바베큐 말하자면 해적 비슷한 게 되는 거죠. 바베큐의 통치를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슈타르랑 흠바바와 함께 합니다. 당신들 중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바베큐 마을이나 뉴욕에서 돌봐 주겠다. 기근이 들면 먹을 것도 주겠다. 밖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니, NYPD 같은 걸 풀지 않고 밖에서 마음 놓고 살게 해 주겠다. 대신 조공을 바쳐라. 이게 약탈 사업이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을 단속하지 않겠다.

MC 요약하자면, 중국에서 변방 민족을 대우하던 거랑 비슷한가요?

바베큐 네. 근데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거죠.

효자손 봉건제가 되어 가고 있어.

스미스 문명의 발전 단계를 밟고 있나!

MC 고대 왕국이 멸망하고 봉건제가 된 건가요! 뉴욕은 정말로 로마가 무너지듯... 앞으로 찾아 오는 것은 암흑시대인가.

바베큐 그것이 바베큐의 제안입니다. 조종 판정 해야 하나요?

MC 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바꿈을 주면 그냥 판정 성공한 게 될 텐데.

바베큐 근데 지금 당장 남는 바꿈이 없어요.

MC 그럼 판정을 하시죠.

바베큐 이쪽에서 조건을 걸게요. 폭격을 맞은 혜성단의 잔해를 당신들한테 다 주겠다고. (주사위: $2d6 + 2 = 12$)

MC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에게 글씨로 써서 이 약속을 남겨라.”

바베큐 마틸다는 팔이 하나 없고 . . . 쌀에게 필기구와 종이를 가져 오라고 합니다. 피로 서명을 해서 줍니다.

MC 흠바바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듯, 옆으로도 보고 뒤집어도 봅니다. 종이에 쓴 것 외에도 세부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 얘기로 잠시 시간을 보내겠지요.

분노한 죄수들

스미스 근데 지금 이 탈옥수 십여 명도 무장이 상당하죠?

MC NYPD한테서 뺏은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 놈들이 이 건물 어디 전략적인 위치에 틀어박혀서 농성이라도 한다면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스미스를 더는 못 믿겠다는 눈치가 보여요.

스미스 여기서 그냥 버리고 갈까?

효자손 NYPD와 함께 뉴욕 밖으로 추방한다?

바베큐 잭터미 부족에게 황무지를 넘긴 시점에서, 그건 사형선고랑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웃음)

효자손 탈옥수들을 다 죽인다?

MC 그것도 가능은 하죠.

효자손 스미스를 빼돌리고, 효자손이 자긴 그런 협상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다. (웃음) “스미스와 무슨 얘기를 했건, 선량한 시민 구실을 못 하겠다면 전부 추방이야!”

MC “이 시키들이!” 몇 명이 총을 뽑아듭니다.

스미스 잠깐! 잠깐! 그거 실제로 하는 건가요? 스미스를 빼돌리는 거?

효자손 스미스가 암전히 빼돌려지면요.

MC 스미스가 옆에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효자손이 우길 수도 있지요.

효자손 아, 맞다. “너힐 풀어준 건 나고, 스미스는 아무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협상을 했다는 거냐?” (웃음)

MC 어, 그렇게 나오나요?

효자손 스미스는 우리나라의 권력자도 아니고 누굴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MC 성난 열다섯 명의 무장 탈옥수들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얘길 하나요?

효자손 우리도 무장은 하고 있고, 바베큐의 병력도 있죠.

MC 근데 병력은 저 아래에 있고, 탈옥수와 여러분은 건물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라... 아래에서는 위쪽 사정도 잘 모를 거예요.

효자손 그러면 잠자코 있습니다. 다 취소! (웃음)

바베큐 근데 이야기는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뒷정리만 남은 거 아닌가?

MC 휴고와 혜성단이 아직 남아 있어요. 개들이 나름대로 뭔가 하겠죠.

스미스 여하튼 이 탈옥수들을 해결하긴 해야 해요.

바베큐 바베큐가 뭔가 해야 하나?

스미스 다 죽여버릴까요. 이 자리에서.

MC 다 죽이거나, 또 다른 허망한 약속으로 이 불만을 무마하거나...

바베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웃음)

MC 여튼 빨리 해결 안 해주면 총 쏠 기세입니다. 전혀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미스 아무래도 정치범은 아닌가 보군요.

MC 자, 뭔가 대처를!

스미스 “저쪽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MC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말을 믿어 주려나. 또 조종 판정.

스미스 “내가 언제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했나.” 뻔뻔스럽게 굽니다. (주사위: $2d6 + 2 = 5$) 이런!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네, 헤헤헤.”

MC 분노한 한 명이 쇠파이프를 집어 들더니 스미스를 후려치고, 휘청하는 사이에 다른 한 놈이 총을 빼앗습니다. 피해는 딱히 입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명이 달려들어 밟고 찹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워요.

중간 정리

MC 자. 정리를 하죠. 바베큐는 도시를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기는 자비로우니 행복하라고 종용하고 있지요. 안에 있던 몇십 명의 NYPD는 무장이 해제되고, 아, 맞다. (효자손을 보고) 정말로 순환도 로인가요?

효자손 네?

스미스 “끝 같은 건 없어, 순환도로다.” 그랬잖아요. 밀크로드는 순환로라고.

MC 직접 돌아 본 건가요?

효자손 그렇습니다.

바베큐 그럼 그 동안 퀸 저 뺑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군요.

MC 돌아 본 사람은 또 누가 있었을까요. 무에와 타이도 같이 갔겠군요. 순환도로의 바깥쪽에 노을평원이니 뭐니 하는 지방들이 진입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쪽으로 통하는 진입로는 다 무너졌고, 안에는 독성 안개가 가득하다거나. 아니면 밀크로드의 끝이라는 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요. 할 얘기가 많네요.

스미스 파면 파는 대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MC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보통 플레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리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플레이니까요. 그걸 염두에 뒀서, 아포칼립스 월드에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MC 권한으로는 못하는 것을 편집자 권한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스미스 뭔데요?

MC 이야기를 일부러 결말로 가져가는 거예요.

효자손 아아.

MC 어떤 식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좀 얘기해 보죠.

바베큐 여기서 누군가 죽으면서 끝낼 수 있겠죠.

MC 휴고나 퀸 중 하나 이상 죽어야 할 것 같고요.

바베큐 휴고랑 퀸이 다 밀크로드로 가 버렸는데, 따라가기가 좀 어색한 맛이 있어요.

스미스 둘 중 하나가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MC 누가 돌아오죠?

바베큐 둘이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밀크로드의 끝!

효자손 같이 돌아온다! 한 몸이 되어서!

스미스 무에와 타이처럼.

바베큐 앗, 그런 건가요!

MC 그런 거였나요!

바베큐 둘이 붙어서 오면 정말 싫을 것 같다.

MC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둘이 바랬던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휴고가 바랬던 것의 부작용이었다?

바베큐 아니면 실패했거나요.

MC 근데 개들이 합체한다고 하면, 그 장면을 PC들이 봐야 의미가 있지, 다 끝내고 돌아와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거 RPG에서는 안 좋습니다.

바베큐 사념의 소용돌이로 우리가 그리 텔레포트가 된대거나? 사념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MC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밝혀졌죠, 그리고 보니. 아니면 밀크로드의 끝이 이리로 오거나요. 무예와 타이가 밀크로드의 끝이다!

효자손 마치 파랑새 이야기처럼요? (웃음)

MC 행복의 파랑새는 트럭 뒤에 타고 있었어! (웃음)

바베큐 그럼 무예와 타이를 통해서 휴고와 퀸이 나타나는 건가요?

MC 개들이 군대를 끌고 무예와 타이를 내놓으라고 올 수도 있고요. 소용돌이가 다 이야기해 주었다면서.

바베큐 “무예와 타이를 내어 놓아라!” 그럼 효자손은 어떻게 하나요?

스미스 “얼마에?” (웃음)

MC 안 내놓지 않을까요? 전에 죽어가면서 더 잘해 줄 걸, 그러지 않았나요?

효자손 그건 그때고... (웃음)

MC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맘이 변한 건가요. (웃음)

효자손 그건 효자손의 악독함을 강조하는 장면이 되겠죠.

MC 회개한 게 아니었구나.

다시 현실로

바베큐 그런데 지금 뭘 하려고 해도 탈옥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스미스 스미스는 지금 쓰러져 맞고 있죠.

바베큐 바베큐가 여기 개입을 하면 “애들아, 가서 다 쓸어버리고 효자손과 스미스를 구해 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재미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스미스나 효자손이 자력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MC 바베큐가 “탈옥수? 끌어 내서 마당에 모아 놓고 싸 버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베큐 맘대로 어떻게 하건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탈옥수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바베큐 그럼 빨리 넘어가 버려도 되겠네요.

MC 네. 효자손과 스미스가 폭행 당하는 모습이 바베큐의 눈에 다 보입니다.

바베큐 사정은 모르지만, 늑대화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휘 판정을 할게요. 전투에 들어가는 셈이니. (주사위: $2d6 + 2 = 11$) 3예비 받습니다.

스미스 늑대화!

바베큐 “스미스와 효자손을 구해 와라. 저항하는 놈들은 다 죽여도 좋아. 저기 있는 건 다 너희 거다.”

MC 명령이 떨어지자, 줌이 쑈서 하던 잿더미 부족 전사들과 바베큐 마을 사냥단이 원래부터 같은 무리였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놈은 옆으로 빠져서 상인들을 억박지르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시키는 대로 위로 올라가요. (스미스에게) 탈옥수들에게 맞고 있는데, 얼굴에 칠을 한 시빨건 야만인들, 그리고 그 흉내를 낸 바베큐 마을 사냥꾼들이 계단을 올라옵니다.

스미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MC 스미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놈의 머리가 폭발합니다.

바베큐 네. 탈옥수들이 NYPD를 공격할 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야만성으로, 바베큐의 새 병사들이 쇠도합니다...

효자손 헉.

MC 탈옥수들은 깜짝 놀랍니다. 경고도 없이 올라와서 그냥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탈옥수들이 쓰러져 갑니다.

바베큐 “꿀 좋다.”

MC 효자손의 앞에서 한 명이 엎드려 빌지만, 그 뒤에서 아랑곳 않고 내리찍는 칼에 맞아 등줄기에서 피를 뿜으며 죽습니다.

바베큐 강하게 전진하는 걸로 예비를 하나 쓴 거죠?

MC 네. 한 명이 스미스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가까이 오면 죽인다, 죽인다 하고 위협을 하지만, 바베큐의 새 부하들은 거기 아랑곳도 안 하고 머리를 반 날려 버립니다. 피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은 난간에 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과 NYPD에게 다 보입니다.

바베큐 주민들이 경악하겠네요. 과연 행복한 게 잘한 일일까, 하고.

MC NYPD 한 명이 고개를 들고 그 광경을 보더니 바베큐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이걸...”

바베큐 “다 너희 두목 휴고와 혜성단의 퀴이 초래한 일이다.” 탓을 합니다. “나도 그냥 사람들 밥이나 먹이면서 살고 싶었다고.”

MC 근데 NYPD 병사도 탈옥수 다 죽은 뒤에야 그 얘기를 합니다. (웃음) 바베큐의 패거리의 스미스와 효자손까지 죽여 버리지 않을까 싶었던 살육을 마치고 의기양양하여 계단을 내려 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을 해요. 잿더미 부족인지 바베큐 마을 사람인지는 피를 뒤집어 써서 알아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야, 저기 사과 맛있어 보이지 않냐.”

바베큐 진정시킵니다. 패배한 적을 자비롭게 대하게 합니다. 1예비를 써요.

MC (잠시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베큐 예? 정말요?

MC 네. 야만성 태그 발동입니다. 다들 와~ 하는 소리를 지르며 장터를 향해 달려 갑니다.

바베큐 한 번 더 명령해 볼게요. 마지막 1예비를 씹니다. 허공에 권총을 탕탕 탕 세 발 씹니다. “멈춰! 멈추란 말이야!”

MC 그러자 바베큐 마을 출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만인들을 말리는데, 그제서야 들쭉거리던 어깨의 움직임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바베큐 아아. 이렇게 되어버렸어.

MC 탈옥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개들은 자기들이 공을 세웠으니까 상이나 사면 정도는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다 물거품.

스미스 그렇게 누가 PC들을 괴롭히렀나!

MC 누구든 작은 PC들을 괴롭히면... (웃음) 효자손과 스미스는 그새 피칠갑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왕

바베큐 둘을 차로 불러요.

MC 가나요?

스미스 네.

효자손 예. 갑니다.

바베큐 바베큐도 몰골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있고, 피가 아직 배어 나옵니다. 효자손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마틸다의 팔을 슈타르에게 쥐 버렸소. 마틸다가 쓸 새 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소.”

효자손 새 팔이라.

MC 트럭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로봇 짜빠 팔? 원래 있던 건 총몽 팔인데. (웃음)

효자손 알겠노라고 합니다.

MC 마틸다가 아무래도 아쉬운 눈치입니다. “제 팔을 돌려 받고, 효자손 선생이 만든 팔을 저 여자한테 주면 안 될까요?”

바베큐 달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여기가 안정화되면 너는 바베큐 마을을 다스려라. 그 돈으로 언젠가 좋은 팔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합니다. 조종으로 할게요. (주사위: $2d6 + 2 = 8$)

MC “그럼 지금 바베큐 마을을 주십시오. 사냥단 몇 명을 붙여 주시면 함께 돌아가서, 바베큐님은 뉴욕의 왕이 되셨다고 전하겠습니다.”

바베큐 “조금만 더 곁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 줬으면 좋겠는데.”

MC 마틸다가 짜증을 냅니다. “싫어요. 지금 가야겠습니다.” 이건 판정의 결과.

바베큐 그러면 그러라고 합니다. 보내요. 애인 관계도 이걸로 끝나는 건가. 새 팔은 나중에 보내 주면 되겠죠.

스미스 바베큐에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일단락 되었군요. 이제 뉴욕의 왕이 되셨지만 아직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놈들을 소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잔당이란 물론 밖에 나간 휴고와 혜성단을 말하는 거지요.

MC 뉴욕의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특히나 얼굴에 칠을 한 야만인들이 시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흉악한 놈들이 장터의 상인들에게 헛바닥을 내밀어 겁을 주고, 야만족의 춤을 추고 그러합니다.

바베큐 이 소식이 결국은 휴고의 귀에 들어갈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될 것이고.

MC 그리고 보니 있을 법한데 안 나온 게 있네요. 휴고의 전속 사이코. 한 명은 있을 법한데.

스미스 밀크로드에 같이 갔을 수 있겠죠.

MC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아예 없어서.

바베큐 깊은 곳에 가두어 놓았을 수도?

MC 아까 탈옥했다가 야만인의 총에 머리가 터졌을지도! (웃음)

바베큐 아무튼 적들이 곧 올 테니 문 밖을 주시하며 전쟁을 준비하라!

MC 그러나 전쟁 준비가 소용이 있게 되는 날은 없었다.

스미스 휴고와 혜성단은 거짓말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웃음)

바베큐 뉴욕은 날로 변성했다.

MC 뉴욕은 날로 먹었다. (웃음)

바베큐 그런 건가요?

MC 아닙니다. (웃음) 그래도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이 주된 행동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준비 같은 건 액션이 아니니까 판정할 일도 없거든요. 뭔가 일어날 일도 없고요.

바베큐 그렇다면 준비에 며칠을 보냈다는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MC 적절합니다. 그렇게 비교적 평안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PC들은 모두 회복을 해요. 뉴욕에 남은 황금시대의 엄청난 의료 기술을 이용한 치료라고 하죠.

효자손 후시딘. (웃음)

MC 찬 칸은 다 지우세요. 사나흘이면 다 납니다.

바베큐 그러면 그간 있었던 일을 묘사할게요. 슈타르와 야만족 대다수를 돌려 보냅니다.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요. NYPD는 다시 잘 이야기를 해서 패거리로 흡수해요. 그러면 뉴욕 내부는 그렇게 흥흥하지 않겠죠.

MC 네. 하지만 야만인들이 사냥단에 남기고 간 켈치쇼크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베큐 NYPD 건물은 보수하지 않아요. 본보기로 남겨 둡니다. 피도 안 닦고, 깨진 이발소 등도 내버려 두고.

후환을 없애자

스미스 그리고 스미스는 토벌대의 조직을 주장합니다. “안정이 됐으니 여기서 언제까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시바빠 잔당들을 소탕해야 바베큐님도 안심하고 뉴욕의 경영에 힘을 쏟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베큐 그렇습니다.

스미스 “저에게 날랜 기병 삼천만 내어 주신다면!” (웃음)

바베큐 뉴욕에는 오토바이가 남아 있을까요?

MC 소수 있을 수는 있는데, 차들은 휴고가 거의 다 끌고 나갔죠, 혜성단 추적하느라.

바베큐 그럼 우리는 동력연이 있고... 몇 대 남았죠?

효자손 하나는 추락해서 폭발했구요. 뉴욕 폭격에 쪼트던 것 하나, 그리고 효자손이 타고 있던 거 하나가 고장 나서 바위에 얹혔는데, 그새 그건 회수했겠죠? 그러면 둘 남아 있죠.

바베큐 슈타르에게 연락을 보내요. 혜성단이나 NYPD 잔당이 보이거든 주저없이 죽여 버리라고요.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 섹스 액션! 그런 거 안 되나? (웃음)

MC 근데 지금, 마틸다도 나가 있는 마당에 토벌대를 지휘할 사람은 있어야 해요.

바베큐 네. 하지만 그 위치를 알아내긴 해야 하는데... 다시 뇌 개방을 합니다.

MC 전에 호되게 당하고도...

바베큐 너무 궁금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MC 알겠습니다. 적당히 한적한 방에 앉아서 뇌를 엽니다. 기괴 판정을 하세요!

바베큐 (주사위: $2d6 + 0 = 9$)

MC 이라면 또 희미한 것 밖에 안 나올 텐데... 깨끗한 도로가 시원하게 짝 뻗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길이에요. 양쪽에는 커다란 소나무, 전나무 같은 게 늘어선 숲이 있습니다. 숲 속의 고가도로죠. 거기를 자동차들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수는 많지 않아요. 선두의 자동차에는 휴고가 곳곳이 서 있고, 오토바이에는 쿤이 타고 있습니다.

스미스 둘이 사이좋게?

MC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꺼집니다.

바베큐 효자손을 불러서 묻습니다. “효자손 선생, 밀크로드를 모두 돌아 보셨다고 했지요?”

효자손 “그렇습니다.”

바베큐 풍경을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러이러한 길 이 뻗어 있는 곳은 어디요?”

MC 그런 곳은 없습니다. 밀크로드 주변에는 무너진 건물들 밖에 없어요.

효자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나무라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뭐죠?” (웃음)

바베큐 “아니오. 분명히 있어. 내가 봤소. 정말로 다 돌아 보긴 한 거요?”

효자손 “몇 번이나 돌아 봤습니다.”

MC 젊은 시절, 밀크로드의 끝을 보기로 한 효자손. 어, 여기 전에 왔던 데 같은데?

효자손 좀 더 가보자! (웃음)

MC 몇 바퀴 돌고서, 아! 이거 순환도로구나! (웃음)

바베큐 “아니, 그럴 리가 없소. 내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군.” 효자손의 말투가 휴고 같이 되어갑니다.

스미스 마차를 준비하라!

바베큐 뉴욕은 안정이 됐고, 별로 걱정할 것도 없으니, 나는 밀크로드의 끝을 찾으러 가야겠다! (웃음)

MC 집권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진시황 말년 모드인가요!

바베큐 반역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물론.

MC 그새 반역자가 됐군요!

바베큐 그 두 역적을 잡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MC 역적입니다, 이제.

바베큐 그렇군요. 영지가 평온하면 이런 걸 하게 되는군요.

MC 사흘만에!

바베큐 밀크로드에 분명히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고, 우리가 가면 거기 그 둘이 다 있을 것이다.

MC 네. 바베큐가 진시황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그리고 두 사람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스미스 스미스는 흔쾌히 찬성합니다. 후환을 없애는 것은 환영이에요.

효자손 효자손은 물론 휴고와 혜성단에 원한이 있으니 기꺼이 따라갑니다.

역적 사냥

MC 그럼 지금 가는 게 누구누구? 우선 부하들.

바베큐 병력 스무 명. 전직 NYPD, 바베큐 영지의 사냥꾼, 잿더미 부족 전사 중 좀 문명화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MC 스무 명 밖에 안 되니, 뉴욕의 첨단 장비를 다 들려 주겠죠.

바베큐 효자손의 트럭과 바베큐의 트럭을 모두 가지고 갑니다.

MC 도로에서의 싸움은 좀 불리하겠네요.

바베큐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력연이 있죠.

MC 무에와 타이는 이제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효자손의 트럭 앞 자리에 나란히 앉아요.

효자손 걸음걸이도 똑같고.

MC 네. 항상 손을 잡고 다닙니다.

바베큐 그게 다정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괴상한 춤처럼 보이는 거죠.

MC 음음.

바베큐 그리고 바베큐 스테이크 몇 상자를 챙겨서 갑니다. 뉴욕에서 징발한 물자를 좀 더 챙기고요.

MC 휴고가 떠나간 노을평원은 이제 야만족이 날뛰는 곳이 되었지만, 뉴욕 깃발을 들고 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베큐 네. 뉴욕 깃발은 기존 디자인에 바베큐 스테이크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 중 하나, 마틸다를 대신할 새로운 오른팔, 전투력은 약해도 행정을 잘하는 부하에게 뉴욕을 잠시 맡겨요.

효자손 간손미... (웃음)

바베큐 이름은... 마늘입니다. 전에 향신료 장사를 하던 뉴욕 토박이입니다. 휴고를 도와 사방에서 들어오는 공물의 출납을 담당했기 때문에 바베큐와도 안면이 있어요.

MC 네. 마늘입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베큐 잘 부탁한다고 하고, 화려한 퍼레이드 같은 건 없이 새벽에 조용히 나갑니다.

MC 차를 타고 밀크로드를 향해 달립니다.

스미스 하늘에는 항상 동력연이 하나 떠 있고.

MC 연료 떨어지면 교대하고, 연료 보충하고. 이게 뭐야. 정말로 항공모트력이다. (웃음) 혹시 며칠 새 트럭을 개조했나요? 착륙판 만들어 놓고, 연도 날개 접이식으로 바꾸고.

효자손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러죠.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바람의 힘으로 정말 연처럼 뜨게! (웃음)

MC 오오. 좋습니다.

바베큐 사망 플래그를 세워야지.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역적을 잡고 나면, 나는 영지의 실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조용히 요리를 하면서 살고 싶다.” (웃음)

MC 그래서 갑니다. 20명의 정예를 싣고. 그런데 이 수로 대군을 마주치면 위험할 텐데요. 이쪽에서 믿는 건 일단 동력연이죠?

바베큐 네. 그리고 휴고 잔당이나 혜성단이나, 머리를 자르면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MC 연 덕분에 경찰에서는 큰 우위를 점할 거예요. 연은 누가 타나요?

효자손 하나는 효자손.

MC 다른 하나는?

효자손 누군가 훈련시킬 사람이 있겠죠?

MC 바베큐 부하들 중 하나겠죠.

바베큐 타기 쉬운 물건 같으니.

MC 한 놈이 자원하더니, 기계에도 재주가 있는지 조종을 페달로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는 NYPD가 갖고 있던 저격총을 들어요.

효자손 천재다.

MC 이를 시기한 효자손! (웃음)

바베큐 “커다란 녹색 나무가 보이면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다!”

MC (효자손을 보고)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곳은.

효자손 그렇죠.

바베큐 혹시 그게 황천길이었으면 어떡하지? 둘이 같이 사이 좋게 황천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웃음)

잔해

MC 밀크로드의 진입로가 보입니다. 여기는 원래 지상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 앞에서 지키고 앉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잔해가 수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NYPD와 해성단의 깃발이 찢어져서 바닥에 구르고 있어요. 시체 틈으로 들개들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쳐다 봅니다. 재들도 죽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찬 눈빛입니다.

스미스 NYPD와 해성단이 싸운 자리군요.

MC 그렇습니다.

효자손 연을 착륙시키고 퀸과 휴고의 시체를 찾으려 합니다.

바베큐 부하들에게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MC 그 둘의 얼굴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몇 시간에 걸쳐 시체를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미스 들개는 총을 쏘서 쫓습니다.

MC 그러나 휴고도 퀸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고가 타고 있던 특장차의 잔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효자손 퀸의 오토바이는 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MC 전에 퀴이 황무지에서 도망치는 걸 본 적이 있지요. 그 오토바이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둘만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는 여기서 죽은 게 맞는 것 같지만요.

효자손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MC 그렇습니다.

바베큐 진입로로 들어가자고 신호합니다.

MC 무에와 타이의 큰 트럭과 쌀이 운전하는 작은 트럭이 잔해 틈을 비집고 밀크로드로 진입합니다.

스미스 드디어.

밀크로드의 끝으로

MC 새 뉴욕의 깃발을 펼치고 고가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무에와 타이가 잘 해서 그런 건지, 밀크로드들이 길을 비켜 줍니다.

스미스 물렸거라! 새 뉴욕 시장 행차시다!

MC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가면 갈수록 밀크로드의 트럭들이 드물어집니다. 끝내는 아예 차들이 없어요. 도로가 텅 빕니다. 더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걸까? 스미스는 지금 어디 타고 있나요? 효자손은 자기 트럭 뒤에 타고 있을 것이고, 바베큐는 또 자기 트럭 뒤에 타고 있을 텐데.

스미스 스미스는 바베큐의 곁에서 경호합니다.

MC 스미스와 바베큐는 여기 처음 와 봅니다. 사실 효자손과 무에/타이를 빼면 다들 처음 와 보는 거죠. 심지어는 쌀도 잔뜩 얼어 붙어 있습니다. 항상 황무지만 다니느라 이런 속도로 달려 본 적이 없어서.

바베큐 충분히 신기할 만도 한데, 바베큐는 이렇게 되됩니다. “나무가 없군. 나무가 없어.”

MC (편집자 모드) 여기서 갑작스럽게 끝내 버릴까요?

바베큐 헉. 다 죽었습니다?

MC 아니, 그건 아니고요. 효자손의 트럭이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겠죠?

효자손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MC 그럼 끝내는 방법이... (잠시 생각) 효자손에게 무에/타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음 번 왼쪽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효자손 “그게 무슨 소리냐?”

MC “밀크로드의 끝으로 갑니다.” (웃음)

스미스 다음 역은 밀크로드의 끝, 밀크로드의 끝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이런 건가요? (웃음)

효자손 “무슨 소리야. 밀크로드의 끝이 어딤어?”

MC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립니다. “그 동안 사장님은 눈이 있으면서 보질 않으셨어요. 밀크로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효자손 “왜? 왜?”

MC “가고 싶으니까요.”

바베큐 혹시 바베큐가 얘기한 것도 그런 건가? 사실은 무애와 타이와 바베큐가 한 덩어리였던 건가?

효자손 “야! 내가 사장이야! 차 돌려! 이제 너희까지 날 괴롭히는 거냐!”

MC “사장님 그 동안 고맷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확 흔들립니다. 효자손은 뚜껑이 있는 트럭 안이라 밖에 안 보이지만, 개방형 짐칸에 앉은 스미스와 바베큐의 시야는 마치 보이지 않던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빛이 보입니다. 조금 더 달리자 나무가 울창한 숲이 보입니다.

바베큐 별떡 일어납니다. “나무다! 나무다! 저기야! 속도를 높여!”

스미스 바베큐를 붙잡습니다. “위험합니다. 몸을 낮추세요!”

MC 스미스가 운전석을 보니, 짙은 운전대 위에 엮어져 있습니다. 차는 누가 운전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고 달립니다.

바베큐 바베큐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집니다.

효자손 위쪽 문을 열고 나가서 봅니다.

MC 앞에는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어요.

바베큐 NYPD와 해성단인가요!

MC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는 매우 조출해요. 양쪽 다 합해 봐야 한 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애와 타이의 목소리가 효자손에게 들립니다. 이제 아까보다 더 겹쳐 들립니다. “여기가 밀크로드의 끝입니다.”

효자손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냐?”

MC “그것은 ... 정말로 가 보고 싶습니다.” 효자손이 운전석의 선루프를 들여다 보자, 조수석이 비어 있고 운전석에 한 명만 타고 있습니다. 무에인지 타이인지 모르겠습니다.

효자손 “타이는 어디 갔어!”

MC “제가 타이입니다.”

효자손 “그럼 무에는!”

MC “제가 무에입니다.” (웃음) 그렇게 달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앞에 가는 차와 오토바이들과 만납니다. 뉴욕의 차들과 오토바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바베큐 바베큐가 외칩니다. “효자손 선생! 효자손 선생! 연을 띄우시오!”

효자손 날아오릅니다.

MC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소나무 숲. 무너진 건물 밖에 없던 풍경인데.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치 수정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햇빛을 받아서 희게 빛납니다. 길은 그리로 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왠지 이상하게, 하늘이 파란색입니다.

바베큐 그림책에서만 보던 그 풍경입니다.

MC 그리고 구름이 빨갛지 않습니다.

바베큐 여기는 기분이 좋습니다. 휴고랑 쿼를 날려 버리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휴고와 쿼는 어디 있는가!” 연에 대고 외칩니다.

MC 앞에 달리는 차들은 NYPD가 쓰던 황무지용 자동차들, 그리고 오토바이들입니다. 밀크로드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에요. 트럭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는 전의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까지 다 합해도 십여 대 정도? 아예 적은 건 아니죠. 이쪽은 두 대니까. 하지만 머릿수는 이쪽이 더 많을 것입니다.

효자손 “휴고랑 쿼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죽일까요?”

바베큐 엄지손가락을 내려 보입니다.

MC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끝을 내긴 내야 하는데, MC가 아니라 편집자로서는 지금 전투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바베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멀다?

MC 음, 영화나 소설이라면 모르겠는데, RPG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 농간 같은 기분이 있어요. 잘못 쓰면...

효자손 도시에 도착해 버린다?

MC (생각하다가) 이 도로는 기분이 좋아요. 평평하고 매끄럽습니다. 차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동력연은 항무지를 가는 차를 능히 추월할 수 있고, 밀크로드를 달리는 차와 보조를 맞출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뒤처지려고 합니다.

효자손 “차들이 너무 빠릅니다!”

MC 돌풍이 불니다. 위험을 견뎌 보세요!

효자손 (주사위: $2d6 + 2 = 9$)

MC 엔진을 끄고 고도를 낮추지 않으면 소나무에 걸릴 것 같습니다.

효자손 “착륙한다.” 옆을 보고 “너도 착륙해!”

MC 그러나 다른 하나는 바람에 휩쓸려...

스미스 실이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걸리나요. (웃음)

MC 그렇습니다. 무력한 엔진소리만 들려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소리도 곧 들리지 않게 됩니다. 효자손의 동력연은 트럭에 내립니다.

효자손 이대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바베큐 바베큐는 신경질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눈앞에 적이 있는데! 왜 죽이지를 못하니!” (웃음)

MC 도로가 게으른 원커브를 툽니다. 그러자 이제 빛나는 수정 도시가 정면에 보입니다.

바베큐 달립니다.

MC 무에인지 타이인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야말로 끝입니다. 밀크로드의 끝입니다.”

바베큐 스미스와 바베큐는 모릅니다.

MC 아, 들려요! 스미스와 바베큐의 머릿속에도, 뇌카오톡이.

바베큐 녀를 잃고 바라봅니다.

스미스 “아니, 밀크로드는 순환도로라 끝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베큐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요. 스미스 선생도 소원을 생각해 보시오.”

스미스 “소원이라니요?”

바베큐 “웬지 저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것 같소.”

MC 그럼 여기서 끝입니다.

끝?

효자손 에? 그래도 되는 건가요?

MC 문제가 뭐냐면요. 아포칼립스 월드도 그렇고 던전월드도 그렇고, 원래는 끝이랄 게 없어요. 계속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아, 이 정도면 끝낼 만하다, 했을 때 끝나는 거죠.

바베큐 하지만 여기서 정말 끝인가요?

MC 끝을 안 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저 도시 안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바베큐 그렇기는 해도, 뭔가 임팩트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끝낼 수 없어요!

MC 그렇단 말이죠? 뭔가 일어나는 그림이 필요하다?

바베큐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든 암시할 수는 있는 그림.

스미스 휴고와 퀴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거나.

MC 음음. 알겠습니다. 차가 다가가자, 도시의 벽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을 정도로 높고 거대한, 절벽 같은 방벽입니다. 벽에는 거대한 문이 있고요, 그 앞에 모든 차들이 멈춥니다. 다들 내려서 어리둥절해 합니다. 두 명을 빼고요.

바베큐 누구요?

MC 휴고와 퀴이. 이 둘은 각자 차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나란히 섭니다.

스미스 무에와 타이는요?

MC 무에와 타이는... 없습니다.

효자손 헉.

MC 언제부턴지 없습니다. 차는 알아서 멈췄고. 무에와 타이는 자취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요?

바베큐 뭔가 신비로운 심적 변화 같은 것도 없죠? 그냥 아직도 휴고와 퀴을 죽이고 싶은 거죠?

MC 스스로 그런 변화가 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당신은 갑자기 평온한 기분이 듭니다!” 같은 건 안 합니다. (웃음)

바베큐 하지만 이런 걸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상하네요. 바베큐는 거대한 도시를 보고 압도됩니다. “이것은 뉴욕의 백 배? 천 배? 이런 도시가 있던 말인가?”

MC 햇불의 여신상 비슷한 게 있는데, 훨씬 더 큼니다.

바베큐 그리고 벽 너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뽀족한 탑도 있고 그렇죠?

MC 그렇죠. 뽀족하고 기다란 연필 같은 것들이 솟아 있어요.

스미스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LA! (웃음)

바베큐 “내가 목숨을 걸고 정복한 뉴욕은 여기에 비하면 먼지와 같구나.”

스미스 “바베큐님, 정신 차리십시오!”

효자손 태산에 올라 천하를 보니... (웃음)

스미스 이걸 다 환상, 허깨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MC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안은 하도 밝아서 보이지 않아요.

바베큐 홀린 듯 걸어갑니다.

MC 오토바이들과 차들의 틈을 지나 갑니다. NYPD와 해성단의 줄개들은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휴고와 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베큐 바베큐도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효자손 군주급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MC PC는 예외!

스미스 스미스가 칼을 뽑아 들고 바베큐의 앞을 막아 섭니다.

MC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웃음)

바베큐 “스미스 선생, 이게 무슨 짓이오?”

스미스 “뭘지는 모르지만 저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가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MC 뭘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 기괴가 -1인 사람이 할 만한 얘기군요. (웃음)

바베큐 “어찌 이런 걸 보고 가지 않을 수가 있겠소?”

MC 효자손은 어떻게 하나요?

효자손 이미 연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연연연연.

MC 판 사람들은 걷고 있으니, 효자손은 이미 들어갔겠네요! (웃음)

효자손 문 열리기 전에 진작에 담을 넘어갔어요.

바베큐 “내가 스미스 선생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았겠지만...”

스미스 “이건 다 환상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베큐 “스미스 선생은 여기 와 본 적 있소?”

MC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은 오징어고... (웃음) 저건 오징어잡이 배고?

바베큐 스미스가 답이 없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 테니, 스미스 선생은 돌아가서 뉴욕을 다스리시오.”

MC 그렇게 되는 건가? 정말 빠른 시간 동안 그걸 다 했네요. 왕도 되고, 승천도 하고, 후계자한테 맡기고.

스미스 놀랍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히 막지 못하고 길을 비킵니다.

MC 바베큐의 차림새는?

바베큐 앞치마에 전쟁용 모자를 쓰고 있어요.

MC 그 모습으로 빛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된 바베큐. 그리고 애저녁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효자손. 문이 닫힙니다. 스미스가 정신을 차려 보니 여기는 익숙한 풍경의, 붉은 별판 위를 가로지르는 밀크로드의 한복판입니다. 주변에는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두목을 잃은 NYPD와 두목을 잃은 혜성단이.

효자손 두목을 잃은 스미스도. (웃음)

바베큐 사장을 잃은 효자손 트럭.

MC 효자손 트럭은 이제 주인이 없네요. 달리 몰 사람이 있을까요? 버리고 갈 수도 있겠고. 다들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혜성단의 한 명이 “일단 여기는 뜨고 보자. 밀크로드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하더니 다른 단원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NYPD 대원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리번거립니다. 정신을 차린 쌀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스미스한테 묻습니다.

스미스 “이렇게 된 이상 뉴욕으로 간다.” (웃음) 작은 트럭의 옆자리... 그러니까 쌀의 옆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휴고에게 버림 받은 NYPD에도 소리쳐요. “어이, 너희들. 너희도 같이 뉴욕으로 가자. 여기 있어 봤자 소용 없잖아.”

MC 효자손의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좀 무리해서 작은 트럭과 NYPD의 차에 나누어 탑니다. 큰 트럭을 몰 사람이 없어서요.

스미스 “돌아가자.”

MC 그렇게 다들 떠납니다. 황량한 들판, 텅 빈 고속도로에 효자손의 트럭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끝!

효자손 자막 올라가고 엔딩 테마 나옵니다!

MC 뭔가 경쾌한 음악이려나.

바베큐 어울리는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스미스 여하튼, 끝! (박수)